제1회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1. 대회개요
2. 경기일정 및 성적
3. 지역별 선수들의 장단점 및 보완점
4. 전력평가 및 앞으로의 대책

한국여자대표코치/김영인

1. 대회개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창설이래 처음으로 여자부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32개국에서 142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다.

2. 경기일정 및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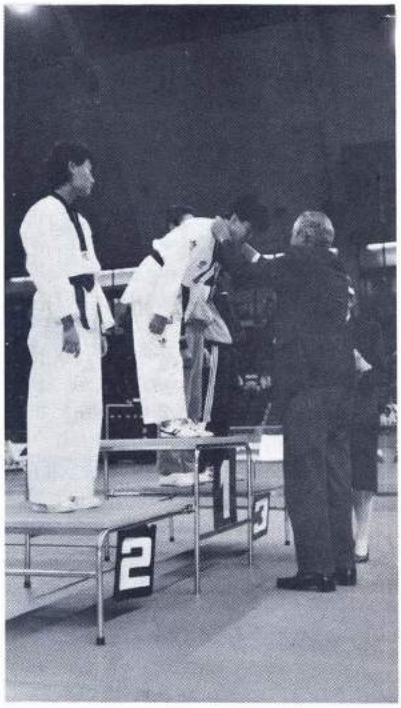
▲10월 7일 : 7시 40분~8시 계체 · 페더급 경기
▲10월 8일 : 플라이급 · 밴텀급 경기
▲10월 9일 : 헤비급 · 미들급 경기
▲10월10일 : 웰터급 · 라이트급 경기
▲10월11일 : 핀급 경기

● 종합성적

번호	메달 / 국명	금	은	동	나라별 메달집계	등위
1	한 국	3	2	1	6	1
2	대 만	1	3	3	7	2
3	스 페 인	1	1	3	5	3
4	터 어 키	1	–	1	2	5
5	네 델 란 드	1	–	1	2	5
6	미 국	1	1	2	4	4
7	멕 시 코	–	1	1	2	6
8	독 일	–	–	1	1	7
9	인도네시아	–	–	1	1	7
10	프 랑 스	–	–	1	1	7
11	카 나 다	–	–	1	1	7
	계	8	8	16	32	

●출전국 선수 인원 현황

번호	체급 / 참가국명	핀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계
1	한국	1	1	1	1	1	1	1	1	8
2	대만	1	1	1	1	1	1	1	1	8
3	싱가폴	1	1				1			3
4	호주	1		1	1	1	1	1		6
5	인도네시아	1		1	1					3
6	알레지아		1		1	1	1			4
7	네팔	1	1	1						3
8	미국	1	1	1	1	1	1	1	1	8
9	멕시코	1	1	1	1	1	1	1	1	8
10	푸에리코리코	1		1	1	1		1	1	6
11	카나다	1	1	1	1	1	1		1	7
12	에콰도르		1							1
13	파나마		1							1
14	이태리	1	1	1	1	1	1			6
15	프랑스			1	1	1	1			4
16	스페인	1	1	1	1	1	1	1	1	8
17	독일	1	1	1	1	1	1	1		7
18	오스트리아		1		1	1	1	1	1	6
19	네델란드				1					1
20	덴마아크			1	1	1	1			4
21	아이보리코스트						1	1		2
22	아이슬랜드			1	1		1		1	4
23	터어키	1	1	1	1	1	1			6
24	벨지움			1	1					2
25	그리스			1	1	1		1	1	5
26	모로코			1						1
27	유고슬라비아			1	1	1	1	1		5
28	스웨덴			1						1
29	큐라카오			1			1			2
30	영국				1	1	1	1		4
31	페루						1		1	2
32	홀랜드		1	1		1	1	1	1	6
	계	14	16	23	22	19	22	14	12	142



●입상자 명단

체급 / 메달	금	은	동	
핀급	한국	멕시코	스페인	대만
	장이숙	TORRES.M	MORENO.R	YU.FANG
플라이급	대만	한국	미국	스페인
	YUN-YIAO	이영	HATTER.G	CAYETANO.A
밴텀급	터어키	스페인	대만	멕시코
	YER CHSU.T	LOPEZ	YA-LIN	OGARRIU
페더급	한국	미국	터어키	인도네시아
	김소영	K.DOISON	Z.TAN	A.WONG.KAL
라이트급	한국	대만	스페인	프랑스
	이은영	FENG-LIEN	NAVAZ.E	EVANNO
웰터급	스페인	한국	대만	카나다
	BISTURE.C	김지숙	HUEY-TING	TESSA.E
미들급	네델란드	대만	독일	미국
	DE.JONGH.M	CAIN-YU	BIEGGER.A	TEWELL.S
헤비급	미국	대만	네델란드	한국
	LOVE.L	YI-LING.L	BUYS-A	장윤정

지역별 선수들의 장단점 및 보완점

지역	아세아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나라	한국, 대만	터어키, 스페인, 독일, 프랑스, 홀랜드	미국, 카나다, 멕시코
장점	1.기본기 및 기본 스텝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다.	1.신장 및 체력을 이용한 경기 운영이 항상 되었다.	1.역시 월등한 체격 요건을 이용한 과감한 공격이 돋보였다.
	2.정확한 스텝에 의한 스피드가 돋보였다.	2.경기에서 부담에 구애 받지 않고 뛰는 것이 돋보였다.	2.모션과 스텝의 기본기가 어느정도 숙달 되었다.
	3.경기운영에 있어서 리듬에 의한 경기운영의 능력이 있다.	3.체력에 의한 몸싸움이 좋았다.	3.연타 공격이 간혹 나오는 것이 돋보인다.
	4.경기 리듬에 의해서 체력 안배가 좋았다.	4.긴공을 이용한 주먹 공격이 좋았다.	4.체력을 이용한 몸싸움과 주먹공격이 돋보였다.
	5.정확한 스텝과 모션에 의한 공격력이 좋았다.	5.관중의 반응에 구애 받지 않고 경기에 임한다.	5.코치의 작전지시에 절대 복종 순응한다.
	6.임기응변의 공격, 방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았다.	6.심판 판정에 반응없이 승복한다.	6.공격 부위에서 몸동과 얼굴 공격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7.받아 차기를 반사적으로 한다.	7.코치의 작전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7.과거에 단조로운 공격에서 다양한 공격이 돋보였다.
	8.공격적인 방어가 좋았다.		8.경기 리듬에 의한 체력 안배를 이용한 강약의 조절능력이 돋보였다.
단점	1.과감한 공격이 미흡하고 안전 위주의 소극적인 공격을 한다.	1.기본기와 스텝이 전혀 없다.	1.경기 운영이 미숙하다.
	2.체력의 열세가 현저했다.	2.체력에 의한 단조로운 공격을 한다.	2.심판 판정에 예민하다.
	3.보편적으로 주먹 공격이 부족했다.	3.아직 시합경기 운영이 미숙했다.	3.스텝과 공격의 연결이 아직도 미숙했다.
	4.몸싸움을 싫어하며 매끄럽고 정확한 발차기만 시도하려 한다.	4.경기 리듬을 스스로 끊는 것을 볼 수 있다.	4.작전에 의한 리듬있는 공격이 없었다.
	5.연결 및 연타 공격이 미흡했다.	5.작전에 의한 수비, 공격이 미흡했다.	

단점	6.관중을 필요이상으로 의식한다.	6.받아 차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5.공격 발차기와 방어 발차기에 의한 다양한 공격이 아직 미숙했다.
	7.심판의 판정에 예민한 반응을 표시한다.	7.몸 통, 얼굴 등 다양한 공격을 하지 못한다.	
	8.얼굴 공격보다는 몸통 공격에 주력한다.	8.단타 공격을 위주로 한다.	
보완점	1.3분 3회전을 통한 체력 안배 내지는 전문 체력 향상이 시급하다.		
	2.체급별 장신화를 이루어야 하며, 장신에 대비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연구, 훈련하여야 한다.		
	3.단타 위주의 공격보다는 난이도가 높으며, 연타와 기술적인 동작을 시도할 줄 알아야 한다.		
	4.자신력과 과감성을 길러야 한다.		
	5.현, 1차선발로 끝나는 대표 선발전을 1, 2차 최종 선발전까지 확대 시켜야 바람직하다.		
	6.대표 선발된 1, 2위자리를 일정 기간 내에 합동 또는 합숙훈련을 통하여 선수들의 경쟁의식에 의한 실력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7.과감한 투자와 전국 체전, 소년체전에 정식 종목이 되어야 여성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8.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수를 육성을 해야 한다.		

4. 전력평가 및 앞으로의 대책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자유중국 선수들 또는 터어키의 밴텀급 선수, 스페인의 웰터급 선수 등 몇명을 제외하고는 기본기의 미숙달과 기본 전술 전략을 무시한 평범한 공격을 함으로써 유리한 체력과 신장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였으며, 반면에 한국 선수들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착실한 기본기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신장과 체력의 열세를 만회하며 상대선수의 리듬을 끊어놓음으로써 경기의 전반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도표 : 3개체급신장비교)여자대표선수들은 종주국이라는 점과 제1회 세계대회에서 꼭 우승을 하여야만된다는 부담감과 편파적인 경기장의 관중들 분위기, 심판 경기운영의 미숙한 점 등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선수들의 정신적 불안정과 심적 부담감은 경기력을 약화시켰으며, 경기의 흐름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의 추세로 본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단과의 대등한 경기력 내지는 오히려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은 주시해야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선수단이 정보의 부재로 인한 외국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였으며, 터어키와 같은 나라에서 여자 선수들을 육성하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그들이 지난해의 유럽 참피온 국가였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은 종주국 태권도의 낙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많은 국제 시합을 통하여 실력을 착실하게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좀더 활발한 정보 입수와 그들의 성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과 관중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려면 국내경기에서도 국제룰에 맞는 경기를 해야 한다. 또한 다득점제를 선택함으로써 난이도가 높은 기술 개발을 유도하여야만 하겠다.

● 3개 체급 신장비교

페더급		밴텀급		플라이급	
국명	신장	국명	신장	국명	신장
독일	167	덴마아크	163	대만	160
미국	173	그리스	165	독일	168
터어키	170	프랑스	162	싱가폴	162
스페인	170	한국	158	말레지아	160
네델란드	168	스페인	162	스페인	164
영국	165	이태리	162	네델란드	167
멕시코	165	독일	170	미국	162
대만	170	미국	162	에콰도르	163
호주	173	터어키	164	카나다	163
덴마아크	173	대만	160	호주	163
이태리	174			한국	162
오스트리아	170				
인도네시아	170				
말레지아	165				
한국	164				
평균신장	169.13cm	평균신장	162.80cm	평균신장	163.69cm
신장격차	−5.13cm	신장격차	−4.80cm	신장격차	−1.09cm

사상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종주국의 위용을 떨친
한국 여자대표 선수단

1987년도 전국 추계 종별선수권 대회

9. 21~26, 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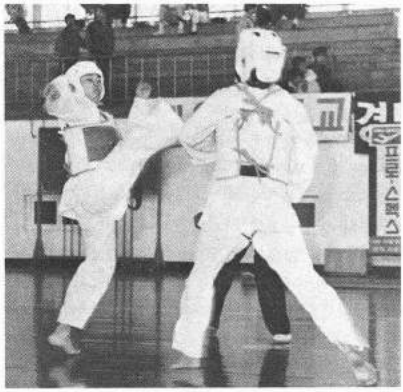
김 기 용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 부위원장

1. 대회개요

매년 증가하는 태권도 선수들에게 경기참가의 폭을 넓히고 '88 올림픽을 대비하여, 우수한 선수의 폭넓은 발굴을 위해 '86 년부터 신인선수등용의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아래 추계종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된 '87 년도 전국추계종별 선수권대회는 중등부 225명, 고등부 556명, 대학부 29명, 일반부 47명 등 총 857명이 출전한 가운데 9월 21일 오전 11시 임원 및 선수입장으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 본회 엄운규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종별선수권 대회가 국위선양과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한 수많은 선배 국가대표선수의 등용문이었다는 빛나는 전통을 오늘 참가한 선수 여러분이 훌륭히 계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에도 많은 신인들이 참가해 좋은 기량을 보여 주었다.

2. 경기 내용

대회 첫날인 9월 21일은 중등부 경기가 준결승전까지 진행되었다.

중등부에서는 성남동중에서 5명의 선수가 메달권에 진입함으로써 중등부에서 가장 막강한 실력을 과시하였으며 이어 배명중, 청주남중, 동성중이 뒤를 쫓으며 실력대결을 벌였다.

한편 첫날 계체에서 실격이 5명, 불참 33명 등 38명이 탈락하는 양상을 보여 선수들의 대회에 임하는 자세 및 체중조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틀째 경기가 벌어진 9월 22일에는 고등부 경기가 펼쳐졌는데 이날도 전날과 비슷한 37명의 선수가

중등부 11체급에서 패권을 차지한 신인강자들.

실격 및 불참으로 탈락했다.

페더급 예선전 경기에서는 영천고의 정문용선수가 서울고의 두내모선수를 맞아 2회 50초만에 주심직권승(R.S.C)을 거두었고 이어 항도실고의 김기종선수는 찬스포착이 빠르고 계속적인 공격으로 1,2회전에 계속 득점을 올리며 광명고의 김인기선수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대회 3일째 경기가 펼쳐진 9월 23일 경기는 전날에 이어 고등부경기가 계속되었다.

고등부 페더급 2차전 경기에서 경남체고의 안정철선수와 청구상고의 이지형선수의 대전은 전 경기를 통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가운데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두 선수는 다양한 공격력을 펼쳐 4:6으로 기본기에서 안정감이 있는 안정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경기도중 오전 11시에는 제8회세계선수대회에 참석할 선수단과 해외원정 국기원시범단 결단식이 10여분간 진행된뒤 12시부터 경기가 속행되었다.

대회 나흘째 경기가 펼쳐진 9월 24일에도 고등부 경기가 계속되었다.

대회가 전날에 이어 페더급 2차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동성고의 박세홍선수는 경문고의 배용준선수를 2회 59초만에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K.O승을 거두며 3차전에 진출했다.

또한 라이트급 경기에서도 송곡고의 한규성 선수가 홍대부고의 염창복선수를 1회 17초만에 뒤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다운을 뺏으며 3차전에 오르는 등 이날만 3게임의 K.O승이 나왔다.

대회 5일째 경기가 벌어진 9월 25일은 고등부 경기가 준결승전까지 마쳤고 일반부 예선전 경기가 있었다.

메달권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친 이날 경기는 103명이 출전한 고등부 핀급의 16강전부터 시작되었다.

핀급 16강전에서 신예 광영고의 우호진 선수는 동성고의 임석원선수를 맞아 1회 1분 10초만에 앞밀어차기로 안면을 강타하여 R.S.C승을 거두었다.

한편 페더급 16강전에서는 경남체고의 안정철선수대 동성고의 이경철선수의 대전에서는 동성고의 코치가 전경기(밴텀급 대진번호 448번, 451번, 452번)의 관정에 불만, 경기에 출전한 이경철선수를 기권시킴으로써 기권패당하기도 했다. 태권도 명문고교의 지도자로서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한편 8강전으로 좁혀진 핀급경기에서 동성고의 박기찬선수와 서울체고의 박정화선수의 경기에서는 명문고팀의 맞수답게 팽팽한 접전을 벌리면서 1,2회전에 박기찬 선수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 3회전에서도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던중 아깝게 1점을 빼앗김으로 박정화선수에게 뼈아픈 고배를 마셨다.

미들급 8강전 경기에서는 포항수산고의 이성훈선수가 삼천포고의 김희태선수를 맞아 2회 5초경에 돌어차기로 안면을 강타하여 K.O승을 거두고 4강

진출했고 이어 벌어진 형석고의 한정주선수는 학다리고의 정희천선수를 판정으로 이겼다.

대회 마지막날 경기는 신인 선수들이 우승의 고지를 향해 최고의 기량과 정신력을 발휘한 가운데 펼쳐졌다. 중등부 핀급경기에서 성남동중의 손영석선수가 청주남중의 성상일선수를 누르고 패권을 차지하며 금메달 행진을 시작했다.

중등부 플라이급 결승전에서는 청주남중과 청주중에서 박승수선수와 정진백선수가 나란히 올라와 충청도세를 자랑하는 가운데 청주중의 정진백선수가 패권을 차지했다.

한편 청주남중은 선수출신의 이창석코치가 사령탑 1년 3개월여만에 3차례의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며 5명의 선수가 전적을 보유하는 개가를 올림은 물론 이번 대회에도 11명이 출전해 8명의 선수가 8강에 진입했고, 그 중에서 핀급에 성상일선수가 2위, 플라이급에 박승수선수가 2위, 라이트급에 이재길선수가 3위로 입상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편 배명중학교는 밴텀급경기에서 양홍석선수가 박만석선수를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음은 물론 L-웰터급 경기에서 방영인선수가 경수중의 송환기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며 중학 태권도의 강자로서 부각했다. 이밖에도 라이트급에서 정하준선수가 2위를 차지하였다. 배명중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양성박코치는 이번 대회에 7명이 출전하여 3명이 결승전에 진출해 기쁘지만 라이트급의 정하준선수에게 꼭 금메달을 기대했었는데 아깝게 놓쳐 안타깝다고 했다. 배명중의 이번 대회 입상자 3명은 모두 1,2학

고등부 입상자들의 당당한 모습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후 대회에 출전, 노익장을 과시한 정현도선수(경남대)

년 무명의 선수들이라 앞으로의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부 결승전 경기는 핀급 결승전에 올라온 광영고의 우호진선수와 오현고의 성의천선수가 올라와 1,2회전에 각각 득점 하나씩을 뽑아내는 가운데 팽팽한 접전을 벌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는데 3회전에서 성의천선수가 우세판정을 받음으로써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어 벌어진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영천고의 김용만선수가 성동상고의 차용석선수를 맞아 1회전에 득점한개씩을 주고 받는 접전끝에 우세판정을 받았으나 2회전에는 차용석선수가 우세판정을 받아 우열이 팽팽한가운데 3회전을 맞아 우세판정으로 김용만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라이트급 결승전에는 송곡고의 오광석 선수와 경남체고의 남정렬 선수가 1회전부터 불꽃튀는 접전을 벌여 1:1동점을 이룬 가운데 2회전에 들어서 오광석선수가 선제득점을 뽑으며 기선을 잡아 승세를 굳혔다.

고등부 헤비급 결승전에는 협성고의 한삼석선수와 송도상고의 전성호선수가 올라와 득점이 없는 가운데 공방전을 펼치다 한삼석선수가 우세판정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학부 경기는 총 29명이 출전한 가운데 6체급이 경기를 펼쳐 대회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를 면치 못했다.

3명이 출전한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유도대의 최현열선수와 경남대의 문문현 선수가 접전, 3:2득

대학부 입상자들.

점차로 최현열선수가 승리를 차지했고 9명이 출전한 페더급에서는 유도대의 임채수선수가 경희대의 신창화선수를 3:1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라이트급 경기에서는 통영 수산전문대의 이영대선수가 경남대의 정현도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2위를 차지한 정현도선수는 충남송악고 재학시에 무명의 선수생활을 보내다 경남대 사대 체육교육과에 진학, 군복무를 마치고 금년 9월에 1학년 2학기로 복학해 25세의 비교적 노장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 처음으로 전국대회에서 입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일반부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인천협회의 오인수선수가 천안송무체육관의 김은기선수를 맞아 계속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뽑으며 가볍게 승리했다.

웰터급 결승전에는 아주체육관의 박태규선수가 경기체육관의 김정웅선수에게 1회전에 2점이나 실점하자 기권함으로써 김정웅선수가 금메달의 고지를 쉽게 점령하였다.

신인들의 등용문인 종별선수권대회는 매년 춘·추계대회로 나누어 2번 실시되는데 올 상반기에 실시된 춘계대회에는 총 1천 4백 50명이 출전한데 비해 이번 추계대회에는 8백 57명이 출전, 규모면에서 상당히 축소되었고 특히 중등부가 225명, 고등부가 556명으로 총 781명의 중고생이 참가한데 비해 대학부 29명, 일반부 47명등 대학 일반부에는 불과 76명이 참가, 10:1정도의 참가율을 보여 종별선수권대회의대학부 이상의 성인 참가의 저조가 확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내용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기술과 공격면에서 우수선수들 못지않은 실력을 보이고 있으나 선수중에는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천적인 순발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기술을 펼치는 경향도 많았다.

입상자 명단

●중 등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송 영 석	성 남 동 중
	2	성 상 일	청 주 남 중
	3	김 인 철	방 화 중
	3	정 종 석	풍 생 중
플라이급	1	정 진 백	청 주 중
	2	박 승 수	청 주 남 중
	3	남 현 철	경 수 중
	3	이 용 승	성 남 동 중
밴 텀 급	1	양 홍 석	배 명 중
	2	박 만 석	경 수 중
	3	홍 순 우	선 덕 중
	3	김 승 규	태 안 중
페 더 급	1	이 대 훈	한 강 중
	2	김 종 운	안 면 중
	3	임 춘 재	성 남 동 중
	3	박 범 준	한 성 중
라이트급	1	김 정 현	안 면 중
	2	정 하 준	배 명 중
	3	박 순 찬	신 흥 중
	3	이 재 길	청 주 남 중
라 이 트 웰 터 급	1	방 영 인	배 명 중
	2	송 환 기	경 수 중
	3	고 상 진	성 남 동 중
	3	김 태 호	한 성 중
웰 터 급	1	임 성 수	한 영 중
	2	김 은 국	오 류 중
	3	김 철 주	잠 실 중
	3	김 성 주	동 대 문 중
라 이 트 미 들 급	1	고 창 현	선 덕 중
	2	송 창 훈	표 선 중
	3	박 달 우	동 성 중
	3	이 은 재	공 릉 중
미 들 급	1	천 현 욱	동 성 중
	2	권 순 정	경 수 중
	3	김 규 완	영 천 중
	3	방 원 준	풍 생 중
라 이 트 헤 비 급	1	김 광 수	성 남 동 중
	2	양 우 성	쌍 문 중
	3	김 규 상	구 의 중
	3		
헤 비 급	1	이 범 석	동 성 중
	2	김 재 호	수 유 중
	3	최 재 영	신 천 중
	3		

●고 등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성 의 천	오 현 고
	2	우 호 진	광 영 고
	3	노 철 호	한 성 고
	3	서 성 교	동 성 고
플라이급	1	김 용 만	영 천 고
	2	차 용 석	성 동 상 고
	3	박 정 화	서 울 체 고
	3	장 주 명	항 도 실 고
밴 텀 급	1	최 근 철	풍 생 고
	2	진 재 성	〃
	3	최 만 규	남 한 고
	3	정 순 호	부 산 체 고
페 더 급	1	김 명 식	동 성 고
	2	안 정 철	경 남 체 고
	3	박 종 철	완 산 고
	3	이 창 호	동 성 고
라이트급	1	오 광 석	성 동 상 고
	2	조 기 원	영 천 고
	3	임 태 규	광 성 고
	3	심 상 일	한 성 고
웰 터 급	1	김 제 경	울 산 공 고
	2	김 정 규	부 산 체 고
	3	이 병 하	서 울 체 고
	3	이 황 재	송 곡 고
미 들 급	1	임 영 희	광 성 고
	2	한 정 주	형 석 고
	3	김 재 수	문 산 고
	3	이 성 훈	포 항 수 산 고
헤 비 급	1	한 삼 석	협 성 고
	2	전 성 호	송 도 상 고
	3	오 수 원	대 원 고
	3	최 일 규	동 의 공 고

●대 학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최 학 민	인 천 전 문 대
	2	최 병 환	유 도 대
	3		
	3		
플라이급	1	최 현 열	유 도 대
	2	문 순 권	경 남 대
	3	장 재 훈	유 도 대
	3		
밴 텀 급	1	윤 장 원	인 천 전 문 대
	2	전 상 대	〃
	3	홍 용 식	유 도 대
	3	박 형 문	〃
페 더 급	1	임 채 수	〃
	2	신 창 화	경 희 대
	3	정 근 표	〃
	3	이 운 우	인 천 전 문 대
라이트급	1	이 영 대	통 영 수 산 전 문 대
	2	정 현 도	경 남 대
	3	박 관 호	인 천 전 문 대
	3	이 덕 재	〃
웰 터 급	1	신 현 성	〃
	2	여 동 근	〃
	3	고 방 선	〃
	3		
미 들 급	1		
	2		
	3		
	3		
헤 비 급	1		
	2		
	3		
	3		

●일 반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채 준 철	사 천 체 육 관
	2	김 현 국	금 나 무 체 육 관
	3		
	3		
플라이급	1	오 인 수	인천시태권도협회
	2	김 은 기	천안송무체육관
	3	박 정 조	흑 룡 체 육 관
	3	이 환 선	서 울 체 육 관
밴 텀 급	1	김 영 덕	한 국 체 육 관
	2	유 서 춘	중 곡 체 육 관
	3	최 덕 규	경기도태권도협회
	3	김 동 규	〃
페 더 급	1	원 종 섭	주 공 체 육 관
	2	이 정	청 학 체 육 관
	3	강 인 구	소 림 체 육 관
	3	박 성 원	의정부경기체육관
라이트급	1	김 승 재	장 흥 체 육 관
	2	김 동 규	한 국 체 육 관
	3	조 성 재	월 포 체 육 관
	3	조 주 연	인 하 체 육 관
웰 터 급	1	김 정 웅	의정부경기체육관
	2	박 태 규	아 주 체 육 관
	3	김 대 근	인 하 체 육 관
	3	신 동 우	엘 리 트 체 육 관
미 들 급	1		
	2		
	3		
	3		
헤 비 급	1		
	2		
	3		
	3		

제13회 연맹회장기 타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11월 1일, 국기원

박석천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 경기이사

태권도 꿈나무들의 87년을 마무리짓는 전국 규모의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태권도 대회인 연맹 회장기 타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가 을씨년스러운 늦가을 날씨 속에서도 11월1일 국기원에서 어린꼬마들의 열띤 응원과 기합 속에서 오전 9시부터 전년도 우승팀인 청주 주성국민학교팀을 비롯해 막강한 기량과 실력을 갖춘 서울 12개 학교팀과 지방 10개 학교팀에서 핀급 15명, 플라이급 18명, 밴텀급 23명, 페더급 23명, 라이트급 20명, 웰터급 21명, 미들급 17명, 헤비급 17명의 선수 어린이가 참가하여 명실공히 87년도 최고의 태권 어린이가 되고져 높은 기량과 기술을 겨루었다.

개회식에서 연맹의 서영준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미 우리 겨레의 혼과 기백이 서린 태권도는 전세계로 확산되어 세계인의 스포츠로 성장하였고 88서울 올림픽대회에서는 시범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리만큼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었읍니다. 지난달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종주국으로써 체면을 세웠으나 여자부에서는 어렵게 우승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도 있어 이번 세계대회를 교훈삼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새로운 각오로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태권도경기를 활성화시켜 세계 대회 아니 앞으로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올림픽 경기에서 명실상부한 종주국의 국위를 키워야겠다고 하였다.

경기는 각 체급 선수들의 기량이 날로 높아져 전년도 보다 더욱 향상된 막상막하의 실력을 발휘 승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심판진들의 정확하고 확실한 판정으로 단 한건의 판정시비 없이 경기를 이끌고 이번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단체성적

1위 서울 광희국민학교
2위 청주주성 국민학교
3위 서울 한강 국민학교
4위(장려)서울 옥수 국민학교
5위(감투)서울 개포 국민학교

개인 입상자

최우수선수 서울광희국민학교 양현호
인기상 청주주성국민학교 이완규
미기상 성남 상원국민학교 안태영

각체급별 입상자

순위 / 체급	1위	2위	3위
핀 급	이영환(광희)	박형균(주성)	김종연(인천일신)김명렬(경기광릉)
플라이	홍창기(개포)	박정석(한강)	박광용(마천)조성일(광희)
밴텀급	양현호(광희)	김천규(한강)	이계승(옥수)조형규(경기산대)
페더급	안태영(상원)	조성익(광희)	홍희익(주성)김현주(옥수)
라이트	정창호(한강)	최정훈(주성)	박정우(광희)정재호(개포)
웰터급	조진호(옥수)	이완규(주성)	김정현(마천)정영민(광희)
미들급	이동주(상원)	홍경석(면목)	신경진(신우)김동기(한강)
헤비급	이진우(주성)	김영호(한강)	이순용(학동)김동준(면목)

선수들의 기량이 날로 높아져 승부를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제10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

최인범 / 대학연맹 전무이사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희대 선수들이 최영렬 지도교수 및 남자부 선수들과 함께 본 대회를 기념하고 있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에서는 1987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국기원에서 제10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는 8체급 토너멘트식 개인전으로 진행하였으며, 메달수에 의해 우승팀이 결정되었다.

본 대회는 17개교에서 201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남자부는 A조B조로 나누어서 A조는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선수로, B조는 입상경력이 없는 선수로 참가제한을 두었으며, 이 대회는 대학선수로서의 등용문이요, 학교의 명예를 짊어진 격전지이기도 하였다. 금년 대회는 각대학의 사정상 대회기간이 변경됨에따라 상당수의 선수들이 대회에 불참하게 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남자부 B조의 핀, 플라이, 웰터, 미들, 헤비급에서는 참가선수가 적어서 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의 경기만을 치루게 되었다.

14일 오후 2시의 개회식에서는 최인범 전무이사의 개회선언을 필두로 김한주 회장의 대회사 및 대한태

권도협회장을 대신한 황춘성 전무이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다수의 임원들과 관중들이 참석하여 이번 대회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본 대회를 빛나게 하였다.

첫날 경기에서 A조의 경기번호 55번 밴텀급의 서정현(경기대)선수는 전 국가대표인 최천(경희대)선수를 돌려차기 기술에 의한 1득점차이로 승리하여 준결승까지 진출하였고, 경기번호 106번의 지용석(청주대)선수는 이희영(계명대)선수를 뒤돌려차기 기술로 얼굴을 강타하여 1분42초만에 K.O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하였다. 이틀째 경기에서는 각 체급마다 치열한 공방전의 연속이었다.

각 학교에서 매달권내에 진입한 선수들은 동아대학교 7명, 경상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각각5명씩 이어서 종합우승을 점칠 수 없었다.

그러나 플라이급의 이관우(경상대)선수에 이어 페더급에서 김용석(경상대) 선수가 우승하자 경상대학교 쪽으로 종합우승의 청신호가 알려졌으며 미들급 결승전까지도 경상대가(금2, 은1, 동2) 경희대(금2, 동3)와 동아대(금1, 은2, 동4)를 앞질러 신예 경상대학교의 종합우승이 예견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는 헤비급 결승전에서 동아대학교의 김재욱 선수와 한국체육대학의 이건원 선수의 경기로써 모든 관계자들의 시선을 한곳에 모으는 한판 승부였다. 김재욱 선수가 이길 경우에는 동아대학교가 금2, 은2, 동4으로 종합우승이 확정되며, 이건원 선수가 이길 경우에는 경상대학교 종합우승, 동아대학교가 3위가 될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재욱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여 종합우승은 동아대학교로 확정되었다.

여대부에서는 경희대학교가 금5으로 종합우승, 2위에는 성신여대(금1, 은3, 동4), 3위에는 유도대(은2, 동1)가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 선수상은 가장 훌륭한 기량을 보여준 동아대학교의 웰터급 우승자인 김용수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우수상에선 경기대학교의 임창섭 선수와 경희대학교의 박선영 선수가 차지하였다.

금번대회를 통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서울에 위치한 대학이 아닌 지방대학으로 돌아감에 따라 대학선수들의 실력이 평준화 되어가고 있어 태권도 명문대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은 태권도발전에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입상자 명단

● 남자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신 재 현	청 주 대
	2	임 창 섭	경 기 대
	3	감 철 우	경 희 대
	3	김 영 주	동 아 대
플라이급	1	이 관 우	경 상 대
	2	박 진 영	동 아 대
	3	이 창 석	청 주 대
	3	최 만 규	경 희 대
밴 텀 급	1	김 태 형	경 희 대
	2	서 정 헌	경 기 대
	3	정 병 철	인 천 전 문 대
	3	지 용 석	청 주 대
페 더 급	1	김 용 석	경 상 대
	2	함 준	한 국 체 대
	3	최 효 석	성 균 관 대
	3	윤 건 성	경 희 대
라이트급	1	김 용 종	한 국 체 대
	2	조 준 용	한 국 체 대
	3	김 상 곤	경 상 대
	3	조 성 철	유 도 대
웰 터 급	1	김 용 수	동 아 대
	2	박 종 상	경 상 대
	3	최 기 택	동 아 대
	3	라 장 균	계 명 대
미 들 급	1	윤 순 철	경 희 대
	2	이 화 상	동 아 대
	3	이 경 구	동 아 대
	3	신 용 욱	경 상 대
헤 비 급	1	김 재 욱	동 아 대
	2	이 건 원	한 국 체 대
	3	김 정 태	경 기 대
	3	박 종 일	동 아 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팀들이 좋은 성적으로 입상,
대학 태권도의 평준화시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 여자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플라이급	1	이 영	경 희 대
	2	안 희 정	유 도 대
	3	이 은 정	인 천 전 문 대
밴 텀 급	1	박 선 영	경 희 대
	2	배 은 정	성 신 여 대
	3	박 연 실	성 신 여 대
페 더 급	1	페 더 급	김 소 영
	2	이 영 희	유 도 대
	3	모 미 라	성 신 여 대
	3	최 형 우	상 명 여 대
라이트급	1	이 은 영	경 희 대
	2	김 유 숙	성 신 여 대
	3	석 소 정	유 도 대
	3	육 경 란	상 명 여 대
웰 터 급	1	김 지 숙	경 희 대
	2	고 재 경	성 신 여 대
	3	나 진 아	인 천 전 문 대
헤 비 급	1	김 현 희	경 희 대
	2	최 지 숙	인 천 전 문 대
	3	손 지 희	성 신 여 대
	3	정 영 숙	성 신 여 대

● 개인전적

최우수 선수상 김용수(동아대)
우 수 상 임창섭(경기대)
박선영(경희대) 여자부
감 투 상 함 준(한체대)
배은정(성신여대) 여자부
지 도 상 김우규(동아대감독)
전정우(경희대코치)
강진홍(경상대감독)

● 단체전적

남 자 부 1위 동아대(금2, 은2, 동4)
2위 경상대(금2, 은1, 동2)
3위 경희대(금2, 동3)
여 자 부 1위 경희대(금5)
2위 성신여대(금1, 은3, 동4)
3위 유도대(은2, 동1)

제14회 동남아시안게임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9. 16~19, 인도네시아

박 현 섭
대한태권도협회
국제분과위원장

1. 대회개요

동남아시안게임(The South East Asian Peninsula Games ; S.E.A.P Games)은 동남아 각국의 올림픽 참가 준비와 기술향상, 각국간의 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1959년에 시작된 이래 올해로 14회를 맞이하게 된 대회이다.

매2년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중간해에 개최되는 동남아시안게임의 가입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지아, 버마, 부르네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이다.

경기종목으로는 29개의 공식종목이 있으며 투기종목으로 판짝실랏(Pen Cak Silat ; 인니고유무술)과 가라데가 있고 태권도는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5개국이 출전한 본대회 입장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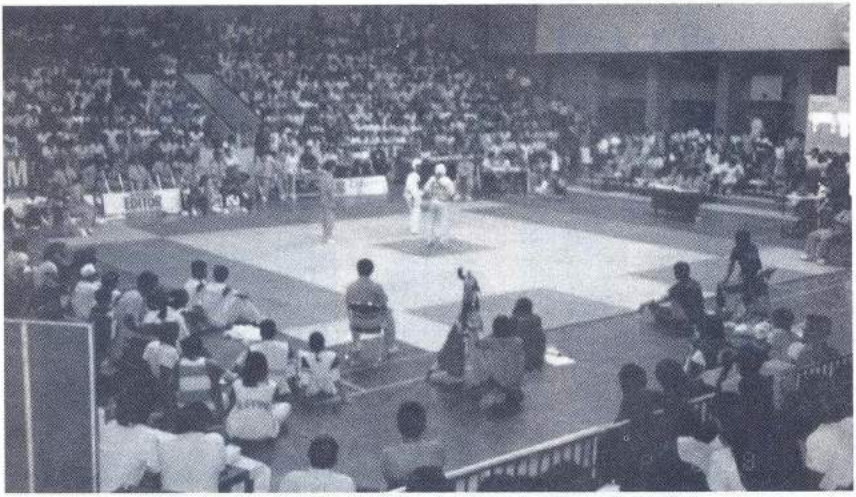
2. 태권도 경기

동남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는 9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동안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Grogol Youth Center Hall에서 열렸다.

태권도경기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 싱가폴, 필리핀 등 5개국에서 남자 39명, 여자 20명 등 총 59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경기가 펼쳐진 기간동안 태권도 경기장은 연일 관중이 몰려들어 태권도의 열기를 실감케 했다. 또한 TV와 라디오 등, 메스컴에서도 TV중계방송은 물론 각종 신문에 기사가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선수들의 기량은 높이 평가할 정도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는데 주최국인 인도네시아가 눈에 뜨이게 우세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말레이지아가 2위, 필리핀이 3위, 태국이 4위, 싱가폴이 5위를 차지했다.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난 가운데 주최국 인도네시아가 종합 1 위를 차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100여개의 도장이 있으며 수도인 자카르타에만 68개 도장이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인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권도협회장은 우리나라의 대사로도 재작한 바 있는 청렴한 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권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하리라고 본다

3. 국제심판 보수교육 실시

이번 대회의 국제심판으로는 6개국에서 총 10명이 초청되었다. 본인은 한국인으로서 본대회 국제심판위원장자격으로 참가했으며 지난해 아시아경기대회 때 인도네시아 태권도 대표팀 코치로 출전한 바 있는 허영씨도 참가했다. 그밖에 뉴질랜드 1명, 타이페이 2명, 홍콩1명, 말레이지아 2명, 싱가폴 2명의 국제심판이 참가했다.

본인은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국가올림픽위원회 대강당에서 이들 국제심판 10명에게 세계태권도연맹(W.T.F)규정에 의한 심판규정 및 심판실기연습을 골자로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국제심판은 공정한 심판에 앞서 자국의 이익에 좌우되어 공정성을 잃는 경우가 많아 소청건수가 많았으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4. 국제심판보수교육의 강화 요청돼

동남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동남아시안게임에 태권도가 공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되어 경기를 치루었으나 대회 운영 절차면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아시아경기대회와 비슷했다.

선수들의 기량면에 있어서도 세계적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태권도선수들이 종주국 한국선수들과의 각종 경기시에 보여준 열세한 기량은 심리적 위축감 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해 동남아시아인들끼리의 대결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심판의 공정성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심판자질의 향상을 위한 국제심판보수교육의 강화 및 자체교육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제11회 연세대학교총장기쟁탈 전국남녀고교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호철 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 부위원장

대학에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대회인 제11회 연세대학교 총장기쟁탈 전국 남녀고교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동안 50개교에서 500여명의 남녀 고교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교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회는 연세교육이념의 실천과 태권도인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75년도에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어 11회 대회를 맞이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규모대회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고등학교 태권도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우수선수 발굴이라는 면에서 많은 공헌을 하여 왔다.

올해 11회 대회에서는 그동안 번번히 거론되어온 다음의 문제의 시정에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운영해 왔다고 본다.

첫째, 주최측의 진행 미숙의 문제로 대회 날짜, 선정, 공문발송, 접수, 대진표편성, 출전선수 확인, 대회진행, 시상에 이르기까지 대회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소화시켜 대회를 진행하는데 주력하였다.

둘째, 대진 추첨과 계체의 공정성문제로 대표자회의시 추첨결과를 기록 복사하여 참석한 모든 대표자에게 배부하였다. 계체문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계체위원 및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계체를 실시하였다.

세째, 심판 판정에 있어서는 기존 대회에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심판구성이 조별로 고정시행되어 왔던 점에 문제 발생의 한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심판 조편성 추첨제'를 실시하였다. 추첨 방법은 심판 성함이 표시된 아크릴 명패를 추첨함에 넣은 다음 미리 준비된 게시판에 조별 순서대로 하나씩 부착하였는데 추첨 시간은 매일 경기시작 전과 점심때를 택해 추첨, 편성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시정은 안영택심판위원장을 비롯한 태권도협회 임원여러분의 도움이 있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다. 대회가 끝난 후 태권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추죄측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고등학교 태권도 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우수선수 발굴에 기여해 온 연세대총장기 대회의 한 장면.

입상자 명단

●남고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권 태 호	동 성 고
	2	김 성 일	인 천 체 고
	3	박 재 석	송 림 고
	3	임 재 경	숭 실 고
플라이급	1	권 영 수	성 동 고
	2	박 준 권	광 영 고
	3	정 진 태	동 성 고
	3	박 재 성	부 산 체 고
밴 텀 급	1	서 대 원	동 성 고
	2	윤 병 윤	숭 실 고
	3	이 현 재	성 동 고
	3	김 준 기	성 동 고
페 더 급	1	이 헌 상	한 성 고
	2	김 병 갑	성 동 고
	3	최 선 호	송 곡 고
	3	권 대 석	광 영 고
라이트급	1	최 종 국	리 라 공 고
	2	오 광 석	성 동 상 고
	3	윤 정 욱	동 성 고
	3	박 세 홍	동 성 고
웰 터 급	1	조 광 천	동 성 고
	2	김 병 규	인 덕 공 고
	3	김 혜 상	인 덕 공 고
	3	지 창 호	풍 생 고
미 들 급	1	공 두 환	성 동 고
	2	김 병 기	성 동 상 고
	3	이 홍 수	한 성 고
	3	공 한 석	경 상 공 고
헤 비 급	1	윤 용 진	항 도 실 고
	2	김 홍 재	인 덕 공 고
	3	홍 윤 기	리 라 공 고
	3	이 성 호	오 성 고

●여고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이 화 진	청 산 여 상
	2	장 이 숙	청 산 여 상
	3	홍 자	문 성 여 상
	3	이 남 숙	문 성 여 상
라이트급	1	강 경 숙	청 산 여 상
	2	김 순 정	영 북 종 고
	3	김 성 숙	인 천 체 고
	3	추 난 률	청 산 여 상
밴 텀 급	1	박 현 순	영 북 종 고
	2	박 동 선	인 천 체 고
	3	강 희 숙	청 산 여 상
	3	손 미 경	청 산 여 상
페 더 급	1	박 애 란	인 천 체 고
	2	이 현 화	청 산 여 상
	3	이 은 미	배 성 여 상
	3	정 은 욱	인 천 체 고
라이트급	1	박 진 경	인 천 체 고
	2	조 윤 정	배 영 여 고
	3	이 미 라	배 성 여 상
	3	안 경 숙	인 천 체 고
웰 터 급	1	박 혜 영	인 천 체 고
	2	박 경 애	청 산 여 상
	3	정 은 희	배 영 여 고
	3	신 미 숙	배 성 여 상
미 들 급	1	양 인 덕	문 성 여 상
	2	김 미 화	인 천 체 고
	3	김 용 순	청 산 여 상
	3	윤 석 화	석 관 여 고
헤 비 급	1	백 영 미	인 천 체 고
	2	고 현 점	청 산 여 상
	3	이 성 미	문 성 여 상
	3	김 지 연	배 성 여 상

제24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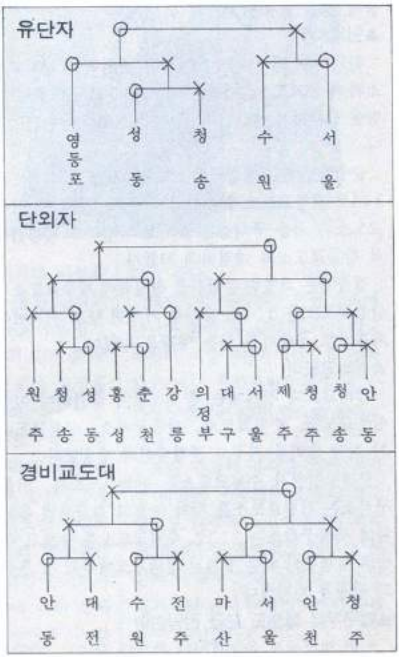
'87. 10. 28 법무부 연수원 연무관

김정대/ 대한태권도 협회 심판분과 부위원장

10월 28일 법무교정연수원 연무관에서 법무부주최로 개최된 제24회 전국교도관 무도대회에는 전국에서 유단자 5개팀 25명 단외자 13개팀 91명 경비교도대 8개팀 40명등 26개팀에서 156명이 참가해 단체전으로 경기가 거행되었다. 이 대회는 교도, 교사들의 경비업무수행을 위한 무술 단련에 목적이 있는바 해마다 거행되는 이 대회를 통해 상호 기량을 겨루어 실력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3개부로 나눠 거행된 각부대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별 대진표〉



우승자에게 시상하는 본회 엄운규 부회장

▲유단자부 : 1회전 성동 구치소대 청송 교도소 대전에서는 2 : 1로 성동팀승리, 2회전에 진출하여 영등포 구치소와 대전, 영등포 구치소가 2 : 1로 승리하여 결승에 진출하였고, 서울 구치소와 수원교도소 대전에서는 서울 구치소가 2 : 0으로 승리하여 결승에 진출, 영등포구치소와 대결케 되었다. 결과는 2 : 1로 영등포 구치소팀이 승리, 3년만에 우승기를 품에 안는 영광을 만끽했다.

▲단외자부

단외자부 경기에는 13개팀이 출전하여 강릉교도소와 성동교도소, 서울 구치소,제주교도소 등이 기량을 발휘하여 예선전과 8강전을 거쳐 4강에 진입했다.

준결승전에서 성동구치소와 강릉교도소의 경기는 3 : 1로 강릉교도소가 가볍게 승기를 거두었고, 제주교도소는 서울 구치소를 3 : 1로 제압하고 결승전에서 강릉교도소와 대결하게 되었다.

결승전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끝에 제주교도소가 강릉교도소를 3 : 1로 승리를 거두어 대회 참가이래 처음으로 우승기를 안는 영광을 누렸다.

▲경비교도대

경비교도대 경기에는 총 8개팀이 출전하여 이중 안동교도소, 수원교도소, 서울구치소, 인천교도소가 각각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수원교도소는 안동교도소를, 서울구치소는 인천교도소를 각각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는데 서울구치소는 2 : 1로 수원교도소를 누르고 우승해 금년부터 처음 실시된 경비교도대부의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법무부에 태권도 보급 전망밝아

이번 대회에서 총26개팀이 참가해 작년도 17개팀 참가보다 양적인 면에서의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각팀, 각선수들의 기량이 월등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줘 법무부 태권도 보급에 매우 밝은 전망을 보여주었다.

더욱 고무적인 면은 각 교도소, 구치소단위로 소장을 비롯한 간부진이 자리를 함께하여 치어리더를 따라 조직적이며 질서정연하게 열광적인 응원전을 펼쳐 대회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응원상이 책정되어 영등포구치소팀이 응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유단자부에서 영등포구치소팀이, 단외자부는 제주교도소팀, 경비교도대는 서울구치소팀 등이 각각 우승기를 차지해 태권도 저변확대를 실감케 했다.

개인상인 최우수선수상에는 전 참가선수중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인 제주교도소 소속 교도 공철국선수에게 돌아갔다. 역대 수상팀을 본 결과 유도는 1949년 1회대회부터 채택 23회까지 이어왔고 검도는 1955년도 제2회부터 지금까지, 태권도는 1978년 제16회부터 종목으로 채택되어 9회를 거듭하는 동안 유단자부는 서울 구치소팀 5회 우승, 1회 준우승, 부산팀 1회, 성동팀 1회, 영등포구치소팀 2회씩 각각 우승을 차지했고 단외자부는 서울구치소팀 3회, 청송 2교도소팀 2회, 성동구치소팀 2회, 부산교도소팀 1회1, 제주교도소팀 1회 우승을 각각 차지했고 이외에도 안양, 수원, 순천, 인천, 의정부, 홍성교도소등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역대 전적은 다음과 같다.

●역대 대회전적

회수	연도	유단자			단외자			경비교도대	
		우승	준우승		우승	준우승		우승	준우승
16회	1978	서울	안양		부산	인천			
17회	1979	서울	안양		서울의정부				
18회	1980	서울	영등포(교)		서울	안양			
19회	1981	부산	성동		서울의정부				
20회	1982	서울	수원		청송2	홍성			
21회	1983	서울	순천		청송2	영등포(구)			
22회	1984	영등포(구)	서울		성동	서울			
23회	1985	성동	영등포(구)		성동	서울			
24회	1987	영등포(구)	서울		제주	강릉		서울	수원

앞으로도 각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미루어 더욱 발전된 대회 내용을 볼 수 있으리라 본다.

김운용회장 여성태권도인과의 대화

-여성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1987년 11월 3일 12시, 가을이 저물어 가는 한가로운 정오, 따사로운 햇볕이 그윽하게 비치는 뉴월드호텔 3층 누가룸에서 대한태권도협회 김운용회장, 엄운규부회장, 강원식 연수원 부원장과 여성태권도인의 모임인 「태권장자회」 회원 14명이 자리를 함께해 여성태권도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마침 전국체전에 태권도 재미교포팀을 인솔하고 내한한 김영숙사범, 오명화사범이 동석하여 명실공히 국내외 여자 사범들이 한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김운용총재에게 여성태권도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김운용회장은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

이는 '88서울올림픽대회에 남녀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여자 태권도 경기에 각 대륙의 최강국들의 경기를 앞두고 있음은 물론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1회세계여자태권도대회 창설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여성 태권도 내일에 고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는 뜻깊은 모임이었다고 본다.

여성태권도 발전을 위한 구심점 마련

김운용회장과의 오찬에서 여성 태권도사범들은 우리 태권도가 국내외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태권도에 크나큰 장이 열리고 있어 이미 외국에서는 여성 태권도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태권도의 종주국이라 일컬으면서도 여성 태권도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 사항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운용회장은 당연하고 시급한 문제로 받아 들여 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산하에 여성분과 위원회를 두어 여성태권도발전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재 여성사범들이 서울에서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태권낭자회)이 있을 뿐 전체 여성태권도인들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적인 단체가 없는 점을 들어 여성 태권도인의 모임을 체계화한 모임 창설을 주도해 줄 것을 당부, 김운용회장은 태권낭자회가 친목단체에서 전체여성태권도인이 참가하는 체계적인 여성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여성 태권도 발전에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다고 태권낭자회를 격려했다.

또한 여성태권도인들은 각종대회 때나 승품단심사 시에 여성 심판원이나 사범들이 정담을 나누며 대화를 통해 태권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 대해 현재 국기원에는 비어 있는 방이 한곳도 없어 어려우나 현재 국기원보수공사

를 추진하고 있어 보수공사시에 여성태권도인을 위한 방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외원정경기시에 여성 트레이너 기용

태권도 선수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여성 태권도사범은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 모든 임원이 남자로 구성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경기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여자선수 출신의 트레이너가 배정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김운용 회장은 해외 원정경기시에는 트레이너만큼이라도 여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감을 표시했다. 덧붙여 국기원 해외원정 시범단 구성시에 여자 시범단원이 한명도 없다고 지적하며 여자태권도인들도 시범단에 들어오면 보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여성 태권도인들이 종주국여성 태권도인으로서 기량과 품위를 펼쳐보일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했다.

국내 여성 태권도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체전에 여자부 창설되어야

여성 태권도인들은 국내 여성태권도의 저변확대를 꾀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상 처음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창설되어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국위를 선양한 바 있으나 있으나 세계 여성 태권도의 급속한 발전과 활성화로 종주국여성태권도를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통된 우려를 표명, 우선 전국적으로 국내 여성태권도의 저변확대로 두터운 선수층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체전에 여자부 경기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운용 회장도 전국체전 여자부경기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현재 서울, 인천경기를 중심으로 발전된 태권도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여성사범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여성 태권도의 발전을 보는 것 같아 기뻐

한편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여성태권도를 활성화하는데 공이 큰 김영숙 사범은 이 자리에 동석, 미국태권도연맹의 여성분과위원회의 활약을 들려주며 국내에서도 여성분과를 신설해 여성태권도 발전을 위한 구상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태권도관계기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연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돌이키며 「제가 활동할 때만 해도 여성 태권도인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이처럼 단합된 모습으로 회장님을 뵙고 여성태권도 발전을 위한 소신을 피력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소견을 말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국내 여성태권도의 많은 발전을 보는 듯하여 기쁘기 그지 없다고 했다.

김운용회장은 이젠 여성 지도자들의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었다며 남자 태권도와 대등한 입장에서 태권도 발전의 주축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지금까지 여성 태권도가 장족의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 태권도사범과 같은 열정을 가진 태권도인들에 의해서 였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여성태권도인들은 오찬을 마치며 대내외적으로 항상 바쁘신 중에서도 여성태권도인들을 불러준데 대해 감사함을 전하며 그동안 태권낭자회에서 발간한 계간지 1호(목련호), 2호(장미호), 3호(국화호)를 김운용회장께 드렸다. 이를 받아 일일이 눈여겨 보신 김운용회장은 태권낭자회에 금일봉을 내리며 격려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에
여성분과위원회 신설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은 지난 12월 7일(월) 오후 6시 30분에 뉴월드호텔에서 국내 3만여 여자 태권도 유단자의 구심 역할을 담당할 여성 고단자 및 유단자들을 초치하여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에 여성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자 태권도 경기의 활성화 추세에 관련하여 올림픽대회, FISU 대학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국제태권도대회에서 정착되고 있는 여자 태권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1988년도부터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에 신설키로 하고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을 내정했다.

여성분과위원회 위원(내정)

▲위 원 장 : 장정남(5단)
▲부위원장 : 서춘희(5단)
최종숙(5단)
▲위 원 : 안연순
박정옥
양인옥
양일해
박필순
김영수
정효심

제 7기 지도자 2급 연수 과정을 마치고

홍성수
보성체육관

입소식을 하던 날은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태권도 지도자들의 최고 교육과정인 제7기 태권도경기지도자 2급과정을 연수하기 위해 국기원 연수원을 찾았다.

각기 바쁜생활 중에서도 전국에서 150명이란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이제까지 태권도지도자 교육과정과 지도경험을 되돌아보며 보다 과학적인 이론과 고급기술을 접하고 익히기 위해 입교식과 함께 교육준비에 들어갔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모든 수강생들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얼굴을 익힌 가운데 오랜 기간 강의나 수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몇시간씩 강의를 받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차차 교육분위기에 익숙해지면서 국내유수의 체육강사진에 의한 다양한 체육학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교육자로서 알아야할 새로운 지식등을 쌓을 수 있는 보람되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총 128시간동안에 논문지도, 운동생리학, 체력측정 및 평가, 체육심리학, 체육사회학개론, 생체역학기초, 기술지도, 트레이닝원리,, 스트레칭체조, 스포츠마사지, 수기법 등 체육학 관련 분야와 교양과목으로 국민윤리, 국사, 영어 및 특강 등의 강의가 있었다.

꽉 짜여진 일정속에 지도자교육을 받으면서 일선 사범들은 특히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지도자상을 가꾸어 지도자로서 자질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도장이나 체육관이 개인적인 도장관리 및 교육체계로부터 점차 교육기관으로서 체계적인 경영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대사회에서 태권도가 정신교육적 측면과 체력증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교육적역량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태권도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진다면 태권도 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태권도의 발전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도자교육의 짧은 시간 속에서 강의 중의 어떤 것은 교육강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고 교재지도 위주의 강의에 다소 아쉬움도 있었지만 지도자들에게 지식의 재충전이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본다.

이번 교육기간 동안 수강생들은 조편성을 통하여 교육방과 후에 매일 한시간씩 보충토론형식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업이 교육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던 것은 잊지못할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한교육기간 중 수강생들에게 보내온 지방 지도자들의 격려축전을 받아보는 이들의 밝은 얼굴과 교육중에 결혼식을 올린 수강생에게 보내는 뜨거운 축하의 훈훈한 온정은 제7기 지도자교육의 잊지못할 추억이라고 본다.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연수원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극복해나가면서 과학적인 훈련방법과 기술의 개발로 좀 더 알찬 교육이 되길 바라면서 3주 교육기간동안 엄격한 규율속에서도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우리 제7기 지도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무사히 수료할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관련 임직원들과 강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제7기 지도자수강생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우정을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유럽순회 태권도시범-

스위스·오스트리아·스페인 시범을 마치고

구정회 / 성인시범단원

미래의 태권도 발전을 위한 비중이 큰 시범길에 올라

9월28일 오후 8시55분에 출발한 대한항공(KE 901)기는 멀고도 먼 비행항로를 따라 밤새껏 쉬지않고 한없이 솜뭉치같은 구름위를 날랐다. 기내에서 20시간 동안의 안락한 여행의 기름을 만끽 하노니 잠시 지난 생각이 떠올랐다.

3년전 우리 시범단이 유럽 6개국 순회시범때 멋지고 박진감 넘치는 시범으로 가라데와 쿵후 및 차력, 각종 무술인과 유럽인들을 매료시킨일들이 새삼 상기되었다.

그리고 '86아시안게임 홍보 및 한일수교 20주년 기념행사, 또 동남아시아 7개국 순회시범때 「시메랑」 지역의 시범은 2만5천여명의 관중이 모인 대성황을 이루었고 인도의 라지브 간디 수상의 태권도에 대한 격찬, 그무더운 오지의 아프리카 6개국 시범등은 우리 한국의 무도 스포츠를 세계화하는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번 순회 시범은 그때완 상황이 좀달랐다. '86아시안게임때에 공식 시범을 보신 IOC 사마란치위원장이 로잔의 IOC본부에서 제6차 올림픽 주간행사(6th Olympic week)에 초청과 세계 태권도연맹(WTF)과 대립적인 국제연맹(ITF)이 본부를 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및 제8회 세계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시범은 미래를 위한 우리 종주국으로서 대단히 비중이 큰 시범이었다.

스위스 로잔의 IOC본부에서 태권도 시범을 가진 시범단.

차원높고 완전한 시범으로 훌륭한 스포츠로 태권도 인식

이에 홍종수 국기원부원장님과 김순배 기술심의회 의장님 및 여러 임원들께서는 차원높고 완벽한 시범을 기하라고 강조했고 1차~3차에 걸친 훈련기간을 두어 무도 스포츠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여주셨다. 시범인원 역시 보강되어 예전보다 대규모인 29명의 시범단원은 조상호 체육부장관님과 김운용세계연맹총재님을 모시고 '88서울올림픽 홍보와 태권도가 보다더 훌륭한 스포츠라는 것을 재차 인식시키겠다는 다짐하에 파리 드골 공항을 거쳐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하니 김명수 사범님과 협회장인 RENE F BUNDELI씨와 CHRISTINE양 및 여러 임원들의 영접과 함께 기차로 로잔에 도착하니 29일 오전 10시30분이었다. Hotel. Alpha Palmiers에 여장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뒤 로잔시와 구IOC본부 사무실을 견학했는데 이곳은 전형적인 유럽식 건물로서 현재는 올림픽전시관 및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1층 전면은 '88서울올림픽에 관한 모든 것을 전시중에 있었다. 세계 스포츠간부들과 여행자는 꼭 둘러 보고 있다고 하는 스위스인 안내자는 말했다. Morning Calm of Korea(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문호와 올림픽포스터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지난 역사와 미래를 향한 전진을 알리는 자료나 상품들은 우리들의 애국적인 심정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들었다.

국영TV방송에 내일 있을 태권도시범이 소개

10월30일 오전 7시 시차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가벼운 달리기로 몸을 풀었고, 오전 10시 이곳 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해준 버스편으로 GRUYERES성 관광에 나섰다. 끝없이 넓은 평야와 정갈한 산길을 따라 펼쳐지는 넓은 바다 그리고 짜임새있게 이어지는 포도밭과 저멀리보이는 육중한 거봉, 알프스산맥은 우리 시범단들의 피로와 긴장감을 충분히 해소 시킬 수 있었다. 이 아름다운 산과 들을 스위스인들은 몇백년전부터 갈고 닦아온 것이라고 옆에 있던 크리스티나양이 말했다. 또 그녀는 자랑스로운 표정으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위스 여러군데의 산들은 굴을 파놓고 여기에 전쟁물자및 2년간 버틸 수 있는 비상 식량을 저장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은 50세까지 예비역으로 각자의 집에다 총과 탄환을 갖추고 있으며 비상시 24시간이면 전국이 무장화된다고 설명했다.

1291년부터 현재까지 고전 그대로 지키고 있는 GRUYERES성 마을에서 유럽식 점심을 마치고 오후 5시-7시까지 시범장소인 Vallee de la Jeunese 체육관에서 예행연습을 하고 뒤이어 오후8시에 펼쳐

지는 역시 올림픽 6주 행사기념으로 행하여지는 농구게임 최강전에서 이곳 국영 TV방송을 통해 내일 있을 우리 시범과 시범요원을 소개했다.

우리는 힘, 기술, 정신을 멋지게 보여주어 IOC위원들로부터 찬사

10월1일 오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오후8시 시범장소에는 우리의 태극기와 스위스국기, 올림픽 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었고 로얄박스엔 IOC위원장과 김운용세계연맹 총재님 그리고 IOC분과위원 20여명 및 사무국직원과 관계인사 50여명, 관중약 1,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범이 시작됐다.

시범은 짧은 시간에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전체종목을 다 이용하여 복식으로 행하였으며 첫번째로 김충석사범의 3m에 달하는 고축과 박병분 사범의 높이 2m의 옆차고 뒷차기가 보기좋게 두동강 씩 쪼개졌다. 시작이 좋았다. 두번째로 본인의 공중 4방격파와 최광근 사범의 박력넘치는 일렬격파가 끝나자 장내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영어해설을 맡은 조희석국제부장은 「불의에 적의 습격을 단계적으로 공격하며 한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공중 4곳의 격파는 오랜 숙달속에 이루어지는 고도한 기술」이라고 시범동작의 뜻을 설명했다.

세번째 순서는 장명삼의 장애물옆차기와 3방 옆차기로서 앞의 적을 뛰어넘어 뒤에 적을 공격한다는 해설과 함께 허공을 가로 질렀다.

이번 시범에서 새로이 중요시한건 우리 시범단의 새로운 창작작품인 겨루기 품새로서 실제경기에 활용하는 동작으로 발동작에 중점을 두었다. 김영작위원장의 구령으로 실시한 겨루기 품새는 또 새로운 태권도의 진가를 확인시켰다.

다섯번째 조성칠의 8방후리기와 4방 후리기(하, 중, 상, 고)격파였고 여섯번째 장권 사범의 사과격파 360°돌아차기는 한번 실수로 관중의 분위기를 고조시킨가운데 두번째 시도에 산산조각으로 날아가니 IOC위원 및 관중들은 즐거운 비명과 함께 감탄사가 끊일줄 몰랐다.

일곱번째 시범은 이규형사범(시범분과 부위원장)의 고축3방격파(하, 중, 상)와 심창수사범의 공중몸

스위스 GRUYERES성 마을을 관광한 시범단.

뒤로 뒤집어차기(3m)높이가 끝나자 사마란치 위원장은 김운용 총재님께 무슨 질문을 주고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여덟번째 시범은 이종관 사범의 수기 4방 및 쌍발고축이었는데 이종관 사범의 손끝으로 2인치 송판을 겨누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웅성웅성거리며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동시에 장내를 깨뜨리는 기합소리와 함께 손끝이 송판을 뚫자 믿어지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신음섞인 탄성과 박수를 보내왔다.

열번째로 본인(구정회)대 표락선 사범의 호신술로 절도와 민첩성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한번은 빠르게 한번은 슬로우모션(Slow Motion)으로 보였는데 길게 내뿜는 기합에 맞춰진 슬로우모션과 코믹한 액션이 이상적이었는지 시범이 끝난후 TV방송국측에서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열한번째로 정우영사범의 일렬연속격파, 열두번째는 위력격파로 김영작위원장과 박덕규 부위원장의 시범은 장내를 절정에 다다르게 했다. 이순간 이곳 시범은 대성공이란걸 느끼면서 밋트차기로 1부를 끝내고 2부 순서를 기다리면서 관중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으며 사마란치 위원장은 재차 감탄하는 표정으로 다시한번 찬사를 보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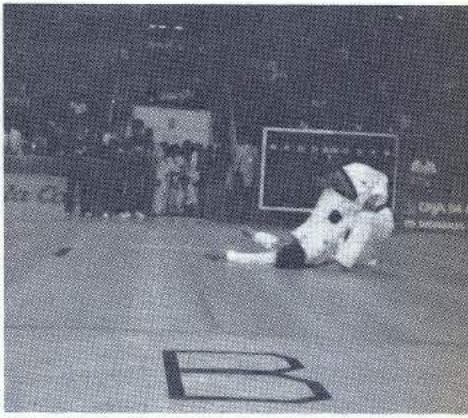
2부에선 시범경기 4게임을 보였는데 루울과 득점, 감점을 각조마다 따로 배열하여 모든 득 감점 표시를 정확히 보였다. 나중에 현지 김명수 사범님이 전하는 말은 경기의 득, 감점에 대하여 사마란치 위원장은 김운용총재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무엇이 우리 시범단을 신들리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힘(Power)기술(Skill)정신(Sprits)을 멋지게 보여주어 임원들과 IOC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날 저녁 IOC본부에서 제공하는 공식만찬에서 김운용 총재님께서는 IOC가 인정하는 스포츠로서 올림픽을 향해 일보 전진 했으니 보다더 훌륭한 스포츠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다짐하셨다.

IOC본부에서 IOC위원장과 김운용총재를 모시고 기념촬영

10월 2일 가벼운 마음으로 쇼핑을 하고 IOC본부를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흰대리석 2층 건물로 대지 2만평방미터였고 정보수집실, 컴퓨터실 및 자료실,



구정회 사범과 표락선사범의 호신술 시범.

회의실에는 60여명의 사무원들이 올림픽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2시 30경에 시범단원은 오찬을 한뒤 IOC위원장과 김운용 총재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함으로써 로잔의 일정을 마치고 오스트리아로 출발했다.

시범은 오스트리아 국영TV에 생방송되어

10월2일 오후 6시 오지리 비엔나에 도착하여 버스편으로 어둑어둑한 비엔나 거리를 지나니 역시 음악의 나라 음악의 도시답게 조용하고 고전적인 면이 풍겼으며 옛 중세기의 고풍스러운 건물을 바라보며 숙소에 도착하여 여장을 푼뒤 곧이어 한인 식당"아리랑"식당으로 향했다. 시장기도 들었지만 몇일만에 그것도 이국땅에서 맡아보는 된장찌게와 김치냄새는 그누구라도 솟구치는 식욕과 향수로 몸과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다.

10월3일 오전엔 간단하나 쇼핑을 마치고 오후 7시 시범 장소인"Budocenter"체육관에 도착하여 몸을 풀었다.

시범전 홍종수 단장님은 스위스의 기세를 계속살려 이곳의 태권도 인식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 유럽은 조용하고 화려하지만 또한 냉혹한 곳이므로 개개인이 품위를 지켜달라고 당부

했다.

그도 그럴것이 이곳은 세계연맹(WTF)과 도전적인 국제연맹(ITF)이 본부를 두고 있으며 북한에서 정략적인 지원을 받는 체육관도 세 군데가 있었고 또 이곳 사범들말로는 우리 한국 시범단이 온다는 정보를 듣고 바로 얼마전 북한의 지원을 받은 시범단이 이미 같은 수법으로 앞질러 시범을 했지만 결과는 우리 시범단원이 스피드와 테크닉등 차원높은 시범으로 그들을 압도한 적이 있었다.

오후 7시에 시작한 시범은 1시간 동안 오지리 국영 TV의 생방송을 통하여 오지리 전 지역에 방영되었다.

오스트리아와의 친선경기에서 난이도 높은 기술 펼쳐 보여

10월4일 오전 10시 우리 팀 선수대 오지리와의 친선 경기에서 핀급부터 순조롭께 게임을 리드해 나갔으나 둘째 게임부터는 김영작위원장님과 박덕규, 이규형부위원장은 게임상으로 보면 조금 불안하겠지만 종주국에서 온 우리팀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보여야 된다는 지시대로 고도높은 발차기를 보여줌으로써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경기가 끝난후 관중석의 한코너에서 조그마한 꼬마친구와 꼬마의 어머니로보이는 관중이 손을 흔들며 환호하길래 준비해간 페난트를 주니 어제도 시범을 보았다면서 이제 두살밖에 안된 자기 아들도 꼭 태권도인으로 키우겠다면서 기념촬영을 원했다.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스페인으로 출발

10월5일 오전10시40분 오스트리아 항공(OS 259)편으로 출발하여 오후 2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하니 이곳의 날씨는 무더운 편이었다. 이곳에는 제8회 세계 태권도대회가 7일부터 열리는 탓인지 공항은 다소 어수선하게 보였다.

8년전 이곳으로 파견나온 김정은 사범및 3명의 사범들이 조직위원회로 부터 시범단의 안내자로 내정됐다면서 마중나와 있었다.

우리 시범단은 경기장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Playatels Hotel"로 안내되었다.

세계선수권대회 개막식 행사에 참가, 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10월6일은 간단한 쇼핑과 휴식으로 지낸후 10월 7일(음력으로 8월15일)은 우리의 추석명절이었다. 오전 6시 기상하여 운동을 마친후에 바다 수평선위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시범단은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향수에 젖기도 했다.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막식은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되었고 경기장은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은 팔라시오 무니시팡 체육관으로 우리 잠실 체육관 만한 크기였다.

경기장 주변과 장내는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있었고 많은 관중과 각국 선수단 및 사범들, 그리고 IOC 사마란치 위원장과 김운용 총재님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장 외 10여명의 VIP가 참석해 있었다. 시범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긴장감이 멤돌았다.

그것은 이곳에 모인 관중은 일반 관중 뿐만 아니라 각국 선수 및 그 위세가 당당한 사범들이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사범들은 제일먼저 시범을 통해 체육관 홍보 및 수련생들을 이끌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한 실력들을 갖고 있었을 뿐더러 또 다른 시점에서는 기본적인 태권도정신을 망각하고 자기만이 제일인양 태권도의 메카인 국기원의 기술지도를 무시한채 배타적인 행동과 임기응변식의 지도와 짧은 안목으로 결국은 외국인 제자에게 까지 기본예의와 무도성을 심지 못하고 그들로하여금 외면당하는 사례를 국제대회때면 많이듣고 많이 봐 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종주국 시범단은 좀더 나은 시범과 예의 그리고 바른 행동으로 각국의 많은 선수들 앞에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백분발휘하여 시범을 대성공으로 이끌었다. 이에 투우와 플라멩코춤, 아즈테카춤의 정열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는 관중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우뢰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고 사범들도 역시 훌륭한 시범이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날오후 9시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한 만찬에 참석한 시범단 일동은 부담없는 식사와 유럽풍의 포도주를 마신후 그동안 여독과 피로로 깊은 수면에 빠져들었다.

세계속의 한국을 다시 부각시키고 한국의 얼을 그들의 가슴깊이 심어줘

10월8일 92년도 올림픽 개최장소인 바르셀로나 시는 춤과 정열의 나라 답게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시내중심가의 투우경기장과 1800년 부터 건립되고 있는 거대한 성은 설계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한쪽으로는 지구는 둥굴다고 주장하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부스의 동상이 서있다.

한때 전미주지역과 유럽을 지배했던 스페인, 이 스페인안에서 우리민족의 혼이 담긴 태권도 세계대회와 시범은 세계속의 한국을 다시 부각시켜 한국의 「얼」을 그들의 가슴깊이 심어 주었다.

10월9일 오후5시 그동안 수고해준 김정온 사범, 이창수, 안병렬, 이의성, 최창열 사범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IB666기로 파리에 도착 1박하고 10월10일 오후 1시 출발하여 10월11일 오후 4시 대한항공 KE 902편으로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번 시범은 대성과를 얻었다고 홍종수단장님과 임원들께서 흡족해하는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이번 유럽 순회 시범 결과 올린 효과를 본다면

첫째, 스위스 로잔의 IOC본부에의 시범은 각국 IOC위원들에게 태권도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고 또한 스위스 태권도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본다.

둘째,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둔 ITF 활동에 따른 정략적 저지책의 일환이 됐다고 보고 오스트리아와의 친성경기를 통해 상호 우호증진이 강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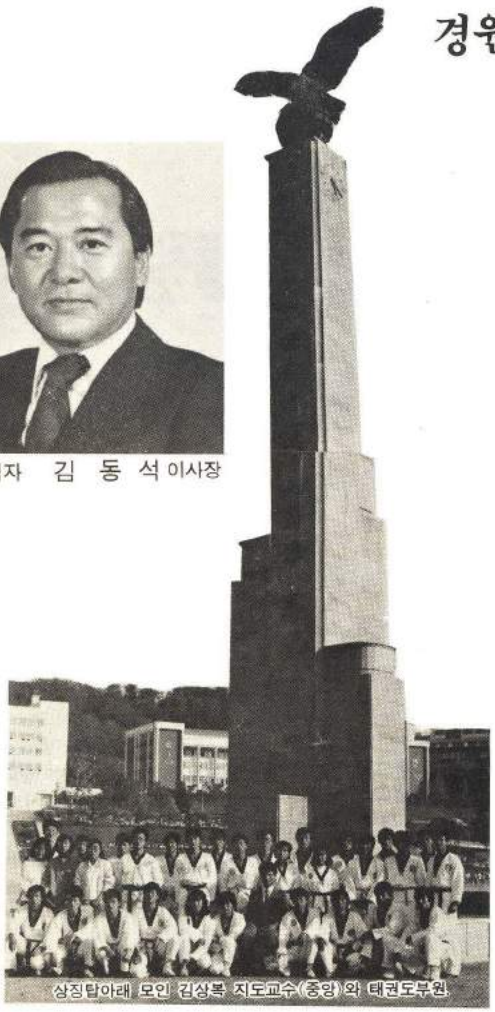
셋째, 제8회 세계대회를 더욱 빛나게 함과 동시에 시범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올바른 인식과 태권도 보급 촉진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

이번 시범을 마치며 시범단 일동은 정신적인면과 기술적인면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태권도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어떠한 곳에서 시범을 하더라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시범단으로 승화시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그동안 저히 시범단을 파견해 주신 체육부와 태권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비상하는 젊은 독수리

경원대 태권도부

설립자 김 동 석 이사장



상징탑아래 모인 김상복 지도교수(중앙)와 태권도부원

교문을 들어서면 웅장한 교사 몇동이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보이고 교정을 따라 운동장으로 향하면 지성인의 웅지를 맘껏 펼쳐보이는 듯 학교를 상징하는 독수리 한마리가 높은 석탑위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다.

「대망과 신념을 지닌 인간상의 구현」이라는 김동석 설립자 겸 이사장의 설립정신이 독수리를 떠받드는 석탑위에 양각을 드리우며 새겨져 있다.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산 65번지에 넓은 캠퍼스를 지식인의 전당으로 경원대학이 문을 연 것은 1982년도였다. 그해 3월 제1회 입학식을 거행하여 지난 86년 2월에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신설대학이다.

캠퍼스 곳곳에는 강의를 받으러 강의실로 향하는 학생들, 잔디밭 교정과 동산에 모여 앉은 대학생들의 모습 속에는 젊음의 낭만과 젊음의 정열이 숨쉬는 듯한 신선함으로 가득차 있는 듯 했다.

경원대학에 태권도부가 창단된 것은 1985년 3월로 지금까지 3년의 연륜을 쌓아가는 동안 김상복 지도교수를 주축으로한 59명의 태권도부원이 경원대학에 순수아마추어 태권도인으로서의 기개와

김상복 지도교수

기상을 단단히 심어가고 있다.

태권도부의 지도교수인 김상복 교수(교양체육 전임강사)는 태권도부의 창단시부터 참여해 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했고 연세대 체육학과 재학시절에는 태권도부원으로 활약한 바 있는 태권도 경기인 출신이다. 그래서 태권도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지도하듯이 연무시범 기술지도 등을 지도하며 태권도부가 경원대학에서 순수아마추어 대학 써클로 활성화되도록 후원하고 있다.

태권도부는 태권도 수련을 통한 정신 수양으로 용기, 통솔력, 심신단련, 인내, 겸양을 배우고 태권도 수련을 통항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순수한 아마추어인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태권도부 부장으로는 정용직(관광경영학과 2년)학생이 맡고 있으며 그밖에 고단자인 주장이 운동을 지도하고 총무부에서는 타학교 태권도부와의 유대강화 및 전반적인 대외업무를 맡아하고 있으며 기획부에서는 각종 행사 및 운동계획, 조직등을 짜고 홍보부에서는 학내 홍보, 여학생의 적극 참여유치, 지도부는 무도정신의 고취, 여학생부는 봉사활동과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59명의 부원 중 15명이 유단자이고 여학생 8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

경원대학의 총 26개학과 중 16개학과의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 태권도부원들은 매일 방과 후에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음은 물론 방학기간에는 합숙훈련을 통하여 협동정신과 무도정신을 연마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전국대학태권도연합회에 참가해 타대학과의 친선도모를 통한 대학 태권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연무시범 및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86년도에는 동국대와 제1회연무시범대회를 가진바 있고 올해는 경희대와 제2회 연무시범대회를 가지며 태권도의 질적 향상과 친선도모 및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교내행사로는 단합체육대회, 승단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밖에 성남협회 주최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한편 태권도부에서는 무도정신의 실천이라는 뜻을 합쳐 지난 여름 수해지역 복구사업에 참가했고 농촌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태권도인으로서의 면모를 열심히 보여주기도 했다.

경원대학의 태권도부원들의 지난 이야기, 현재의 활동, 앞으로의 계획등을 들으며 취재를 마치고 교정을 나서는 기자의 마음은 태권도부원들 모두가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지성인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양성이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실력있는 태권도인을 키운다

선덕중학교

백운대 인수봉 북악산 기슭에 퍼져가는 태권도의 함성은 선덕중학교 태권도부원 30여명과 노영동 사범의 땀에 젖은 구령소리.

「안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아래 기초체력 훈련과 담력훈련, 기술훈련 등을 하며 태권도 국가대표로의 꿈을 키워가는 태권도부원들은 새벽의 체력훈련과 방과후 기술훈련으로 태권도 수련에 임하고 있다.

정철현 교장

선덕중학교의 정철현교장은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보람있는 결과를 위해 불편함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겠으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깨어지는 것이 성실과 노력」이라며 선덕중학교의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태권도부원들에게 특히 「성실」과 「노력」을 강조했다.

이는 태권도부원들은 다른 학생들이 보통 공부 한가지에만 매달리는데 비해 태권도를 수련하는 일을 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노력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지덕체가 겸비된 미래의 주역들이 되어주길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덕중학교에서는 운동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이것은 교장도 교사도 사범도 학생도 모두 「공부하고 운동해야 장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덕중학교는 타학교에 비해 운동부의 활동이 활발한 편인데 학교에서 장려하는 운동만도 태권도를 비롯해 레슬링, 궁도, 유도, 필드하키, 역도, 경마, 축구 등 학생들이 원하는 한 무슨 운동이든 권장하고 있는데, 필드하키 전국가대표선수출신인 신상오 체육주임은 건강한 신체단련은 건강한 정신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학창시절이라며 운동에만 치우치지 않는 「실력있는 운동선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2 체육을 담당하는 최철재 태권도부감독은 태권도부 2단의 유단자로 태권도부 육성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로이 운동할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으나 지원이 없는 가운데 태권도부를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나 올해부터 태권도부실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당을 태권도장으로 사용하고 88년 신입생중에 태권도 특기생을 받게 되어

태권도 부원들과 노영동 사범(중앙), 신상오 체육주임(좌), 최철재 태권도부 감독.

태권도부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한 태권도부 발전의 전환점을 맞기까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와 태권도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하나님께 맹세할만큼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태권도부를 지도해온 노영동사범의 끈질긴 노력의 댓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덕중학교에서는 재학생 중 태권도수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태권도부에 들어와 태권도를 처음부터 배우고 실력을 닦아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해 왔는데 올해에는 소년체전 평가전에서 3명의 선수가 서울시 대표로 선발되는 등, 각종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2개를 따내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내 손으로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고 싶다」는 노영동사범은 선덕중학교와 교사(校舍)를 함께 쓰고 있는 선덕 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창단되어 선덕중학교에서 기초를 닦은 태권도부원들이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계속 지도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했는데 이에 대해 정철현교장도 선덕고등학교에 태권도부를 육성해 중학교 태권도와의 연장선에서 태권도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실현가능성을 비추기도 했다.

한편 노영동사범은 현재 태권도부실에서 숙식을 하며, 태권도부원과 새벽운동부터 함께 뛰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덕중학교 태권도부 출신 중에서 선덕중학교 태권도를 지도할 교사가 배출될 때까지 태권도를 지도하겠다고 열의가 대단한데 태권도지도 외에도 태권도부원들에게 천자문을 따로 지도하기도 해 방학 때에는 태권도부실에서 낭낭하게 천자문을 익히는 부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또한 태권도부실에는 노영동사범이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동양화, 붓글씨 등으로 먹냄새가 진하게 풍겨 땀내로 젖어있는 다른 운동부실과는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태권도부원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갖는데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았다.

한편 정철현교장은 「태권도부원만의 태권도가 아니라 한국의 얼을 심고 가꿀 수 있을 뿐더러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협동심, 단결력, 자신감, 자기방어능력함양 등에 좋아 국민체위 향상의 일환으로 태권도 품새를 익힐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해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태권도가 교기로서 채택될 가능성을 엿보였다.

한편 태권도부원 중 서울시 교육감기대회의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인 강철원학생 등 10명이 태권도특기생으로 고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태권도부 후원회 강대갑회장은 학생들이 「시합을 앞두고 체중조절 때문에 맘껏 먹지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부모로서의 심정을 토로하며 시합 때마다 학부형들이 경기장에 나가 응원을 하면 심리적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더욱 견고해지고 사기가 높아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다며 태권도 후원회회장으로서의 일가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실력있는 태권도인을 키운다

선덕중학교

백운대 인수봉 북악산 기슭에 퍼져가는 태권도의 함성은 선덕중학교 태권도부원 30여명과 노영동 사범의 땀에 젖은 구령소리.

「안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아래 기초체력 훈련과 담력훈련, 기술훈련 등을 하며 태권도 국가대표로의 꿈을 키워가는 태권도부원들은 새벽의 체력훈련과 방과후 기술훈련으로 태권도 수련에 임하고 있다.

정철현 교장

선덕중학교의 정철현교장은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보람있는 결과를 위해 불편함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겠으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깨어지는 것이 성실과 노력」이라며 선덕중학교의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태권도부원들에게 특히 「성실」과 「노력」을 강조했다.

이는 태권도부원들은 다른 학생들이 보통 공부 한가지에만 매달리는데 비해 태권도를 수련하는 일을 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노력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지덕체가 겸비된 미래의 주역들이 되어주길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덕중학교에서는 운동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이것은 교장도 교사도 사범도 학생도 모두 「공부하고 운동해야 장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덕중학교는 타학교에 비해 운동부의 활동이 활발한 편인데 학교에서 장려하는 운동만도 태권도를 비롯해 레슬링, 궁도, 유도, 필드하키, 역도, 경마, 축구 등 학생들이 원하는 한 무슨 운동이든 권장하고 있는데, 필드하키 전국가대표선수출신인 신상오 체육주임은 건강한 신체단련은 건강한 정신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학창시절이라며 운동에만 치우치지 않는 「실력있는 운동선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2 체육을 담당하는 최철재 태권도부감독은 태권도부 2단의 유단자로 태권도부 육성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유로이 운동할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으나 지원이 없는 가운데 태권도부를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나 올해부터 태권도부실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당을 태권도장으로 사용하고 88년 신입생중에 태권도 특기생을 받게 되어

태권도 부원들과 노영동 사범(중앙), 신상오 체육주임(좌), 최철재 태권도부 감독.

태권도부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한 태권도부 발전의 전환점을 맞기까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와 태권도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하나님께 맹세할만큼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태권도부를 지도해온 노영동사범의 끈질긴 노력의 댓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덕중학교에서는 재학생 중 태권도수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태권도부에 들어와 태권도를 처음부터 배우고 실력을 닦아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회에 출전해 왔는데 올해에는 소년체전 평가전에서 3명의 선수가 서울시 대표로 선발되는 등, 각종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2개를 따내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내 손으로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고 싶다」는 노영동사범은 선덕중학교와 교사(校舍)를 함께 쓰고 있는 선덕 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창단되어 선덕중학교에서 기초를 닦은 태권도부원들이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계속 지도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했는데 이에 대해 정철현교장도 선덕고등학교에 태권도부를 육성해 중학교 태권도와의 연장선에서 태권도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실현가능성을 비추기도 했다.

한편 노영동사범은 현재 태권도부실에서 숙식을 하며, 태권도부원과 새벽운동부터 함께 뛰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덕중학교 태권도부 출신 중에서 선덕중학교 태권도를 지도할 교사가 배출될 때까지 태권도를 지도하겠다고 열의가 대단한데 태권도지도 외에도 태권도부원들에게 천자문을 따로 지도하기도 해 방학 때에는 태권도부실에서 낭낭하게 천자문을 익히는 부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고 한다.

또한 태권도부실에는 노영동사범이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동양화, 붓글씨 등으로 먹냄새가 진하게 풍겨 땀내로 젖어있는 다른 운동부실과는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태권도부원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갖는데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았다.

한편 정철현교장은 「태권도부원만의 태권도가 아니라 한국의 얼을 심고 가꿀 수 있을 뿐더러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협동심, 단결력, 자신감, 자기방어능력함양 등에 좋아 국민체위 향상의 일환으로 태권도 품새를 익힐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해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태권도가 교기로서 채택될 가능성을 엿보였다.

한편 태권도부원 중 서울시 교육감기대회의 라이트급 금메달리스트인 강철원학생 등 10명이 태권도특기생으로 고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태권도부 후원회 강대갑회장은 학생들이 「시합을 앞두고 체중조절 때문에 맘껏 먹지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부모로서의 심정을 토로하며 시합 때마다 학부형들이 경기장에 나가 응원을 하면 심리적 부담을 줄 수도 있으나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더욱 견고해지고 사기가 높아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다며 태권도 후원회회장으로서의 일가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사랑과 긍지로 제자앞에 선다

현대체육관

이 재 수

흔히들 체육관하면 다른 교육기관이나 여가선용의 시설에 비해 무척 영세하다는 이미지를 남기기 쉽지만 많은 도장 중에서도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규모 및 시설기재를 잘 갖추고 있는 도장으로 손꼽히는 도봉구 공릉동에 위치한 현대체육관을 찾은 것은 지난 10월 말경이었다.

도장에 들어서니 유치부어린이 50여명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장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썰렁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도장의 전체면적은 70평인데 그 중에서 수련도장의 면적이 40평이고 수련도장 정면에는 국기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

넓은 4각의 벽에는 지혜, 덕성, 건강이라고 쓰여진 관훈을 비롯해 관원선서, 지도자훈이 정갈하고 힘있는 붓글씨체로 쓰여져 있었다. 그 밖에도 부모님께 효도하기, 인내, 애국하는 마음 등을 내용으로 한 고사성어(古事成語)및 시구(詩句) 경구(驚句)등이 있어 수련장을 찾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함을 갖추게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유순한 마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반성의 마음,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겸허한 마음, "제가하겠읍니다"라고 말하는 봉사하는 마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한편 운동기구로는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미끄럼대가 있었는데 특히 이색적으로 자동차 타이어20여개가 눈에 띄었다. 자동차 타이어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대형트럭 타이어만한 큰 것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재수 사범은 운동기구로 타이어를 사용하게 된 것을 우선 냄새가 나지 않고 어린이들이 다칠 염려가 없으며 선을 그어 놓고 일자바로굴리기, S자 굴리기 등을 통한 중심이동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밖에 도장시설로 샤워실이 있으며 언제든지 수련외의 시간에도 수련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채워진 놀이방이 개인사물함과 함께 옷을 갈아입도록 짜여져 있었으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현대체육관은 태권도장으로서 무도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천후 교육장으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현대체육관에는 10월말 현재 160여명의 수련생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부별로 보면 유치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는 무리한 운동을 가하지 않기 위해 앉아서 품새를 지도하고 있는 이재수 사범.

부 50명, 국교부 45명, 중학부 40명, 고등 일반부 28명으로 타도장의 유치부 위주의 교육보다는 유치부에서 성인부까지 골고루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것 같다.

현대체육관의 이재수사범은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달한 이 시점에 태권도수련의 근간이 되는 일선 도장이 6, 7세 어린이들의 유치부 태권도장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은 태권도의 장래를 보아 매우 우려된다며 성인태권도부의 활성화를 위해 새벽반을 특히 홍보하고 퇴근시간을 이용한 저녁부의 성인반 운영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체육관이 대규모 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이재수 사범의 태권도에 대한 신앙과도 같은 애정과 정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직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생각으로 경영면에서 무너져가는 28평의 조그마한 체육관을 인수받았을 때 체육관이 여러가지 면에서 평판이 나빴던 데다가 경험이 없는 첫 출발이라 어려움은 많았지만 언젠가는 공릉동에서 제일가는 교육기관으로 변모시키겠노라는 결심을 했다며 그때를 되돌아 보는 이재수사범의 진지한 얼굴에는 또 다른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신념을 읽을 수 있었다.

1년 중에 3, 4일을 빼면 매일 도복을 입고 새벽부터 저녁 11시까지 도장에서 수련생들과 함께 뛰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재수 사범. 그의 부인 김경희씨는 결혼초에 도장을 성전처럼 알고 수련생들을 친자식처럼 지도하는 것 때문에 개인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것이 불만이었으나 지금은 남편의 뜻이 높고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했다. 부인은 유치부, 국교부 수련생을 위한 봉고차운영을 맡으며 이 재수사범을 돕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사범은 학부형들이 도장에 와 태권도장에 차가 있느냐는 물음을 해와 처음에는 태권도가 뛰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운동하러 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누차 역설했으나 차를 요구하는 학부형이 많아 경영상 어쩔 수 없이 봉고차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늘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사범에게 왜 보조사범을 두지 않고 혼자서 지도하느냐고 묻자 그동안 계속 사범을 두었는데 사범들이 현대체육관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 지도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신념을 가진 사범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재수사범이 직접 도복을 입고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너무 열심인 까닭에 틈이 없어 자연히 보조사범도 관장만큼 뛰고 지도해야하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도장사범이나 해야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상관일 수 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일례로 화장실 소변기에는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한 계단을 만들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이사범의 자상함도 일반 사범들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참된교육은 교육자 자신이 사생활에서 부터 공생활까지 청렴결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도 모든 면에서 교육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다며 공부하는 지도자, 노력하는 지도자가 많아져야만 태권도장이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취재도중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이사범의 노트를 들쳐 보다가 어느 페이지인가 다음과 같이 써놓은 글을 몰래 훔쳐 보며 태권도의 발전은 곳곳에서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묵묵히 실행하는 사범들에 의해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

교육자로서의 대쪽같은 절개를 지키면서 최선의 그날까지 나는 자랑스런 겨레의 스승, 오늘도 사랑과 긍지로 제자 앞에 선다.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여 한점 부끄럼없는 거룩한 스승의 길을 간다. 이 길이 고되고 어려워도 내 정성 다하여 겨레의 미래를 가꾸는 보람에 산다.

지도자 훈

1. 나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2. 나는 사랑과 믿음으로 교육하는가?
3. 나는 항시 공부하고 생각하는 지도자인가?
4. 나는 욕설이나 비어를 사용하지 않는가?
5. 나는 제자들의 질문에 친절한가?
6. 나는 부모님의 상담에 친절한가?
7. 나는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8. 나는 검소하며 솔선수범하는가?
9.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가?
10. 나는 지도자 훈을 실천하는가?

현대체육관

이재수 사범의 지도자훈

태권도 에어로빅 국내보급 나선 이종호·최명자씨 부부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조화시킨 태권도 에어로빅을 개발한 이종호씨(46·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시·7단)와 최명자씨(42·3단)부부가 국내발표를 위해 귀국했다.

올림픽회관에서 김운용총재를 방문한 이종호, 최명자씨 부부.

「태권도의 기본품새에 에어로빅을 과학적으로 조화시켜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그 기능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600개의 근육에 탄력성과 민첩성을 길러줌으로써 기본체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운동의 효과와 흥미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전문스포츠인의 체력향상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읍니다」라며 태권도 에어로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종호씨는 태권도 7단에 전국가대표 핸드볼선수였고 부인 최명자씨는 태권도3단의 전국가대표 체조 선수로 암스트롱 스테이트 칼리지 체육대학원에 다닐 때 태권도에어로빅을 개발, 미국 에어로빅 건강협회(AFAA)로 부터 에어로빅 지도강사 자격을 얻고 이 운동을 미국 전역에 보급해 왔다.

이들 부부는 지난 70년도에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주의 사바나시에서 태권도장을 경영해 왔는데 태권도를 20여년 가르치는 동안 수련생들이 딱딱한 워밍업에 싫증을 느끼는것에 착안하여 태권도 에어로빅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원래 에어로빅은 미국의 케니스 쿠퍼 박사가 의학적 임상 실험자료를 기반으로 1968년에 창안하여 미 공군의 신체 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널리 보급되어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체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운동임이 증명되어 세계적으로 활발히 보급되어 왔는데 태권도 품새에 에어로빅을 과학적으로 조화시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태권도 에어로빅이 활발히 보급되어 미국 뿐만 아니라 구미지역에도 널리 퍼져 스포츠 발전과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씨부부는 「미국에서는 이 운동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막상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

태권도 에어로빅 시범을 보이는 이종호·최명자씨 부부(상)와
미국 에어로빅 건강협회 시범단(하)

엔 별로 소개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전국순회 발표를 계획했다.」고 귀국동기를 밝혔다.

미국 에어로빅 건강협회(AFAA)시범단 6명을 이끌고 온 이들 부부는 11월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도시를 돌며 태권도 에어로빅의 시범과 강습을 갖었다.

태권도 에어로빅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리듬에 맞추어 배우고 익힐 수 있으며 초보자 유연자에 맞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전문 스포츠인의 체력향상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체의 유연성과 주력(走力)에 치중하는 태권도 에어로빅은 3백가지 이상의 갖가지 동작에 따라 남녀노소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들 부부에 따르면 「동작 하나 하나에 힘이 넘치고 동작을 크게 하게돼 운동의 효과를 쉽게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지난 84년 봄 조지아주 참피언대회를 비롯, 지난 86년 7월 4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월드컵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주요대회에서 이씨부부가

한국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스포츠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과학적 스포츠의 활성화로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체육지도자들이 나타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태권도 시범을 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미국 에어로빅 협회로부터 한국인으로서는 맨 먼저 지도자 트레이닝 자격증을 따낸 부인 최명자씨는 「국내의 에어로빅 발전을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권도 에어로빅의 많은 장점으로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도정신을 주장하는 일부 태권도 사범들의 반대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부부는 이에 대해 「손, 발, 몸을 움직이는 연속동작으로 힘과 선만 다를 뿐 거의가 흡사한 운동」이라며 넓은 차원에서 태권도의 미래를 생각해 무도 태권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태권도가 스포츠로서 전세계에 보급되어 '88서울올림픽의 시범경기로서 증명된 이 시점에 우리 모든 국민이 한 차원 더 생각하여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 입증된 태권도 에어로빅을 바탕으로 태권도를 전세계에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구미 각국에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이 운동을 우리 국내에도 조속히 확산시켜 국내 스포츠 발전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이들 부부는 전문체육인, 체육지도자, 학생, 주부, 회사원 등 건강과 체육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요망했다.

내년 '88년 5월 중에는 미국 에어로빅협회 산하 Superclass팀의 내한 시범공연을 통하여 미국·한국 태권도 에어로빅쇼, 에어로빅 경연대회, 에어로빅 쇼, 스포츠웨어 패션쇼 등을 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태권도계의 스타가 연예계의 스타를 향해 뛴다

— 전국체전 헤비급 우승자 이동준 선수 —

지난 10월 18일, 광주일고 체육관에는 제68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의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에서 헤비급 우승자로 재탄생한 이동준선수를 격려하는 박수소리가 가득찼다.

이동준선수는 지금부터 10년전인 1978년도 제59회 전국체육대회 미들급 우승자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제60회, 62회, 65회, 66회대회 및 이번 68회대회까지 전국체전에서만도 6번이나 패권을 차지하는 신화를 창조해 왔다.

또한 국제대회로는 81년도 7월에 펼쳐진 제1회 월드게임, 82년도 12월 제5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83년도 10월 제6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85년 9월 제7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에서 계속 미들급 1위를 차지해 국내외를 통틀어 태권도계의 스타로서 각광을 받아왔었다.

그래서 이동준선수는 1984년도에는 체육훈장 거상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민체육진흥재단에서 지급하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은장 수혜대상자로 선정되어 태권도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러던 이동준선수가 태권도를 떠난 것은 지난 86년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였다. 이동준선수는 86아시안게임 출전티켓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국가대표선발전에서 탈락하자 태권도계를 떠나은막에 데뷔했던 것이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라 주목을 받으며 작년 하반기 「불녀」에서 주연으로 데뷔한 이래 계속해 고응호감

88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정식으로 은퇴를 하겠다는 이동준선수. 그 후의 인생을 「한국의 액션멜러물에서의 스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동준 선수가 주연으로 출연한 「제왕의 눈물」의 한장면.

독의 「8불출」과 최기풍감독의 「독불장군」에서 비중있는 역을 맡아 신인다운 의욕을 보여주며 각광을 받기시작한 이동준선수가 태권도계를 완전히 떠난 것으로 알았던 태권도인들 앞에 1년 8개월의 공백을 깨고 올해 전국체전에 충북대표선수로 출전한 것이다.

스물아홉이라는 나이와 근 2년을 운동과 담쌓아왔던 옛날(?)의 태권도 스타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와 현직 영화배우로서 태권도경기에 출전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흰 도복을 입고 경기장에 선 이동준선수는 오랜 수련으로 닦아온 실력과 경륜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듯 헤비급 우승자로 다시 태권도계에 우뚝 선 것이다.

이동준선수는 「일반 태권도선수들에 비하면 나이가 많아 노장이라 불리지만 아직은 신체적으로 충분히 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읍니다. 또한 지난해 은퇴전에서의 실망감을 말끔히 씻어 88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정식으로 은퇴를 해야겠다는 소망에서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읍니다.」고 재기동기를 밝혔다.

그동안 바쁜 영화촬영 중에서도 시간나는 대로 태권도를 수련해왔다는 이동준선수는 12월 크리스마스때 개봉될 「제왕의 눈물」 촬영만 마치면 당분간 영화를 중단하고 88올림픽대회까지는 태권도 수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88서울올림픽을 마친후에는 앞으로의 인생을 「한국의 액션멜러물에서의 스타가 되겠다」며 태권도계의 참피온이 영화계의 참피온으로 탈바꿈을 위해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다는 이동준 선수는 태권도인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고 했다.

태권가족

이 향원

철아~
체육관 가자
....

딱
아얏

어떤 녀석이얏!

미..미안해
쩨고만 녀석이

미안 하다면 다야
엇! 이거 피해

무심코 돌맹이를 찬게 그만 ....
무심코가 어디있어, 건방지게
춘식아 왜 그래?

요 꼬맹이가 돌맹이로 나를...
미안 하다고 했잖아.

미안이 어디있어.
태권도 맛 좀 봐라.
탁

너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불만 있어?
아냐, 나도 이 체육관에 다니게 됐어.
햐 - 그럼 새까만 후배 잡아.
임마! 앞으로 더욱 조심해.
수련이 끝난후
태권도도장
가방 무겁지?
내가 들어 줄께 이리 줘
괜찮아.
아냐, 내가 들어 줄께
괜찮다 니까
쯧쯧 제 도복은 내게 맡겨 놓고…
야, 춘식이!
그렇게 쩔쩔맬걸 왜 함부로 대했어.
검은띠 대선배인 줄 누가 알았나. 뭐,
그러니까 사람을 겉만 보고 함부로 하는게 아냐
참을 줄 알고 용서할줄 알고
겸손할줄 아는게 진정한 태권인 이야
누가 아니랬나 뭐,

임금님의 나라

글 · 정중수
그림 · 신철호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로 나왔읍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시민들은 직장으로 일터로 갔읍니다. 버스며 지하철, 택시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느라 몹시 붐볐읍니다. 하루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밤에 일터로 나가 일하고 낮에는 집으로 돌아가 쉬었읍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해 뜨는 낮에 일하고 어둠이 깃든 밤에는 쉬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풍습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임금님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닙니다. 임금님은 애써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쉴 것을 종용했읍니다. 임금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이 붙잡아 가두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읍니다. 온나라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그 모양이니 임금님께서도 두 손을 들고 말았읍니다.

"나의 신민들이여.

여러분의 뜻대로 밤에 일하고 낮에 쉬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면서도 나라살림을 맡아 꾸려가는 임금님은 속으로 여러가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컴컴한 밤에 생활을 하게 되니 나라의 구석구석을 전깃불로 밝혀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같은 일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한사코 싫어했읍니다.

"밤을 대낮처럼 밝혀 놓을 테면 낮에 일할 것이지 뭣때문에 밤에 일하지?"

딴은 그랬읍니다. 그래서 일터만 지장이 없도록 밝혀 놓고, 길거리와 골목 같은 곳은 예전의 밤과 같이 드문드문 가로등을 켜놓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환한 대낮을 싫다 하고 고집스럽게 밤에 나가 일하게 된 것은 임금님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항상 경찰을 풀어 눈을 크게 뜨고 지켜 보았읍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다."

벽에 붉은 페인트로 글씨를 쓴 젊은 사람들이 붙들려 갔읍니다.

"외국에 이민 가서 살자."

친구에게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붙잡혀간 사람도 있었읍니다. 임금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했다가 혼이 난 사람들은 낮에 나가 일하기를 꺼려했읍니다. 슬금슬금 임금님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밤에 나가서 일하기를 즐겼읍니다.

밤에는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짓을 해도 임금님의 눈에 띄지 않았읍니다. 임금님은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낮에는 집에서 쉬고 밤에 일하려 드는지 그 까닭을 몰랐읍니다.

임금님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었읍니다. 그 습관을 바꿀수가 없었읍니다. 아니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읍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을 탓했읍니다.

"어리고 착한 백성들이 어쩌다 밤과 낮을 구분 못하는 이 꼴이 되었을까."

임금님은 깊게 한숨을 쉬었읍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이 몹쓸 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나라 안의 이름난 의사란 의사는 모두 궁전으로 초빙해 놓고 궁리를 했읍니다.

"백성들이 저 모양이니 좋은 약을 지어서 어서들 낫게 하시오."

의사들은 백성들이 왜 밤과 낮을 바꾸어 생활하는지 말하지 않았읍니다. 의사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궁전을 물러나왔읍니다. 별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 까닭이 없었읍니다. 며칠, 몇달이 가도 백성들의 밤에 일하고 낮에 잠자는 새로운 습관은 그대로였읍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이 모두 이름 모를 큰 병에 걸렸다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읍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했읍니다. 임금님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일했고, 임금님이 깨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잠잤읍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큰 눈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제 정신이 아니란 말이냐?"

임금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올라 어쩔 줄을 몰랐읍니다. 임금님은 한번 화가 났다 하면 어찌나 무서운지 그 누구도 임금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지 못했읍니다. 임금님은 세상 일에 대해 한번 모르면 오래도록 모른 채 지냈읍니다.

임금님은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너무도 조용한 것을 보고 한탄했읍니다. 밝은 대낮인데도 세상은 쥐죽은 듯 고요했읍니다.

낮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곤 임금님과 왕비, 그리고 왕자와 공주뿐이었읍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몹시 답답하구나."

임금님은 예전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고 노여워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조용한 것이 큰 불만입니다.

"백성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고 싶구나."

임금님은 가끔 쓸쓸히 혼잣말로 중얼거렸읍니다. 사람들을 못보고 지낸 날이 오래 되자 임금님은 몇가지 꾀를 생각해냈읍니다.

'낮에 나와 일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많이 주겠다.'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어느 한 사람 코끝도 비치지 않았읍니다. 임금님은 크게 실망했읍니다.

'낮에 나와 일하는 사람은 높은 관리로 임명하겠다.'

역시 반응이 없었읍니다. 아마도 이런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읍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새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임금님은 생각했읍니다.

임금님은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흔들어 깨워볼까도 생각했읍니다. 그렇지만 수천만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깨운다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깨워 놓는다고 해도 일터로 나가지 않는다면 임금님만 속이 상할 일입니다.

'낮에 나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붙잡아 가두도록 하겠다.'

여러가지 포고문을 내어 사람들을 달래도 보고 위협도 해 보았으나 어느 한 사람도 임금님의 포고문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읍니다.

임금님은 마침내 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어느 한 사람을 깨워 붙들어다 놓고 왜 임금님의 말을 안 듣는지 직접 물어보았읍니다. 끌려온 사람은 잠에서 덜 깨어 임금님이 묻는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했읍니다.

"너희들은 왜 이 나라의 임금인 나의 말을 듣지 않는가?"

"포고문을 보지 못했는가?"

끌려온 사람은 무슨 질문을 해도 잠에 취해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읍니다. 아니 말 한마디를 하려 해도 무서운 임금님 앞에서 감히 입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읍니다.

임금님은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읍니다.

"나라에 도는 역병이로다."

임금님은 왕비와 공주, 왕자로 하여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분부를 내렸읍니다.

"섣불리 밖에 돌아다니다간 너희도 백성들의 병에 걸릴까 두렵다."

임금님도 낮과 밤을 바꿔 사는 사람들의 병에 걸릴까 봐 한 발짝도 궁 밖으로 나가지 않았읍니다.

그랬으므로 임금님은 점점 더 세상일을 알 수 없게 되었읍니다. 임금님은 생각다 못해 큰 돈을 들여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유명한 의사를 불렀읍니다. 의사는 임금님 앞에 엎드려 임금님의 부탁을 들었읍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의로 알려져 있소. 내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알아내어 빨리 고쳐주도록 하시오."

코가 길다랗고 눈이 파아란 의사는 바닥에 엎드린 채 말했읍니다.

"저희 나라 의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꼭 알아내어 그 병을 쫓아내도록 하겠읍니다."

코 큰 의사는 임금님의 분부를 받들어 온나라 곳곳을 돌아다녔읍니다. 사람들은 모두 멀쩡했읍니다. 한 가지도 이상스러운 점은 없었읍니다. 코 큰 의사는 자신이 도리어 밤과 낮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읍니다.

코 큰 의사는 아프리카에 갔던 일이 생각났읍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에 사는 어느 부족이 웃는 병에 걸려서 그 나라 왕이 몹시 걱정했던 것을 코 큰 의사가 가서 고쳐준 적이 있었읍니다. 조그만 일에도 웃음을 그치지 못하는 그 부족의 병은 '집단 신경질'이라는 병이었는데, 코 큰 의사는 그 부족의 한 사람을 울게 만들어 고쳐 주었읍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걱정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병은 '집단 신경질'같은 병은 아닌 것이 분명했읍니다.

코 큰 의사는 몇날 며칠 틀어박혀서 두툼한 의학책을 꺼내 놓고 뒤적거렸읍니다. 어느날 코 큰 의사는 책을 내던지고 무릎을 쳤읍니다.

"몽유병자들!"

코 큰 의사는 무슨 커다란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턱을 감싼 텁수룩한 수염을 쓰다듬었읍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몽유병자들이야."

코 큰 의사는 술병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술을 마시면서 거들먹거리는 표정이었읍니다.

코 큰 의사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읍니다.

"그래 병명은 알아내었소?"

"임 임금님, 이 나라 사 사람들은 몽 몽유병 환 환자들입니다"

임금님은 코 큰 의사가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지만, 화를 누르고 꾹 참았읍니다.

"몽 몽유병이란 것은"

코 큰 의사는 딸꾹질을 하면서 임금님께 말했읍니다. 몽유병이란 것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중에 마치 깨어 있을 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활동하는 병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꿈을 꾸면서 돌아다닌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임금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깜짝 놀랐읍니다.

"맞아, 이 나라 백성들이 그 몽무엇이란 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어."

임금님은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푹 쉬었읍니다.

"그래 그 병은 고칠 수가 있는 것이오?"

코 큰 의사는 임금님의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금방 바닥에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읍니다.

임금님은 코 큰 의사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했읍니다. 그 몽유병이란 것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밤중에 나가 일하고 공부하고, 낮에 잠잘 리가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밤새도록 꿈을 꾸느라 시달려 낮에는 집에서 쉬는 것이리라.

임금님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그만두게 할 궁리를 생각해 보았읍니다. 꿈을 꾸지 않게 된다면 밤에 일터에 나가 일하는 이상한 일이 없어질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꿈을 꾸지 못하게 한담!

아무리 생각해도 임금님은 머리를 짜 조인 금관 때문인지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읍니다.

술에 취해 있던 코 큰 의사가 며칠후에 깨어났읍니다 임금님은 즉각 코 큰 의사를 불렀읍니다.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없겠소?"

코 큰 의사는 약을 먹여도 안되고 주사를 놓아도 고칠 수가 없다고 말했읍니다.

"사 사람들을 깜 깜짝 놀라게 해 해주는 방법이 좋 좋겠읍니다."

코 큰 의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면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 법이라고 말했읍니다.

코 큰 의사는 술병을 꿰차고 제 나라로 돌아갔읍니다. 임금님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읍니다. 먹을 것을 많이 주겠다고 했었지. 높은 관리를 시켜 주겠다고도 했었지. 그때, 순간적으로 임금님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읍니다.

'뭐, 놀라게 해주면 깨어날 것이라고?'

임금님은 사람들을 모두 임금으로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읍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임금이 수천만명인 나라는 없어.'

임금님은 그 생각 끝에 진짜 좋은 생각이 났읍니다.

"백성들을 모두 왕자와 공주로 만들겠노라. 이 말은 진짜다."

이 소문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사람들은 모두 해뜨는 아침에 일어나고 달 뜨는 저녁에 잠을 자기 시작했읍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자며 공주이니 임금님의 큰 눈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읍니다.

궁에서 바라본 창밖의 세상은 온갖 소리들—만세 소리, 합성 소리, 웃음소리—등으로 몹시 시끌시끌했읍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날부터 왠 일인지 임금님이 밤에 깨어나고 낮에 잠자는 새로운 버릇이 들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읍니다.

정 중 수

작가약력

197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7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동화집「아침이 오는 길」등
현재 중앙일보사「문예중앙」근무.

별난 영감

글 · 김건중
그림 · 이향원

「사범인가 오범인간 어딜갔어? 엉! 당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지.」

천하체육관 아래층에서 만화가게를 하는 정영감은 체육관 문을 왈칵 열어 제키며 대뜸 소리쳤다. 그 음성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런 음성임을 두칠이는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었다. 달포전 만화가게 주인이 정영감으로 바뀌면서, 일주일도 못돼 체육관으로 부르르 올라와 지금같이 소리치던 정영감의 성깔머리를 두칠이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사범님은 경기장에 가셨어요.」

「굉기장? 그게 뭣하는 덴데?」

정영감이 부라리던 눈을 다소 풀며 반문했다.

「시합하는데 말이예요.」

「암튼, 내 그깐녀너건 알거 없구 사범인지 오범인지 오거당 단단히 일러둬 이집에서 조신하게 살고 싶거덩 조용조용 좀 하라구. 알것냐? 인석아, 에이 참!」

「…알았어요.」

두칠이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영감은 턱턱 스팀퍼 끄는 소리를 내며 체육관 계단을 내려갔다. 그리고는 만화가게로 들어서자마자 의자에 덜석 주저 앉더니 주전자 꼭지에 입을 대고 보리차를 벌컥벌컥 빨아댔다.

곰곰 생각을 굴려봐도 정영감은 울화통만 치밀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즈막 권리금 없는 가게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허다 못해 길거리에 게딱지처럼 질펀하게 깔린 우스워보이는 포장마차도 권리금이 있고, 제 건물도 아닌 다방 앞에 구두닦이 터도 권리금이 있다는데 하물며 번듯하게 지어놓은 건물 안에 그것도,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책이 양쪽 벽으로 빽빽하게 들어찬데다 간판도 근사한 아크릴로 붙여 놓은 만화가게가 권리금도 없이 복덕방에 나왔으니 이게 웬 횡재냐 싶었다. 그래서 정영감은 앞뒤 재어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을 했던 자신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하기사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정영감이 그땐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커다란 실수를 했겠는가.

재작년에 아들녀석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정영감 생활하기에 딱 맞는 열세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는데,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이 정영감에게는 감금생활을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진종일 집안에 있어도 이웃에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나 그렇다고 시골에서 살 때처럼 함부로 이웃에 놀러갈 수가 있나 이건 흡사 토끼장 안에 있는 토끼나 새장 속의 새처럼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해를 보내야 하니 정영감의 체질에는 답답할 따름이었다. 굳이 편한 게 있다면 그건 화장실이 방 옆에 붙어 있어 편하다고 할까, 뭐 그 정도니까 아파트라는 것에 정붙이고 살 것이 못된다고 늘 투덜거렸다. 그 참에 우연히 복덕방에서 심심풀이로 만화가게나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복덕방의 제안에, 올커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쾌재를 부르며 남이 먼저 계약할까 두려워 잽싸게 계약을 했던 것이었다. 물론 돈의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영감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만화가게를 구입한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만화가게를 인수하고 장사랍시고 해보니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었다.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 똑바로 감시를 해도 며칠이 지나면 한쪽 귀퉁이가 휙하게 드러나도록 만화를 잃어버리지를 않는가, 아니면 귓대기 시퍼런 녀석들이 담배를 태워대가게 안이 온통 안개기듯 뿌옇치를 않는가, 분명 학교갈 시간인데도 만화가게에서 진종일 누질러 앉아 키득거리며 만화책이나 보질 않는가, 어쨌거나 정영감의 성미에 참기 힘든 짓거리들이 숨통을 조이듯 벌어지는 판이었다. 그건 그렇다치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외국영화 제목을 대며 비데오를 보여 달라고 하질 않는가, 이건 만화가게가 뭣하는 곳인지 정영감 자신도 헷갈리는 것이었다. 처음 만화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그저 만화책이나 돈 몇푼 받고 빌려주거나 보게하면 되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느 때는 책을 빌려가 가져오지 않으면 주소를 보고 찾으러 가야되니 정영감으로서는 하나같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정신없는 판국에 손님이 없어 쉴라치면 이층 천하체육관에서 쿵쿵거리지 않으면 와장창거리다 기압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들려오니 정영감으로서는 부아가 부글부글 끓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나절께는 코흘리게 유치부시간이라 멀리서 말발굽소리가 들리듯 다그락 다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런대로 참겠는데, 국민학교 수업이 끝나는 오후에는 만화가게가 붐비는 시간이라 정신이 없는 판국에다 이층 천하체육관도 국교부 시간이라 덩달아 쿵쾅거리니 장사 방해도 방해지만 이건 도통 신경이 분산되어 견디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손님이 뜸해진 밤8시가 넘어서면 큰 녀석들 운동시간이라 그땐 아예 대포소리가 들리듯 꽈꽝대니 금세라도 천정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과 함께 머리가 돌 지경이었다.

정영감은 이제야 그 권리금도 받지 않고 만화가게를 선뜻 팔아버린 이유를 충분히 납득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만화가게를 자신에게 팔아 넘긴 먼저 주인이 괘씸하게만 생각 되었다. 아니, 그보다도 정영감은 누구에게 속았다는 자체가 생각하면 할수록 소화가 안되고 속이 부그르르 끓는 것이었다. 상식으로 예배당 옆에는 시끄러워 집 살 것이 못된다는 소린 들어봤지만 태권도장이 어떻다는 그런 소리는 들어보질 못한 터이라 깜박 속은 생각을 하면 더욱 심사가 뒤틀리는 정영감이었다. 그런 때면 영락없이 이층 천하체육관으로 부르르 올라가 성깔머리대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다.

(제기랄! 그러면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권리금없이 가게하나 잘 주었다고 히죽히죽 웃으며 계약서를 품속 깊이 간직하며 주름진 얼굴을 일렁이던 자신의 행동이 이제와서 생각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었나를 정영감은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물 한주전자를 거의 다 비우다시피 들입다 보리차를 마시던 정영감은 허탈한 한숨을 길게 토했다. 그리고는 걸장이 떨어져나간 만화책 한권을 한쪽 구석으로 획하니 집어내던졌다.

그때였다.

「할아버지 계십니까?」

서글서글한 음성과 싱그런 표정으로 천하체육관 도광욱 사범이 만화가게로 들어섰다.

「사범인가?」

땡감 씹은 표정이 되어 자리를 내주는 정영감의 음성은 아무래도 떨떠름하기만 했다.

「죄송합니다. 다녀가셨다고요」

「다녀갔지, 근데 나 도저히 모살것서 당췌 시끄러워서 말야. 내가 이집에서 이살 가던가 아니면 태권도장이 이살 가던지 무슨 구정을 내야지 나 원참 도저히…」

도사범은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애꿎은 담배만 빽빽 빨아 대며 정영감은 시큰둥하게 군시렁거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께 왔읍니다.」

「아니, 그럼 좋은 해결 방도라도 있단 말인가?」

정영감은 금세 표정이 바뀌면서 도사범을 향해 다가앉았다.

「그런게 아니구요. 실은…」

도사범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영감은 말꼬리를 나꿔채 듯 정색을 하며 나섰다.

「아니면?」

「실은 할아버지께서도 태권도를 하시면 어떨까해서 입니다.」

「뭐?, 메라구! 내, 내가 태쇄, 궈언 도올를 해!

헛헛, 참… 아니 지금 늙은일 놀리는 겨? 지금 맨정신으로 씨부렁 거리는 겨?」

빨아대던 담배를 부벼끄며 정영감은 기막히다는 듯이 도사범을 향해 삿대질을 곁들이며 핏대를 세웠다.

「아니, 왜요? 태권도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도사범이 반문하자,

「시끄럿!」

정영감은 폭팔하듯 소리를 질렀다.

「두고 보십시요 할아버지를 꼭 태권도 하시게 할 테니까요.」

싱그러운 표정으로 그러나 장난이나 놀림이 아닌, 믿음이 어린 그런 말씨로 도사범은 정영감과 대화를 풀기 위해 맞섰다.

「뭐? 내가 태권돌 하게 된다구!」

가당치도 않다는 표정이 금세 정영감의 온 얼굴로 덮쳤다.

「저어, 할아버지 제가 찬찬히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십시요.」

「……」

「할아버지 만화가게 보시기가 힘드시죠?」

「그렇탐, 왜 돕기라도 할텐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어떻게?」

귀가 솔깃했음인지 정영감은 표정을 풀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반문했다.

「저희 체육관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욱 고생하시는 것 같아 늘 미안하게 여기던 차에 도울 방법이 생각났읍니다.」

「도울 방법이?」

「네에, 그러니까 저희 체육관에 학생부 관원들이 당번제로 할아버지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사범의 말은 학교가 파한 오후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학생부 부원들이 교대로 매일 만화가게로 내려와서 정영감의 일을 도와준다는 것이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정영감은 도사범의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겸연쩍은 듯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야 좋지만 그게 어디 될법이나 한 소리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학생들이 가게를 잘 보면 할아버진 친구분들 모시고 저희 체육관 사무실에 오셔서 장기나 두시고 노십시요. 제가 맛있는 음식 대접은 매일이라도 하겠읍니다.」

「말은 고마운 소리지만…」

「할아버지 정말입니다.」

이렇게 돼서 학생부 수련생들은 당번제로, 도사범이 짜준 일정표에 의해 만화가게를 한달에 한두차례씩 보게 되었다. 물론 처음 한 주간은 정영감이 끔짝도 않더니만 학생부원들이 성실히 도와주자 가끔씩 체육관 사무실에 놀러 오게 되었다. 그로부터 정영감의 감정은 많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영감의 감정은 태권도장이 시끄럽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소릴 버럭지르며 화를 내지 않는 다는 것 뿐이었다.

그런대로 한달 남짓 지난 오후였다. 미국으로 떠난 아들네 집에서 편지가 날아들었다. 겉봉을 뜯어보니 손주 녀석의 서투른 글씨가 정영감을 반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서툰 글씨들은 정영감으로 하여금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물론 국민학교 3학년이 쓴 서툰 글씨 때문이 아니었다.

—보고 싶은 할아버님께

할아버지 안녕하셨읍니까. 저는 이곳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머지 않아 4학년이 되면 그때는 할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에 나갈거라고 아빠 엄마가 말씀하셔서 더욱 4학년이 되기를 기다려요.

할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고유무술인데 미국에서는 무척 인기가 있는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더욱 신이 나서 배우고 있읍니다. 한국사람은 모두 태권도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미국에서는 말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한번 배워 보셔요. 언제인가 미국에 할아버지가 오시면 태권도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졸려서 이만 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안녕히 계셔요. 끝. 손주올림—

눈을 슴벅이며 생각을 굴려봐도 정영감으로서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핼애비더러 태권도를 배우라고? 핼애비가 뭣 때

문에 골치를 썩는데 태권도를 배워.)

이건 순전히 정영감의 사정을 환히 알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아들이나 손주가 정영감이 만화가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건 과히 읽기 좋은 편지는 아니었다.

그날밤 정영감은 곰곰 생각을 굴려 보았다. 도사범도 태권도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배워야하는 운동이라고 했고, 테레비에서도 국위선양이니 뭐니 떠들었고, 피붙이인 손주녀석도 태권도 자랑을 편지에다 질펀하게 늘어 놓았고 천하체육관만 보더라도 애 어른 할 것 없이 태권도를 배우는 걸 보면 분명 태권도가 보배긴 보배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정영감의 머릿속으로 스멀스멀 차들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영감이 태권도에 호감이 간 것은 태권도를 지도하는 도사범의 인간 됨됨이나, 만화가게를 돌봐주는 학생부 녀석들이 하나 같이 성실하고 구김살이 없는데서 비롯되었다.

(그렇치만…)

정영감은 머리를 도리질쳤다. 그것은 이제껏 태권도를 외면했던 정영감 자신의 쓸데없는 편견에서 비롯된 생각을 갑자기 바꾸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두개의 생각들이 며칠째 정영감의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며 으르렁거렸다.

토요일 오후였다.

토요일은 붐비는 날이므로 유단자들이 당번을 맡게 되었다. 마침 두칠이가 당번이 되어 만화영화가 끝나고 몰려든 아이들이 만화가게를 얼추 빠져 나갈 즈음이었다.

「야! 이놈들아 여깃던 돈 어디갔어? 엉!」

정영감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왜그러세요 할아버지.」

「여기 놔둔 돈이 없어졌단 말여 돈이…」

「네에?!」

웬 날벼락이라는 듯이 두칠이는 두눈이 휘둥그레

지며 놀랐다.

「이쪽 책상 쪽으로 온 녀석이 누구야? 엉?」

정영감은 부들부들 떨며 만화가게 안을 불안스럽게 왔다갔다 했다.

「할아버지 그쪽엔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럼 돈이 발이 달려서 도망갔단 말이냐?…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노인네 돈을 훔쳐.」

「……」

두칠이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정영감의 서슬이 시퍼렇게 설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았지만, 정영감의 책상 쪽으로 접근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았다.

「아이구 그돈이 셋돈 줄려고 한달 동안 모아둔 돈인데…」

정영감은 샛노랗게 변한 안색을 실룩이며 떨리는 음성으로 투덜거렸다. 그런 정영감의 모습을 보니 두칠이는 공연히 가슴이 콩콩뛰며 흡사 자신이 그돈을 훔친 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 오르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파출소에 신고 할까요?」

「…놔둬, 잃은 사람이 죄가 더 큰거여. 」

정영감은 좀전의 시퍼런 서슬과는 달리 데쳐낸 푸성귀처럼 갑자기 풀기없는 음성으로 두칠이의 제안을 말렸다.

「그 어제가 셋돈 낼 날인데 깜박 했어, 늙어서 그런지 정신이 없어…」

「……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가게를 잘못봐서…」

두칠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조영히 말했다.

「괜한 소릴 하는구나, 괜찮아 인석아 내 소싯적에도 소관돈을 몽땅 쓰리맞은 적이 있었어, 그래어도 막걸리 서너잔 먹고 잊어 먹은 사람이야.」

「할아버지 이건 분명히 못된 놈의 짓이라구요 꼭 찾아야 돼요.」

「아서라, 괜스레 그깐 돈 때문에 일저지르지 말어.」

「아녜요, 저희 학생부가 탐정이 되여 찾겠어요.」

「어허 괜찮다니까 그래. 오늘은 일찍 문닫을 참이니까 어여 태권도장이나 가 봐.」

이층 체육관으로 들어서는 두칠이의 마음은 어둡고 무겁기만 했다. 마악 학생부 수련이 끝나고 도복을 정리하던 부원들이 두칠이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고 의아해 했다.

「무슨일 있었지?」

고운이가 낌새를 맡았는지 쪼르르 달려와 두칠이에게 물었다.

「넌 알거 없어.」

「피! 미련하다구 할아버지한테 또 꾸중들었구나.」

퉁명스럽게 내뱉는 두칠이의 말을 묵살이라도 하듯 고운이가 비아거렸다.

「그게 아니란 말야.」

「아니면?」

두칠이는 고운이의 말을 비키며 학생부 부원들을 모이게 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제서야 고운이도 미안한 듯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 도둑놈 잡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정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우리가 무슨 수사할 권한이 있니?」

준태가 나섰다.

「맞아 우리가 어떻게 잡니? 파출소에 신고나 하는 거지.」

고운이가 준태의 말을 거들었다.

「넌 여자니까 안되겠거든 빠져!」

두칠이가 역양을 높혀 고운이의 말을 묵살했다.

「뭐라구? 여자라구 무시해. 수사반장에서도 여자가 있더라.」

샐죽한 표정으로 고운이가 두칠이를 향해 쏘아댔다.

「우린 공부하기도 바쁜데 학생신분으로 어떻게 도둑놈을 잡으러 다니니? 차라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침묵을 지키던 병일이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얼마간 이렇쿵 저렇쿵 떠들다가 각자가 주변을 관찰하는, 이를테면 조용한 수사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만화가게에 자주오는 녀석중에서 갑자기 돈을 잘 쓰는 녀석을 파악하여 뒷조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다.

학생부 운동이 시작되어 준비운동이 끝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갔을 때였다.

고운이가 준태의 동생 준준이를 끌다시피 체육관으로 들어섰다. 국민학교 사학년짜리 준준이는 버둥거리듯 몸을 뒤틀며 고운이의 손에 떼밀리듯이 팔려 들어왔다.

「너 바로 말해!」

고운이의 앙칼진 음성에 학생부 모두는 시선이 집중되었다.

「왜그래 누나?」

울상이 되어 고운이의 손에 잡혀있는 준준이는 체육관 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형 준태를 찾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준태는 당번이 되어 만화가게로 내려가고 없었다.

「너 이 비싼 비행기하고 로버트 어디서 났어?」

고운이가 다구치듯 물었다.

「이거 산거야.」

「어떻게 샀느냐니까?」

그제서야 부원들은 고운이와 준준이를 향해 빙둘러 모였다.

「준준아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테니까.」

두칠이가 준준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물었다.

「형, 뭘 솔직히 말하라는 거야?」

사슴처럼 순진한 눈망울엔 어느새 눈물이 그들먹했다. 하지만 그 눈망울은 겁에 질려 있거나 아니면 공포에 휩싸인 그런 눈망울이 아니고 개구장이 철부지의 순득하기만 한 그런 눈망울이었다.

「너 돈이 어디서 났지?」

병일기가 나즉히 물었다.

「내 돼지 저금통을 털었어.」

울먹울먹 준준이가 말했다.

「거짓말 해도 소용없어. 짜식 바로 말해!」

정구가 우악스럽게 준준이의 말을 묵살했다.

「왜그래!… 흐흑」

준준이는 발악하듯 소리치더니 울음을 터트리며 흐느꼈다.

그때였다.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도사범이 체육관으로 들어섰다.

「뭐야? 왜들 그래?」

웅성거리는 분위기가 무슨 일이라도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도사범은 그들을 향해 약간 언성을 높혀 물었다.

「……」

누구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한창 운동시간일텐데 뭣들 하는 거야. 엉? 또 무슨 말썽을 저지른 거야.」

「아무 것도 아니예요.」

정구가 나서며 우물댔다.

「앤, 준태동생아냐?」

그제서야 울먹이고 있는 준준이를 발견하고 도사범이 물었다.

「사범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운이가 도사범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고운이의 말을 대충 정리해 들은 도사범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심각하게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말하기 바란다.」

그때였다. 체육관 문이 벌컥 열리며 정영감이 숨이 턱에 차서 들어섰다.

「아이크, 늙으면 죽어야 돼. 잠깐, 잠깐… 돈 찾았어!」

「네에?!」

일동은 모두 놀라는 표정으로 정영감쪽으로 시선이 쏠렸다.

「그참, 내가 망령이 들렸지. 돈을 쪼끼 주머니에 넣어둔 걸 깜빡했지.」

「전부 정열해!」

도사범이 명령하듯 말하자 부원들은 운동하는 대열로 늘어섰다.

「합부로 속단하여 어린 준준이를 도둑으로 몰아부친 것은 너희 모두의 잘못이야. 모두 엎드렷!」

도사범의 호령이 떨어지자 모두는 한동작에 엎드려 뻗쳤다. 순간, 겸연쩍은 표정으로 엉거주춤하게서 있던 정영감이 입을 열었다.

「사범, 모든게 나 때문인데 용서하지 내 그 대신 태권도를 배울테니까…」

정영감은 벽에 걸어둔 도복을 내려 탈의실로 들어갔다. 도사범은 부원들을 다시 정렬시켰다.

하얀 도복으로 갈아 입은 정영감이 엉성하게 대열맨 뒤에 와서 붙었다.

도사범과 부원들은 터지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다.

마침 좀 전부터 내리던 하얀 눈발들이 천하체육관 유리창 밖으로 춤추듯 펄펄 내리고 있었다.

「차렷! 준비. 주춤세 지르기 시작!」

도사범의 우렁찬 구령소리와 함께 힘찬 기압소리가 터졌고, 하얀 눈발과 어우러진 하얀 도복들이 천하체육관의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특집 I

제8회 세계 태권도 제1회 세계 여자

전 세계태권도 회원국들이 태권도를 통하여 세계의 평화에 앞장서며 기량을 겨루어 태권도의 발전을 도모해 온 세계 선수권대회가 1973년도에 창설한 이래 제8회 대회를 맞게 되었고 사상 처음으로 여자부 경기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제1회 세계 여자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 팔라우 무니시팔(PALAU MUNICIPAL DESPORTS) 경기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남자대표팀이 8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음은 물론, 여자대표팀도 처녀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여 종주국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선수권 대회 및 태권도 선수권 대회

1.대회개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괄라우 무니시팡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스페인태권도연맹 주최 세계태권도연맹 주관으로 남자 56개국 여자3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세계선수권대회에는 전세계 태권도회원국 남녀국가대표선수들이 출전해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에 의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한국선수단은 남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남자대표팀 임원4명, 선수8명, 여자대표 임원2명 선수8명 등 총 22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 한국선수단 임원 및 선수

직위	남자선수단		여자선수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단장	김성태	강원도태권도협회장		
감독	김용서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부의장		
코치	유병호	대한태권도협회선수 강화분과부위원장	김영인	청산여상코치
트레이너	이계승	대전체육고교코치	강중식	제주도태권도협회 총무이사
핀급	임성욱	계명대학교1년	장이숙	청산여상3년
플라이급	강창모	동성고등학교3년	이영	경희대학교1년
밴텀급	유명식	한국체육대학3년	배은정	성신여자대학1년
페더급	정승환	지하철공사	김소영	성신여자대학3년
라이트급	양대승	한국체육대학1년	이은영	경희대학교2년
웰터급	성국현	지하철공사	김지숙	경희대학교3년
미들급	이계행	조선대학교대학원	김현희	경희대학교2년
헤비급	고영철	대한유도학교조교	장윤정	명지대학교4년

세계선수권대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어 그동안 7회 대회를 치루어 오면서 제5회 대회부터 50개국이상이 출전하여 다른 경기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에 비하여 가장 많은 출전국과 대규모 선수단이 파견되어 대규모 국제대회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번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는 특히 지금까지 시범및 친선경기로 열렸던 세계여자태권도 대회가 국내외 여자태권도 인구의 급증추세에 발맞추어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정식 창설되어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 역대대회 개최현황 및 8회대회전적

회수	년도	개 최 지	참가국수	참가자수	성 적
1	1973. 5.25~27	한국 서울 국기원	19	200	1위 : 한국 2위 : 미국 3위 : 자유중국멕시코
2	1975. 8.28~31	한국 서울 국기원 장충체육관	30	256	1위 : 한국 2위 : 자유중국 3위 : 멕시코, 서독
3	1977. 9.15~17	미국시카고 엠피더어터 극장	46	350	1위 : 한국 2위 : 자유중국 3위 : 미국
4	1979. 10.26 ~28	서독스루트가르트시 신델핑겐 경기장	38	453	1위 : 한국 2위 : 멕시코 3위 : 서독
5	1982. 2.24~27	베루아돌 과이야뒬시 세라도체육관	54	500	1위 : 한국 2위 : 에루아돌 3위 : 서독
6	1983. 10.20 ~23	덴마크 코펜하진 브론드비할렌체육관	51	542	1위 : 한국 2위 : 스페인 3위 : 터어키
7	1985. 9.4~5	한국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65	506	1위 : 한국 2위 : 아이보리코스트 3위 : 터어키
8	1987. 10.7~11	스페인바로셀로나 팔라우루니시광 경기장	남52 여31	292 142	남자 1위 : 한국 2위 : 스페인 3위 : 미국 여자 1위 : 한국 2위 : 대만 3위 : 스페인

이번 대회전적은 종합점수제를 채택하여 남자부가 금6개를 차지한 한국이 종합1위, 은5개를 차지한 스페인이 2위, 은1동4을 차지한 미국이 3위를 차지했고 여자부는 종합1위가 한국(금3은2동1), 2위가 대만(금1은3동3), 3위는 스페인(금1은1동3)이 차지했다.

종합순위 : 종합점수제 채택

남자 : 1위 한국(금6)
2위 스페인(은5)
3위 미국(은1, 동4)

여자 : 1위 한국(금3, 은2, 동1)
2위 대만(금1, 은3, 동3)
3위 스페인(금1, 은1, 동3)

각국 메달 획득 현황

● 남 자 부

순위	국 명	금	은	동
1	한국	6	0	0
2	Spain	0	3	2
3	Germany	1	0	1
4	Chinese Taipei	1	0	1
5	U.S.A	0	1	4
6	Mexico	0	2	0
7	Turkey	0	1	1
8	Indonesia	0	1	0
9	France	0	0	1
10	Jordan	0	0	1
11	Switzerland	0	0	1
12	Australia	0	0	1
13	Italy	0	0	1
14	Cote Dwoire	0	0	1
15	Nepal	0	0	1
계		8	8	16

● 여 자 부

순위	국 명	금	은	동
1	한국	3	2	1
2	Chinese Taipei	1	3	3
3	Spain	1	1	3
4	U.S.A	1	1	3
5	Netherlands	1		1
6	Turkey	1		1
7	Mexico		1	1
8	Germany			1
9	Canada			1
10	France			1
11	Denmark			1
계		8	8	16

2. 대회참가에 따른 효과

①경기기술면에서는 평소 연마해온 기술과 체력을 최대한 발휘하였다고 본다. 다변화되어가는 국제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는 트레이닝의 전문성이 요청되고 장기적 선수관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남녀대표팀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개선했다.

전두환대통령 축전

전두환대통령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하며 종주국의 영예를 빛냈음은 물론 국위를 선양한 임원 및 선수단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축전을 김성태단장 앞으로 보내 왔다.

및 대외정보의 충분한 분석, 종합, 적응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②스포츠외교면에서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88서울올림픽 시범경기로 채택된 태권도경기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킬뿐 아니라 본 대회가 개최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가 1992년 제25회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태권도의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을 위한 노력에도 기여하였고 본다.

③대회운영경험축적면에서 대규모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대규모 인적, 물적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접경험을 습득함으로써 89년도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개최국으로서의 보다 나은 대회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④기타효과로는 지역별 대륙간 태권도대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 스페인교민의 사기앙양 및 외국인태권도수련생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기

한국남자대표코치 유병호

제8회 세계 태권도선수권 대회겸 제1회 세계여자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1987년 10월 7~11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르나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남자 52개국과 여자 3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여기서 한국은 남자 금메달6개로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여자 역시 금3 은1 동1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다.

우리 대표팀은 출국전 9월1일~26일까지 장기합숙에 들어가 맹훈련 및 체중조절과 컨디션을 조정하면서 선수단의 단합과 필승을 다졌다.

10월 2일 협회 임원 및 많은 태권도인들의 전송을 받으며 KE901기에 올랐다. 출발 8시간만에 엥커리지에 잠시 들려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파리를 거쳐 무려 23시간만에 스페인 바로셀르나 공항에 도착했다. 10월 3일 아데나스 호텔에 여장을 풀고 피로와 긴장감에 지친 몸을 달랬다. 이어 저녁 선수단 모임에서 김성태단장은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종주국 태권도인으로서 외국 선수들의 모범이 되도록 모든 행동에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10월4일~6일

새벽 6시 30분에 기상해서 훈련에 들어갔다. 선수들은 피로와 긴장감이 덜 풀려선지 활기를 찾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차에도 적응하며 활기를 찾았다.오후 훈련때는 화이팅 넘치는 훈련과 외국선수에 대비한 전술을 지도에 따라 열심히 임하는 등 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에 만전을 기했다.

10월 7일

드디어 대회가 개막되었다. 대회 첫날인 이날은 밴텀급 유명식 선수의 경기가 열렸다. 유명식 선수는 예선 1회전에 요르단의 라바비디(LABABIDI) 선수를 K.O승으로 누르는 등 차례로 강호들을 물리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터어키의 베츠(BEZCH)선수와 맞붙어 다소 게임이 풀리지 않는 듯 했으나 강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승리하여 한국에 첫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10월 8일

대회 둘째 날인 이날은 플라이급 강창모선수와 헤비급 고영철선수의 경기가 이어졌다.

플라이급의 강창모 선수는 국제대회 처녀 출전 선수답지 않게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독일의 에스테베스(ESTEBES)선수를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라 이태리의 디콘스탄죠(DICONSTANZO)선수를 맞이

미들급 1위를 차지한 이계행선수.

경기가 펼쳐진 바르셀로나의 무니시팔체육관

하여 앞발 밀어차기로 360도 회전 뒤차기등 묘기 동작으로 상대선수를 완전히 제압, 승리로 이끌었다. 결승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세티아만(B.SETIAMAN)선수를 무난히 이기고 한국에 두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헤비급의 고영철선수는 예선 1차전을 돌려차기와 들어찍기등 기술로 득점하여 2차전에 올랐으나 2차전에서는 미국의 한국계 지미(JIMY KIM)선수와 맞붙어 360도 뒤차기와 돌려차기로 득점을 뽑아내는 등 월드게임 때의 패배를 설욕하는가 싶더니 승리의 화신은 고선수를 외면한체 미국 지미 선수에게 판정승을 선언했다.

10월 9일

대회 3일째인 이날은 핀급의 임성욱선수와 웰터급 정국현 선수의 경기가 열렸다. 핀급 임성욱선수는 예선 첫 게임에 스페인의 아조프라(AZOFRA) 선수와의 대전에서 자국 관중들의 일방적인 응원과 함성에도 굴하지 않고 판정승을 거두었고 준결승 때는 국제 대회의 경험이 많은 미국의 이대성선수를 맞이하여 2 회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왼발 앞발 얼굴 차기로 득점, 카운터를 세는 등 우세한 경기를 펼쳐 승리하였다. 결승은 멕시코의 토로엘라(TORROELLA)선수와 대전하여 역시 침착하게 기술을 발휘하며 경기를 운영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웰터급의 정국현 선수는 많은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예선을 무난히 통과하였다. 특히 준결승때는 오른발 뒤후리기로 K.O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묘기동작과 고도의 기술로 스페인의 우리츠트(WRICHT)를 제압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세계대회 4연패의 신기록을 세우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이날은 한국 선수단이 종합성적1위로 대회 8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날이기도 했다.

10월 10일

넷째날엔 페더급의 정승환 선수와 미들급의 이계행 선수의 경기가 있었다. 페더급의 정승환 선수는 1회전에서는 스웨덴의 돔비아(DOMBIA)선수와 대전중 마음의부담이 컸는지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해 관계자들의 마음을 조이게 했다. 예선 2차전 때는 정상의 컨디션을 되찾아 프랑스의 크리엘레트(CRIEAILLET)선수를 앞발 들어 찍기와 돌려차기 더블로 득점, 8강에 올랐다. 8강에선 터어키의 엘마리(ELMARI)선수와 맞붙어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었으나 판정에 패하는 쓰라림을 맛보았다. 미들급의 이계행 선수는 '86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의 주인공답게 노련하고 월등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였다. 특히 준결승전에선 이태리의 로메트(ROMET)선수를 뒤차기를 받아 차 K.O승을 거두는 등 나머지 게임을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여 우승, 한국에 다섯번째 금메달을 추가했다.

10월 11일

대회 최종일에는 라이트급 양대승 선수의 대전이 펼쳐져 예선 1차전에는 대만의 트성체(TSUNG CHE)선수를 맞이하여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 묘기 발차기 등의 기술을 발휘하여 여유있게 승리하였다. 이어 요르단, 터어키 선수를 차례로 물리치고 준결승전에 올라 케퍼넬(CEPENER) 선수의 기권으로 쉽게 결승에 올랐고, 결승에선 스페인의 토토사(TORTOSA)선수를 맞아 돌려차기, 뒷차기등 다양한기술을 자유자제로 구사하면서 승리로 이끌어 한국 선수단에 6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이로써 한국은 금메달6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다.

경기 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선수단은 3박4일 간의 파리관광을 즐기며 쌓인 피로를 풀고 드골 공항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엥커리지를 거쳐 16일오후 4시30분에 KE 902편으로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으로 개선하기까지 강화훈련중 찾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많은 태권도인들과 대회기간중에 스페인의 교민회장 및 임원 그리고 수십명의 한국사범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

입상자 명단

핀급
1위 : 임성욱(한국)
2위 : TORROELLA(Mexico)
3위 : Lee Dae Sung(U.S.A)
LAMA(NEPAL)

플라이급
1위 : 강창모(한국)
2위 : SETIAMAN(Indonesia)
3위 : BATHILY(Ivory Coast)
DICONSTANZO(Italy)

밴탐급
1위 : 유명식(한국)
2위 : BEZCH(Turkey)
3위 : DAMASO(Switzerland)
DELLIORSO(Australia)

페더급
1위 : CHIAN－HSIANG(Chinese Taipei)
2위 : TORNEP(Spain)
3위 : ELMALI(Turkey)
SPENCE(U.S.A)

라이트급
1위 : 양대승(한국)
2위 : TORTOSA(Spain)
3위 : CEPENER(U.S.A)
STRELF(Germany)

웰터급
1위 : 정국현(한국)
2위 : WRIGHT(Spain)
3위 : TORSTEN(Germany)
WARWICK(U.S.A)

미들급
1위 : 이계행(한국)
2위 : JIMENEZ(Spain)
3위 : BEREZ(U.S.A)
SBEIHI(Jordan)

헤비급
1위 : ARNDT(Germany)
2위 : Kim Jimy(U.S.A)
3위 : EOUKROULI(France)
MEDINA(Spain)

▲ 콩고 체육장관겸 I. O. C 위원인 진클라우드 강하씨가 김운용 총재를 예방환담(87. 9. 25)
Mr. Jean Claude Ganga, Sports Minister / IOC Member of Peoples Republic of Congo, visited Dr. Un Yong Kim, WTF President / IOC Member, at his office in SLOOC. (25 September, 1987)

초점

▶ Mr. 이반디보스 페루 I. O. C 위원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하는 김총재(87. 11. 4)
Mr. Ivan Dibos, IOC Member from Peru, receives the WTF Honorary Membership Certificate from Dr. Un Yong Kim. (4 Nov., '87)

'88 서울올림픽
초청장 발송식
1987. 9. 17 스위스 로잔 I.O.C본부

'88 서울올림픽을 1년 앞둔 지난 9월 17일 스위스 로잔 I·O·C본부에서 거행한 88서울올림픽 초청장 발송식에 참석한 사마란치 I.O.C 위원장, 김운용 I·O·C위원, 박세직 SLOOC 위원장, 김종하 체육회장(左) 등이 참석하여 전 세계 167개국에 초청장을 발송했다.

Dr. Un Yong Kim attended the Forwarding Ceremony of Invitations to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which was held at the IOC Headquarters in Lausanne on 17 September, 1987 just one year prior to the opening of the Games. Invitations were sent out to 167 countries around the world. (Center: H. E. Mr. Samaranch, to his left: Mr. Park, Seh-Jik, President, SLOOC, far left: Mr. Kim, Chong Ha.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GAISF)

1987. 10. 15~17일

콜로라도 스프링즈(미 올림픽 위원회 본부)에서 GAISF집행위원을 대동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김운용 GAISF 회장. (주제 : 스포츠와 교육)

Dr. Un Yong Kim, President GAISF / IOC Member, presides over the GAISF General Assembly in Colorado Springs, U.S.A., 17 October, 1987.

1987년도

전국우수선수 선발대회

11. 4 ~ 6. 국 기 원

◀ 스피드와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며 국가대표 선수 등, 많은 언니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건 원선진(수성여중 3년) 선수는 88년 올림픽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기대를 모았다.

▶ 올 한해동안 태권도 경기의 준비 및 운영에 수고한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엄운규 부회장. (김장일 심판분과 위원이 공로패를 받고 있다.)

▲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유명식 선수와 지도상을 수상한 허용성(한체대)코치, 사제가 함께 수상을 ……

▲ 최우수 여자선수상을 받은 김소영 선수는 제1회 세계대회의 금메달 리스트이기도 하다.

▲ '87년도 영예의 우수선수가 된 건아들.

▲ '87년도 영예의 우수선수가 된 낭자들.

제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 태권도 선수권대회

VIII WORLD CHAMPIONSHIPS
CAMPEONATO DEL MUNDO -
CAMPIONAT DEL MON
7 – 11 OCTUBRE 1987
PALAU MUNCIPAL D'ESPORTS

FEMALE
FEMENINO
FEMENI

10. 7~11.

스페인 바르셀로나

BARCELONA

▶ 10월 6일 개최된 세계연맹집행위원회에서는 연맹규약개정안심의, 경기 규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회의를 주재하는 김운용총재)

At the WTF Executive Council meeting held on 6 October, 1987, amendment of WTF Rules and Regulations was deliberated, and the Ad Hoc Committee for amendment of the Competition Rules was established.

▼ 스페인 태권 어린이들에 의해 대회기 및 각국의 팻말을 들고 입장. 남·녀 노소를 막론한 세계인이 즐기는 태권도를 입증하였다.

Opening Ceremony: Spanish junior Taekwondoists served as banner bearers at the ceremony.

◀ 한국선수단 김성태단장이 우승컵을 치켜들고 8연패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Chief Delegate of the Korean Team Mr. Kim, Seong Tae holds high the 1st place Trophy with rejoicing of eighth consecutive victory in the World Championships.

▶ 본대회에서 외국선수들은 월등한 신장과 체력으로 과감한 공격력을 보여주었다. 증주국인 우리는 적극적인 정보수집은 물론 난이도 높은 기술개발로 이들의 도전을 대비 하여야 할 것이다.

During the Championships the competitors from other countries have displayed very aggresive offensives by taking advantages of taller hights and superior physical strength. Korean players need to develop better high standard of techniques.

▲ 고교선수로 처녀출전한 강창모(플라이급, 동성고 3년) 선수가 패기와 뛰어난 기술로 패권을 차지했다.

Mr. Kang, Chang Mo, a highschool senior, who participated in the World Championships for the first time won the gold medal in the flyweight class with agressive and highly technical skills.

▲ 세계대회에 여자부가 신설되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금 3, 은 2, 동 1로 종합우승을 차지 했다(페더급 우승자 김소영 선수).

In the World Championships the Women's World Championships were newly inaugurated. Korean Women's Team won the 1st Place by attaining 3 golds, 2 Silvers and 1 Bronze medals. (Miss Kim, So Yeong, gold medalist in featherweight)

유럽순회 태권도시범

9월28일~10월11일

–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

TAEKWONDO DEMONSTRATION TOUR IN EUROPE
(Kukkiwon Demonstration Team, National Taekwondo Team) from 28 September to 11 October, 1987
– Switzerland, Austria, Spain –

▲ 유럽순회 시범단 홍종수(국기원부원장) 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며 격려하는 김운용총재.
Dr. Un Yong Kim, WTF President, hands over th Flag to Mr. Hong, Chong Soo, Chief Delegate of t demonstration team and encouraged him for su performance of the mission.

▼ 공중3방 격파의 묘기를 보여주는 시범단원 (스위스 로잔에서)
A demonstration member exhibits the technique of destroying three folds of target plates by jumping front kicks.

▲ 스위스 로잔에서 사마잔치 I.O.C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김운용 총재.
Dr. Un Yong Kim, WTF President, presents a plaque of appreciation to H. E. Juan Antonio Samaranch, IOC President, in Lausanne, Switzerland.

▲ 태권도 시범의 정수를 I.O.C 위원 20여명과 많은 체육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으며, 승패와 관계없이 진행된 태권도 경기시범 또한 스포츠로서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The excellent high standard of traditional Taekwondo techniques were successfully exhibited in the presence of more than 20 IOC members and sport officials, and some Taekwondo competition demonstrations were also fully displayed as a very dynamic modern sport.

▼ 스위스 로잔에서 시범을 마치고 I.O.C 본부 본관 앞에서 사마란치 I.O.C 위원장, 김운용 총재, 시범단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념촬영(92년도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의 터전이 되었으리라-)
H. E. Juan Antonio Samaranch, IOC President, and Dr. Un Yong Kim, WTF President, pose with all members of the WTF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in front of the new IOC Headquarters building.

제2회 국제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II CISM TAEKWONDO CHAMPIONSHIPS
25 OCT – 1 NOV 1987
SEOUL, KOREA

المجلس الدولي للرياضة العسكرية

◀ 경기 개최를 위한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와 참가국 임원들.

Chief Delegates and officials of participating teams with CISM Representative Colonel Herzog and official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 개회식에서 한국 국군체육부대의 김병수선수가 대표선서를 하였다.

At the opening ceremony, Sgt. Kim, Byung Soo, a member of the Korean team from the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is taking the Player's Oath for fair play representing all the participants.

▲ 김운용총재가 마련한 만찬(신라호텔)에서 각국의 선수단은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Scene of dinner party hosted by Dr. Un Yong Kim, WTF President, for the officials and players participated in the championships. Here all participants exchanged their friendship and become closer friends.

▲ CISM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국기원을 예방 태권도의 제반사항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

Chief of delegates of the participating teams made a visit to Dr. Un Yong Kim, WTF President, at the Kukkiwon and were briefed on the general situation of World Taekwondo today.

◀ 인종을 초월하여 우의를 다지는 각국선수들은 스포츠맨쉽에 입각하여 선전하였다.

Competitors fought with good sportsmanship and fair play spirit overcoming race and nationality.

▼ 한국의 상무팀은 종주국 선수들답게 다양한 기술을 펼치며 7 체급을 석권했다 (김준태선수의 시상 모습).

Korean athletes won gold medals in seven weight divisions having shown various techniques to keep prestige of players from the Taekwondo suzerain state.

▼ 프랑스의 필리페 선수가 라이트급에서 패권을 차지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자 CISM총재와 공식대표가 함께 나와 축하를 보내고 있다.

Mr. Bouedo Philippe of France won Gold Medal in the lightweight division and congratulated by the CISM President General Duguet and Colonel Herzog, CISM Representative.

제68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10. 14~17. 광주일고체육관

새힘,

새날,

새빛

▲ 종합우승 서울특별시, 2위 광주직할시, 3위 전남.

▲ 대체적으로 기량이 향상되어 경기장의 열기는 갈수록 고조되었다.

▶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각시도 선수단 대표자회의 본 대회는 재일, 재미, 재브라질 등 해외동포선수단을 포함 17개 팀에서 449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합토의 명예를 빛냈다.

▲김주훈 광주 협회장이 시상을 하고 있다.

▲ 헤비급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

▼ 광주직할시 승격을 경축하는 뜻에서 유치한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시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광주협회 임원과 선수들.

1987년도

전국추계종별 선수권 대회

9.21~26. 국 기 원

▲ 폐회식에서 입상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격려하는 김운용 회장.

▲ 최근 태권도 명문고로 부상하는 한성고의 심상일 선수가 선수대표 선서를 하였다.

▶ 신인선수들의 등용문인 본대회에 857명이 출전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여 폭넓은 선수발굴이 이루워 졌다.

▶ 내일의 국가대표 선수를 향한 1차관문을 통과한 고등부의 신예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꿈의나래를 펴고 있다.

제13회 연맹회장기 타기 전국 국민 학교 태권도대회

11. 1. 국 기 원

▲ 태권도 꿈나무들이 87년을 마무리짓는 본대회에서 서울 광희국민학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해 서영준 대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수상하였다.

▲ 최고의 강자는 내가 되어야지 — 혼신의 힘을 쏟는 꿈나무들……

▲ 작전을 지시하는 사범과 이를 진지하게 듣는 선수의 모습은 다정해 보이기까지…

◀ 국교연맹의 서영준 회장을 비롯한 국교연맹위원과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광희국교 선수들.

제10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항 태권도대회

11. 14~15. 국 기 원

▲ 김한주 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체력과 기술, 정신력을 겸비한 지성인의 면모를 강조 ……

▲ 동아대학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우승의 길을 열었다. (김우규 코치가 우승기를 수상하고 있다.)

▲ 대학선수들의 등용문이며 각 대학의 명예를 짊어진 격전장으로서 각체급마다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 각 체급의 남, 여 우승자들.

우리는 올림픽국민

인류의 화합과 전진의 제전

서울올림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민족사적 과제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슬기와 정성을 한데 모아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범세계적인 화합을 이루며
인류가 행복과 번영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크나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읍니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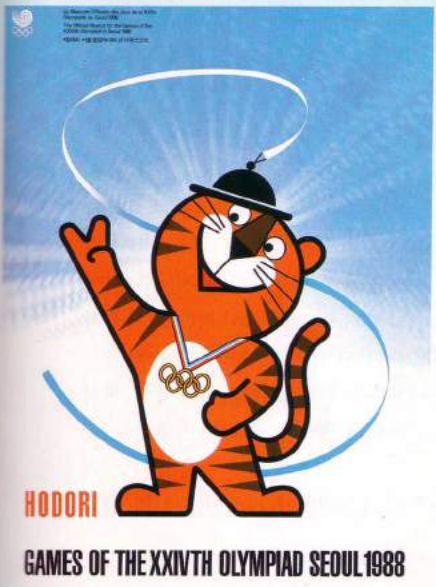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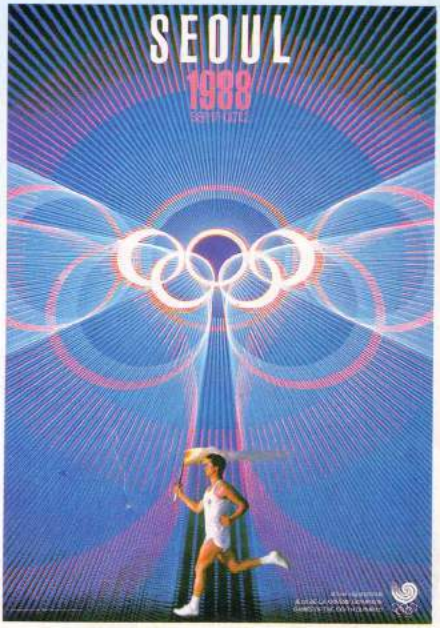
1988. 9. 17 (토) ~ 10. 2 (일)

서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 경기종목
  - 정식종목 : 23개 (237개 세부종목)
  - 시범종목 : 2개 (야구, 태권도)
  - 시범경기 : 1개 (여자유도)
  - 전시종목 : 2개 (보울링, 배드민턴)
- 개최장소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 부산





1987년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11. 4~6. 국기원

김 영 삼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위원장

1987년도 한해동안 각종 전국규모대회의 입상자들만이 참가해서 명실공히 '87년도의 최우수선수를 선발하는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가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남자부는 고등·대학 및 일반부에 한해 8체급 경기가 펼쳐졌으며 여자부는 만 14세 이상인 자에 한해 출전해 참가선수는 남자부 197명, 여자부 61명등 총 258명이 출전하였다.

이번 대회의 남자부 각 체급 1위 입상자에 대해서는 '88년도 한국대표선수선발대회 최종전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는 중요한 대회로 '88서울올림픽 태권도 대회의 출전티켓을 따내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대회의 우승을 향한 출전선수들의 각오와 열의는 대단한 것이었다.

11월 4일

대회 첫날 경기는 남자부 핀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1차예선전과 여자부 핀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8강전이 치루어져 여자부는 메달권 입상자가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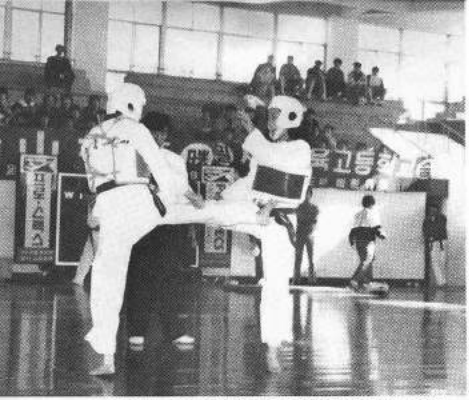
남자부 핀급 1차예선전에서 성동고의 박진선수는 1회전에 신탄진고의 윤희준선수에게 기권하였고 플라이급에서는 심무진(한체대)선수가 1회전 시작과 동시에 전 국가대표인 김준태(상무)선수를 앞들어 차기로 강타하고 넘어뜨려 기선을 잡고 승리로 이끌었다.

밴텀급 예선전에서 전대식(리라공고)선수는 최근철(풍생고)선수를 맞아 1회전에 우세, 2회전에 득점을 얻는 등 승리하고 16강전에 올랐다.

동성고의 서대원선수와 한체대의 오영주선수의 대전은 1회전 초반에 오영주선수가 발목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되자 의사가 경기불능이라고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것을 고집해 테이핑한후 경기를 계속했는데 선수보호의 측면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경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여자부 예선전 및 8강전 경기에서는 플라이급에 출전해 문산종고의 장복순선수를 누르고 판정승을 거둔 성일여상의 신보영선수가 4강에 선착했다.

밴텀급 예선전에서는 전 국가대표인 경희대의 박선영 선수가 청산여상의 강희숙선수를 맞아 2회 중반에 가볍게 기권승을 거두고 8강전에 올라 영북종고의 박현순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메달권에 진입했다.



본 대회는 '88 서울올림픽 출전티켓을 따내기 위한 전초전이기도 해 선수들의 열의가 대단했다.

라이트급 예선전에서는 경기운영면에서 노련함을 보이며 1회전에 2득점이나 올린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이은영(경희대)선수가 이선희(상인천여중)선수를 누르고 4강에 진출했다.

11월 5일

대회 이틀째 경기가 펼쳐진 11월 5일은 남자부 8체급 8강전과 여자부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경기가 펼쳐져 메달권이 확정되었다.

남자부 플라이급 16강전에서 서울체고의 신예 하태경선수는 유도대의 홍용식선수를 맞아 1회전에 2득점이나 올리며 가볍게 승리한후 8강전에 진출했다.

페더급 16강전에서 국가대표 정승환(지하철공사)선수와 김병철(한체대)선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막상막하의 대전을 펼치다 3회전에 계속 밀어붙인 김병철선수가 우세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헤비급 예선전에서 박희석(성동고)선수가 홍윤기(리라공고)선수를 맞아 1회전에 정확한 뒤돌려차기를 성공시켜 득점을 얻은 뒤 2,3회전에 우세판정을 받고 8강전에 진출했다.

이어 벌어진 남자부 8강전에서 핀급의 강윤식(풍생고)선수는 노철호(한성고)선수를 맞아 득점과 우세로 판정승을 거두고 4강전에 돌입했다.

플라이급 8강전에서 안용식(풍생고)선수는 전 국가대표선수인 인해진(한체대)선수를 맞아 1,2회전에 우세한 경기로 우세판정을 받았으나 3회전에 노련한 인해진선수가 득점을 빼내며 역전승을 거두었다.

밴텀급 8강전에서는 김춘기(성동고)선수와 양정석(서울체고)선수가 메달권 진입을 놓고 선전했는데 1:4라는 득점차로 양정석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입했다.

한편 미들급 8강전에서 이홍수(한성고)선수와 이용종(중리체육관)선수의 대전은 그 어느 경기보다도 막상막하의 대전을 벌여 승리를 점칠 수 없었는데 2회전을 마쳤을 때 전광판의 득점상황은 2:2동점에 우세판정을 각각 받아 완전 동점을 이루고 있었는데 결국 3회전에 이용종선수에게 우세판정이 돌아갔다.

여자부 경기는 웰터급, 미들급 4강전에 확정되었는데 웰터급에서 성신여대의 김유숙선수와 이화여대의 오현주선수, 경희대의 김지숙선수가 4강전에 올랐고 미들급에서 청산여상의 장철선수가 문성여상의 양인덕선수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11월 6일

대회 마지막 날인 11월 6일의 경기는 남녀 준결승과 결승전이 있었다.

여자부는 핀급 준결승에 올라온 이화진(청산여상)선수와 원선진(수성여중)선수의 대전은 1회전에 1:1동점에 이 선수의 우세, 2회전에 원선진선수의 득점으로 앞선 가운데 3회전에 다시 두선수다 1득점을 올리며 여자부선수 중에서는 가장 화이팅 넘친 경기를 펼친 가운데 원선진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다.

밴텀급 준결승전에서 경희대의 박선영선수는 청산여상의 손미경선수를 맞아 2회전에 무려 3득점이나 올리는 선전으로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올랐다.

페더급 준결승전에서 곽선미(청산여상)선수는 모미라(선신여대)선수에게 기권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올랐다.

남자부 준결승전에서 플라이급의 하태경(서울체고)선수와 인해진(한체대)선수가 올라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1회전에 하태경선수가 2득점을 올리는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자 2회전에는 이를 만회하려는 인선수의 선방으로 우세판정을 받았으나 3회전에 점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부상당하자 하태경선수에게 주심직권승이 주어졌다.

올해의 각 체급별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게될 우수선수선발전의 결승전은 가장 좋은 기량을 발휘하

며 올라온 체급별 최강자들의 대전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전이었다.

남자부 결승전 핀급 경기서부터 불꽃튀는 접전이 계속되었는데 풍생고의 강윤식선수와 경남체고의 장종원선수의 대전은 1회전에 각각 득점을 올리며 강선수가 우세판정을 받았으나 2회전에 장선수가 득점을 추가했다. 3회전에는 다시 강선수에게 우세판정이 내려졌으나 득점면에서 1:2로 앞선 장동원선수가 핀급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다.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서울체고의 하태경선수와 계명대의 임성욱선수의 대전으로 고도의 기술을 펼치는 가운데 하태경선수가 스피드를 앞세우며 국가대표인 임성욱선수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어 88대회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의 빅 이벤트로 이목을 집중시킨 경기는 밴텀급에 올라온 동성고 강창모선수와 한국체대 유명식선수의 결승전으로 두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한 체급올려 출전한 강창모선수는 플라이급 국가대표이며 제8회세계선구권대회 플라이급 금메달리스트이고, 유명식선수는 밴텀급 금메달리스트로 막상막하의 경력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나 유명식선수가 우세판정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어 한체급의 벽이 얼마나 멀고 두꺼운가를 실감케 했다.

라이트급 결승전은 한체대의 이창건선수와 양대승선수가 올라와 이창건선수가 1회 기권승을 거두었다.

미들급 결승전의 김종식(원광대)선수와 정용석(한체대)선수의 대전도 2회전을 마치고 2:2동점인 상황에서 3회에 우세판정을 받은 정용석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헤비급 결승전은 성동고의 박희석선수가 경희대의 노신선수를 맞아 1,2회 우세판정과 3회득점으로 승리를 거두어 헤비급선수의 부족현상을 메워주는듯 희망을 주었다.

여자부 결승전은 핀급의 장이숙(청산여상)선수와 원선진(수성여중)선수의 대전으로 여자부의 유망주로 떠오른 원선진선수를 국가대표인 장이숙선수가 어떻게 맞설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게 했으나 원선진선수의 스피드와 저돌적인 공격 기술이 장이숙선수를 확연하게 누르고 승리, 88서울올림픽의 가장 강력한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밴텀급 결승전은 경희대의 박선영선수가 상인천여중의 권혁실선수를 맞아 3:0득점차로 누르고 패권을 차지했다.

페더급 패권은 국가대표 선수이며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최초의 금메달을 따낸 성신여대의 김소영선수가 청산여상의 곽선미선수로부터 기권승을 거두고 페더급 정상을 확인시켰다.

헤비급 결승전은 이성미(문성여상)선수가 정완숙(성신여대)선수를 맞아 1회전에는 우세했으나 정완숙선수가 3회전에 역전승을 거두며 승리를 장식했다.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유명식선수의 점프 뒷차기공격이 일품이다.

최우수선수상에 유명식, 김소영선수

시상식에서는 남여 체급별 우승자 중에서 남녀 최우수선수상을 수여했는데 남자최우수선수상은 제8회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이며 이번 대회의 밴텀급 참피언인 유명식(한체대)선수가, 여자최우수선수상은 제1회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이며 페더급 참피언인 김소영(성신여대)선수에게 주어졌다.

또한 우수선수를 많이 배출한 지도자상의 영예는 경희대의 최영렬 교수와 한국체대의 하용성코치에게 주어졌다.

한편 올 한해동안 각종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공로가 큰 경기분과위원회 이상언, 배석출위원과 심판분과위원회의 김정대부위원장, 김장일, 한상진위원에게 표창패가 주어졌다.

대회를 마치며

이번 대회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계

체실격자 및 불참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계체실격자 및 불참자가 많은 것은 결국 선수들이 자기 체중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이는 선수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전을 치루게되는 상대선수가 상대적으로 경기를 치루지 않고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되어 이번 대회처럼 전국규모 입상전적 보유자들만이 출전할 경우 출전선수가 많지 않아 운좋게 준결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선수들이 체력전등에서 밀릴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에도 한 요인이 된다고 볼 때 계체불참이나 실격의 문제는 선수본인에게는 물론, 국제경쟁력과도 관계가 밀접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운영에 있어 국내대회의 경우 마지막날 준결승전 및 결승전이 펼쳐지는데 국제대회의 경우 하루에 체급별 예선부터 결승전까지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안배 등에 고전한다고 볼때 국내대회의 운영면에 있어서도 국제대회의 운영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리라 본다.

● 입상선수명단

〈최우수선수상〉

남자 : 유명식(한국체육대학)

여자 : 김소영(성신여자대학교)

〈지 도 상〉

남자부 : 하용성(한국체육대학)

여자부 : 최영렬(경희대학교)

●남 자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장 종 원	경 남 체 고
	2	강 윤 석	풍 생 고
	3	최 기 훈	〃
	3	유 준 열	〃
플라이급	1	하 태 경	서 울 체 고
	2	임 성 욱	계 명 대
	3	인 해 진	한 국 체 대
	3	조 기 현	성 동 고
밴 텀 급	1	유 명 식	한 국 체 대
	2	강 창 모	동 성 고
	3	양 정 석	서 울 체 고
	3		
페 더 급	1	김 병 철	한 국 체 대
	2	윤 만 철	계 명 대
	3	장 혁	서 울 체 고
	3	박 의 성	청 주 신 흥 고
라이트급	1	이 광 로	한 국 체 대
	2	양 대 승	〃
	3	김 찬 구	상 무
	3	이 창 건	한 국 체 대
웰 터 급	1	김 용 수	동 아 대
	2	연 기 호	상 무
	3	김 현 곤	〃
	3	진 정 우	부 산 체 고
미 들 급	1	정 용 석	한 국 체 대
	2	김 종 석	원 광 대 학 원
	3	김 대 형	오 현 고
	3	이 용 종	중 리 체 육 관
헤 비 급	1	박 희 석	성 동 고
	2	노 신	경 희 대
	3	이 정 진	상 무
	3	김 현 일	유 도 대

●여 자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원 선 진	수 성 여 중
	2	장 이 숙	청 산 여 상
	3	이 남 숙	문 성 여 상
	3	이 화 진	청 산 여 상
플라이급	1	신 숙	〃
	2	박 경 숙	서 귀 여 중
	3	추 난 률	청 산 여 상
	3	이 영	경 희 대
밴 텀 급	1	박 선 영	〃
	2	권 혁 신	상 인 천 여 중
	3	손 미 경	청 산 여 중
	3	김 경 애	상 인 천 여 중
페 더 급	1	김 소 영	성 신 여 대
	2	곽 선 미	청 산 여 상
	3	모 미 라	성 신 여 대
	3	노 경 미	문 산 종 고
라이트급	1	이 은 영	경 희 대
	2	이 현 화	청 산 여 상
	3	남 정 동	〃
	3	박 애 란	인 천 체 고
웰 터 급	1	김 지 숙	경 희 대
	2	김 유 숙	성 신 여 대
	3	박 혜 영	인 천 체 고
	3	오 현 주	이 화 여 대
미 들 급	1	김 현 희	경 희 대
	2	장 철	청 산 여 상
	3	김 기 옥	〃
	3	김 용 순	〃
헤 비 급	1	정 완 숙	성 신 여 대
	2	이 성 미	문 성 여 상
	3	고 현 정	청 산 여 상
	3		

"태권도장의 대형화, 고급화 필요"

미국태권도연맹(U.S.T.U)부회장 권덕근 사범

한국인의 발길이 가는 곳마다 태권도가 뿌리내리며 종주국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데 그중 미국태권도연맹(U.S.T.U)은 막강한 추진력과 잠재력을 갖고 미국 태권도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다.

미국에는 육,해,공군 및 51개 주에 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팬암게임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제23회 로스엔젤레스 올림픽대회의 성공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가 미국올림픽 위원회를 통해 미국태권도연맹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태권도연맹은 미국올림픽 위원회가 있는 콜로라도 올림픽선수촌에 소재해 있는데 미국태권도연맹의 권덕근 부회장은 지난 11월 19일과 20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 태권도 연맹 총회에 참석한 뒤 대구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귀국했다.

1970년 10월, 미국에 약사로 취업이민을 떠났다가 약사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해 시카고에 도착해 태권도장을 개설한 이래 줄곧 미국의 태권도보급에 앞장서 온 권덕근 부회장.

현재 시카고에 150평의 대수련장을 운영하고 있는 권덕근사범은

수련도장을 헬스크럽처럼 시설을 완비해 놓아 운동을 통한 신체단련 및 건강증진, 무도로서의 정신세계를 체험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심심단련의 장으로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미국에 있는 도장이 다 고급화되고 시설을 완비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국의 일반도장처럼 마루바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고 운동기구로 간단히 운동하는 도장들이 많으나 시설면에 있어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계속 투자가 뒤따라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태권도를 수련하는 층은 직장에 다니는 성인 30,40대가 가장 많고 여성이 이중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유치부위주의 한국 수련생구성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건강과 휴식을 위해 권덕근 사범이 운영하는 도장의 최고령자로 74살의 노인이 8년째 계속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50대 이후의 노인층에서부터 유치부 어린이까지 수련층이 다양하다고 한다.

이들 각기 다른 수련생들을 위한 헬스기구, 사우나, 라카룸, 운동기기 등 시설의 고급화된 준비는 풍족한 사회의 국민건강센타가 갖추어야할 요건이라며 한국에서도 도장의 대형화 현대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태권도장은 태권도 수련뿐만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범과 수련생이 예의를 갖추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한 태권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미국의 도장에서는 대부분 태권도장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생일날 꽃등을 보내어 같은 일체감을 가족으로서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태권도 수련생 구성비 중 성인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된 선수층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국태권도 연맹에서는 각주대회입상자들이 전국대회에 출전, 2번의 전국규모대회를 통해 국가대표로 선발되므로서 대회경험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고 체력과 기술을 겸비한 훌륭한 선수를 계속 발굴하기 위해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을 여러차례의 전국대회개최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태권도연맹에서는 국가대표를 올림픽선수촌에서 합숙훈련을 통해 계속 기술보강과 체력단련으로 세계의 정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종주국 한국은 이보다 한발 앞선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종주국태권도의 발전이 선행되어야만 해외 사범들의 위치가 격상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태권도가 세계정상을 바라볼날 멀지 않았다"

미국 플로리다주 이기정 사범

미국태권도연맹(U.S.T.U)플로리다주 차기회장('88년 12월)으로 선출된 이기정 사범이 지난 11월 귀국, 한국태권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태권도가 향후 어떻게 세계속에 뿌리내려야 할 것인지 종주국 태권도 사범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진 뒤 출국했다.

미국속의 태권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이기정 사범은 「미국인들은 사범 MASTER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신비감 그래서 두려움마저 뒤범벅이 된 감정으로 굽신거리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사범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열심히 배웁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경시보며 허구와 부조리로 대해서는 않됩니다」라고 했다. 그것은 외국인들에게 있어 태권도는 단지 스포츠의 일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한국인 사범을 칭하는 마스터로서의 인간과 신과의 중간인 초인간, 즉 Superman의 육체적인 힘과 정신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들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무술의 실기에 대한 부단한 수련과 연구개발, 정신적으로 가식과 허위가 없는 보다 인간적인면을 보여야만 한다는 한다는 것이다.

미국사회의 각 계층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태권도 사범의 직업이고 보면 또 그들에게 직접

▲ 미국의 여성유단자에게 단증을 수여하는 이기정 사범

적인 정신적 영향을 끼치는 위치이므로 보다 더 언행일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도로서의 태권도가 세계인의 스포츠로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이와같은 노력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태권도를 지켜나가는 노력은 태권도가 경기스포츠로 각광을 받는가운데서도 계속 지켜나가야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도장수련생이 대부분 유치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 이기정사범이 운영하는 도장에는 성인부가 60~70%를 차지할 뿐더러 이중 여성성인부가 20~25%를 차지하고 있어 성인 남녀선수층이 그만큼 두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남녀평등의 사회인식 속에서 호신술로서 뿐만 아니라 건강스포츠로서 태권도가 인기를 끌고 있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 다른 도장의 경우 남녀비율이 거의 반반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기정사범은 플로리다주에서 4개의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도장에 11월현재 170명, 지관에 각기 70~100명의 수련생이 태권도를 수련, 총 4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제자를 지도하는 태권도 사범의 경우 누구나 자신들이 키운 제자중에 국가대표가 나오길 바라듯이 이기정사범 또한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 중에 미국대표가 나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외에도 「내 회갑잔치는 멋있는 시범을 만인앞에 보여줄 계획으로 나머지 인생을 정진하겠다」는 의지 속에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 사범의 끝없는 자기수련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이기정사범은 한국에 있을 때 광주농고, 조선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후 광주상고, 광주진흥고, 영광고에서 체육교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도 플로리다 교육청으로부터 체육교사자격증을 획득해 스태슨 대학, 버클리대학, 캘리포니아대학에서 태권도 강의를 하며 태권도의 학문적인 이론과 실기를 통하여 한국의 얼을 미국인에게 심고 있다.

광대한 초원의 나라에도 태권도의 함성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김범수 사범

김범수사범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표선수 4명과 함께 국기원을 방문해 김운용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대한 초원의 나라 중앙아프리카에서 우리 한국정부와의 체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김범수사범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4명과 함께 종주국 태권도의 전당인 국기원을 찾았다.

김범수사범은 1981년 11월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태권도사범으로 파견되어 대통령가족, 경호원, 경찰 등에게 태권도 저변확대를 꾀해와 현재 2000여명의 수련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 출국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대사관과 김범수사범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한아주식회사가 현지에 세워져 다이아몬드 및 보석 가공업을 하고 있으며, 신장곤의사가 중앙아프리카에서 의료사업을 펼치고 있다.

중앙아프리카는 약 62만㎢의 면적인 아프리카 대륙의 내륙국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광대한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후는 열대에 속해 우기(5월~10월)와 건기(11월~4월)로 나누어져 우기에는 이틀에 한번꼴로 30분씩 소나기가 쏟아지고 건기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하면 무조건 덥다고만 생각하기 쉬우나 그리 덥지 않아 살기에 좋다고 한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1800년에 프랑스의 탐험가 드리지가 발견한 이래 프랑스의 전진기지 또는 식민지 등으로 불행한 과거를 겪어야 했으나 꾸준한 독립운동으로 1958년에 자치국으로서 인정을 받고 1960년 8월에 정식으로 공화국을 세워 독립국가가 되었다.

한편 김범수사범은 중앙아프리카에서 6년간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궁 가족, 경호원, 경찰등을 지도해와 이를 제자로부터 사범으로 대우를 받고 있어 대통령궁에서의 생활은 만족할만하다고 현지의 생활을 전했는데 김범수 사범은 아프리카 태권도 발전의 공로로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으부터 체육훈장 청동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국체전 재브라질팀 인솔

김 상 인
대한체육회 재브라질지회
상파울주 체육회
태권도연맹 초대회장

김상인 사범(중앙)과 전국체전에 참가한 브라질 태권도 선수단.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68회 전국체육대회의 태권도 경기에 선수 4명 및 감독, 코치 등 6명의 재브라질 태권도 대표팀이 참가했다. 태권도 감독으로 참가한 김상인씨는 현재 대한체육회 재브라질지회 상파울주체육회 태권도연맹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재브라질팀은 태권도를 비롯한 5개종목에 총47명이 출전해 조국의 각 시도 선수단과 기량을 가름하며 국민화합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재 브라질에 거주하는 교민은 5만여명에 달하는데 이중 상파울로에만 거의 95%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태권도 수련생은 10만여명에 달하고 이중 한국인 사범은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태권도사범으로 71년도에 출국한 김상인 사범은 브라질의 정치사회국, 연방경찰국, 군사령부헌병대 등에서 태권도지도를 맡아오며 브라질의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장본인으로 현재 김상인 사범이 지도하고 있는 수련생은 300여명에 달한다.

김상인 사범은 대한체육회 재브라질지회 발족 당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했고 86년 2월에 창설된 상파울주 체육회 태권도연맹 창립과 동시 초대회장의 중임을 맡은 것이다.

현재 태권도연맹의 명예회장으로는 전 브라질 상원의원을 추대하였고, 고등법원장, 연방경찰국장, 검사, 변호사, 언론인등 사회저명인사를 연맹고문단으로 위촉하여 상파울로주 외에도 브라질 전역에 걸친 태권도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교민들이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태권도 사범들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행정직이나 언론인, 사법계통의 관료들을 수련시킴으로 자연히 교민의 품격이 격상되고 있어 교민 권익보호에 사범들이 선봉이 되고 있다 하겠다.

현재 태권도연맹에서는 계간으로 태권도 책자를 1500부정도 발간하는 등 태권도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전브라질태권도협회가 87년 8월 5일 창립되어 초대회장에 리오데자네이로 주에 거주하는 김용민 사범이 맡고 있다며 87년을 전브라질 태권도 활성화를 향한 전환점으로 삼아 내년부터는 88서울올림픽 참가 등 눈부신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조직, 기구, 구성원 모두가 태권도라는 대명제 아래서 네일, 내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연구하고 염려하는 자세가 하나로 될 때, 2000년대 태권도는 일취 월장하여……

모두가 전문화된 업무만을, 영역만을, 고집하는 아집을 떨쳐버리고 태권도 발전이라는 대 전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한 규 인
본회 홍보실장

우리 태권도가 현대 스포츠로 출범한지 26년, 전 태권도인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세계 대회는 물론, 각종 대륙별 대회에서 올림픽시범경기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인이 즐겨하는 국제적인 스포츠로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었다.

국내에서는 종주국답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지도자연수원 등의 기구가 있어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협회는 국내 경기 단체로서 각종경기 및 선수관리 등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국기원은 품·단증 발급, 고단자 심사, 경기장관리 및 내방객 영접, 연수원은 2급 경기지도자교육및 지도자(사범)교육으로, 일선사범은 후진양성에 주력하는 등, 태권도는 경기운영, 지도자 배출, 수련생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견주어 볼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다.

몇가지 실증을 보면

태권도 경기측면에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 타당성있는 경기진행과 운영을 위해 전광판 사용으로 매회전 승패를 즉시 공개하여 판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선수안전관리 측면에서 선수들에게 머리 보호대착용으로 경기의 안정감을 높였고, 지난 11월6일 WTF경기규정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경기진행시 경고, 감정 등과 같이 득점도 즉시 전광판에 공

개되는 방법의 시도가 검토되었으며, 이공청회에는 또한 100여명의 일선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여러가지 발전적인 의견이 건의 개진되어 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도자 배출면에서

각종경기단체중 유일하게 정부가 인정하는 연수원을 보유한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은 지난 84년 4월에 개원하여 7회의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700여명의 국가검정2급 경기지도자를 육성하였고 72년부터 4단 이상에게 실시한 지도자교육은 그동안 57회를 실시하여 6976명에게 사범자격증을 수여하였다.

우리 태권도는 이렇듯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국내는 물론, 각국(112개국)에 진출하여 활발히 태권도를 보급시킴으로서 세계인이 즐기는 태권도가 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수련생 증가 측면에서는 최근 조기교육의 사조에 따라 태권도가 활발히 보급되어서 유년부의 증가는 급속화 되었고 경기의 활성화로 중고교, 대학 등에서의 경기인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년간 승품, 승단 심사를 10만여명이 응심하고 있으며, 전국에 분포된 약3000여개소의 태권도도장에서 약200만명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양적으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각 기관과 일선사범들이 각기 분담된 업무에 따라 전문화되어 나아가고 있는 국내 태권도의 잠재력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모든것이 전문화, 세분화되어 나아가는 가운데 소홀히 되고 있는 사각(斜角)이 없는가?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일예(一例)를 들면 근래 태권도교본, 태권도 지도법, 태권도 교육론, 태권도 지도이론, 태권도겨루기론 등 태권도계의 석학들이 나름대로 발간한 대동소이한 저서들이 출간되고 있으나, 이는 일괄적인 태권도 지도의 책으로서 주로 성인들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유년부를 위한 책으로는 품새 사진을 성인을 어린이로 교체해서 등장시킨 어린이태권도교본이 발간되었으나 이책도 개괄적인 내용으로 교육용 지침서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학교교육에서 학년별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유급자, 유품자(품별지도내용), 유단자(단별지도내용) 등이 유년부와 성인들의 수련방법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진 체계적인 지도서의 필요성을 일선지도자들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3000여개소의 태권도 도장에서 1회의 지도자교육을 받은 소양과 식견으로 각기 다르게 교육을 시키면서 10만여명 이상의 유품, 유단자를 배출하고 200여만명이 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은 사회체육교육의 장으로서의 기여도가 지대하므로 이들이 수련생들을 지도하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지도서는 꼭 필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국내 수련생의 70~80%가 유년부로서 이들을 성인에 도달하도록 지속적인 수련을 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사회교육제도에 따른 입시위주교육 등 사회여건에 큰 원인이 있으나 이에 적응 내지는 대응하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가지 사회여건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나, 사회를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태권도 사회체육측면에서 성인체육의 한 종목으로 활성화시키고, 수련생 증가에 따른 질적 측면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과제도 우리는 경시하여서는 아니 되겠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선수들이 교교, 대학을 졸업후의 진로문제, 년간 평균 500여명씩 배출되는 사범들의 도장설치 및 취업문제 등은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면서도도 사각시(斜角視)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과도기에 발생하는 제 문제들을 과연 누구의 힘으로 어느곳에서 해야 할 일인지 생각해 봅시다.

협회, 국기원, 연수원, 일선지도자 등 모두가 전문화된 업무만을, 영역만을, 고집하는 아집을 떨쳐버리고 태권도 발전이라는 대 전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엽적인 일이라도 태권도의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전체 태권도인의 일이다.

조직, 기구, 구성원 모두가 태권도라는 대명제 아래서 네일, 내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연구하고 염려하는 자세가 하나로 될 때, 2000년대 태권도는 일취월장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태권도「KOREA」를 더욱 빛내게 되지 않을까?

장기적 안목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태권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

각종 특별행사 개최

제8차 세계태권도연맹 총회
세계연맹 집행위원회
제15회 국제심판강습회

제8차세계태권도연맹 총회 전경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거행된 경기일정 외에도 제8차 세계태권도연맹 총회, 세계연맹 집행위원회, 제15회 국제심판 강습회, 제1회 국제태권도 의학 심포지움 등이 개최되어 각 회의장마다 열기로 가득찼다.

제8차 세계태권도연맹 총회

세계태권도연맹 제8차 정기총회는 10월7일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총57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팔라시오데 콩그레스홀(Palacio de Congresos)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대표로는 황춘성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참가했는데 이번 총회에서 다루어진 주요안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세계연맹 규약 개정

①세계대회 유치 보증금은 미국달러 5000불로 개정했다.

②집행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를 보강했다. 따라서 기존의 기술·법제·의무·홍보 등 4개 자문위원회에 재정·여성·대학·경기 자문위원회를 보강했다.

③세계연맹회원협회의 여타 국제태권도단체 가입 불가조항을 신설했다.

④긴급한 의제가 발생했을시 총회를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었다.

⑤세계대회에 3회이상 불참시 회원권을 유보한다.

2.경기규정개정안 제출

집행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규정 개정을 위한 제반작업을 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업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종우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가 선출되었다.

3.제9회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국 선정에서 필리핀과 한국이 유치를 희망, 투표결과 14 : 38로 한국이 1989년도 9월에 개최될 제9회 대회 개최국으로 결정되었다.

4.1989년도 월드컵 태권도대회 개최지 선정에서 멕시코와 이집트가 유치를 희망해 투표결과 22 : 33으로 이집트로 결정되었다. 한편 총재의 제안에 의해 1990년도 월드컵대회는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5.4개국 신규가입 : 세계태권도연맹에 부탄·자이레·바바토스·안도라 등 4개국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세계연맹 집행위원회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총31명 중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6일 오후3시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 콩그레스홀에서 개최된 세계연맹 집행위원회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엄운규부회장이 대표로 참석했는데 이날 토의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1.세계연맹 규약개정안 심의(총회상정안)

①세계연맹회원국협회의 여타국제태권도단체가입불가

②긴급 의제발생시 총회의 우편투표 가능 조항 신설

③세계대회 3회이상 불참시 회원권을 유보

2.경기규정개정

이종우 세계연맹 부총재를 위원장, JOSIAH

지역별 선수들의 장단점 및 보완점

지역	아세아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나라	한국, 대만	터어키, 스페인, 독일, 프랑스, 홀랜드	미국, 카나다, 멕시코
장점	1.기본기 및 기본 스텝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다.	1.신장 및 체력을 이용한 경기 운영이 항상 되었다.	1.역시 월등한 체격 요건을 이용한 과감한 공격이 돋보였다.
	2.정확한 스텝에 의한 스피드가 돋보였다.	2.경기에서 부담에 구애 받지 않고 뛰는 것이 돋보였다.	2.모션과 스텝의 기본기가 어느정도 숙달 되었다.
	3.경기운영에 있어서 리듬에 의한 경기운영의 능력이 있다.	3.체력에 의한 몸싸움이 좋았다.	3.연타 공격이 간혹 나오는 것이 돋보인다.
	4.경기 리듬에 의해서 체력 안배가 좋았다.	4.긴공을 이용한 주먹 공격이 좋았다.	4.체력을 이용한 몸싸움과 주먹공격이 돋보였다.
	5.정확한 스텝과 모션에 의한 공격력이 좋았다.	5.관중의 반응에 구애 받지 않고 경기에 임한다.	5.코치의 작전지시에 절대 복종 순응한다.
	6.임기응변의 공격, 방어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았다.	6.심판 판정에 반응없이 승복한다.	6.공격 부위에서 몸동과 얼굴 공격의 분배가 이루어진다.
	7.받아 차기를 반사적으로 한다.	7.코치의 작전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7.과거에 단조로운 공격에서 다양한 공격이 돋보였다.
	8.공격적인 방어가 좋았다.		8.경기 리듬에 의한 체력 안배를 이용한 강약의 조절능력이 돋보였다.
단점	1.과감한 공격이 미흡하고 안전 위주의 소극적인 공격을 한다.	1.기본기와 스텝이 전혀 없다.	1.경기 운영이 미숙하다.
	2.체력의 열세가 현저했다.	2.체력에 의한 단조로운 공격을 한다.	2.심판 판정에 예민하다.
	3.보편적으로 주먹 공격이 부족했다.	3.아직 시합경기 운영이 미숙했다.	3.스텝과 공격의 연결이 아직도 미숙했다.
	4.몸싸움을 싫어하며 매끄럽고 정확한 발차기만 시도하려 한다.	4.경기 리듬을 스스로 끊는 것을 볼 수 있다.	4.작전에 의한 리듬있는 공격이 없었다.
	5.연결 및 연타 공격이 미흡했다.	5.작전에 의한 수비, 공격이 미흡했다.	

단점	6.관중을 필요이상으로 의식한다.	6.받아 차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5.공격 발차기와 방어 발차기에 의한 다양한 공격이 아직 미숙했다.
	7.심판의 판정에 예민한 반응을 표시한다.	7.몸 통, 얼굴 등 다양한 공격을 하지 못한다.	
	8.얼굴 공격보다는 몸통 공격에 주력한다.	8.단타 공격을 위주로 한다.	
보완점	1.3분 3회전을 통한 체력 안배 내지는 전문 체력 향상이 시급하다.		
	2.체급별 장신화를 이루어야 하며, 장신에 대비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연구, 훈련하여야 한다.		
	3.단타 위주의 공격보다는 난이도가 높으며, 연타와 기술적인 동작을 시도할 줄 알아야 한다.		
	4.자신력과 과감성을 길러야 한다.		
	5.현, 1차선발로 끝나는 대표 선발전을 1, 2차 최종 선발전까지 확대 시켜야 바람직하다.		
	6.대표 선발된 1, 2위자리를 일정 기간 내에 합동 또는 합숙훈련을 통하여 선수들의 경쟁의식에 의한 실력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7.과감한 투자와 전국 체전, 소년체전에 정식 종목이 되어야 여성 태권도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8.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선수를 육성을 해야 한다.		

4. 전력평가 및 앞으로의 대책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자유중국 선수들 또는 터어키의 밴텀급 선수, 스페인의 웰터급 선수 등 몇명을 제외하고는 기본기의 미숙달과 기본 전술 전략을 무시한 평범한 공격을 함으로써 유리한 체력과 신장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였으며, 반면에 한국 선수들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 착실한 기본기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신장과 체력의 열세를 만회하며 상대선수의 리듬을 끊어놓음으로써 경기의 전반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도표 : 3개체급신장비교)여자대표선수들은 종주국이라는 점과 제1회 세계대회에서 꼭 우승을 하여야만된다는 부담감과 편파적인 경기장의 관중들 분위기, 심판 경기운영의 미숙한 점 등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선수들의 정신적 불안정과 심적 부담감은 경기력을 약화시켰으며, 경기의 흐름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의 추세로 본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단과의 대등한 경기력 내지는 오히려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한국은 주시해야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선수단이 정보의 부재로 인한 외국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미비하였으며, 터어키와 같은 나라에서 여자 선수들을 육성하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그들이 지난해의 유럽 참피온 국가였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은 종주국 태권도의 낙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많은 국제 시합을 통하여 실력을 착실하게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좀더 활발한 정보 입수와 그들의 성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하며,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과 관중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려면 국내경기에서도 국제룰에 맞는 경기를 해야 한다. 또한 다득점제를 선택함으로써 난이도가 높은 기술 개발을 유도하여야만 하겠다.

● 3개 체급 신장비교

페더급		밴텀급		플라이급	
국명	신장	국명	신장	국명	신장
독일	167	덴마아크	163	대만	160
미국	173	그리스	165	독일	168
터어키	170	프랑스	162	싱가폴	162
스페인	170	한국	158	말레지아	160
네델란드	168	스페인	162	스페인	164
영국	165	이태리	162	네델란드	167
멕시코	165	독일	170	미국	162
대만	170	미국	162	에콰도르	163
호주	173	터어키	164	카나다	163
덴마아크	173	대만	160	호주	163
이태리	174			한국	162
오스트리아	170				
인도네시아	170				
말레지아	165				
한국	164				
평균신장	169.13cm	평균신장	162.80cm	평균신장	163.69cm
신장격차	−5.13cm	신장격차	−4.80cm	신장격차	−1.09cm

사상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종주국의 위용을 떨친
한국 여자대표 선수단

정국현/은장, 이계행/동장
유명식/동장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수혜대상

국민체육진흥재단 김종하이사장이 유명식 선수에게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국현, 이계행, 유명식선수에게 주어졌다.

지난 83년도부터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체육진흥재단(이사장 김종하)에서 지급해온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각 종목별 선수들에게 경기력향상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왔는데 태권도 선수로 연금혜택을 받아온 선수는 김종기, 정국현(이상 은장), 최정도, 허송, 박오성, 김상천, 유영합, 이동준(이상 동장)선수였는데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로 이계행(동장), 유명식(동장) 선수가 추가되어 총 10명이 연금 수혜를 받게 되었다.

이번에 연금대상에 오른 정국현선수는 그동안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 등으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은장의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번 대회로 4연패를 달성, 종주국의 위용을 떨쳐 은장 30점에서 40점으로 연금이 부가된 것이다.

정국현선수를 비롯해 이번에 연금대상자로 확정된 이계행, 유명식선수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정국현 (은장 40점, 40만원)
생년월일 : 1962.3.15
본　　적 :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632
주　　소 : 서울 도봉구 방학2동 272번지 신동아 APT 12동 302호
소　　속 : 서울지하철공사
학　　력 : 한국체육대학졸업. 동대학원 재학중
포상기록 : 1982.체육훈장 백마장 수상.
1984.체육훈장 거상장 수상
공적사항 : 1982.제5회 세계 선수권대회 라이트미들급 1위
1983.제6회 〃 〃
1985.제7회 〃 웰터급1위
1987.재8회 〃 〃

이계행 (동장 20점, 20만원)
생년월일 : 1965.4.20
본　　적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산리 317번지
주　　소 : 광주시 동구 동명1동 72-35
소속 및 학력 : 조선대졸. 조선대대학원 재학
포상기록 : 1985 체육훈장 기린장
공적사항 : 1985.제2회 월드게임 미들급 1위
1986.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미들급 1위
1987.제8회 세계 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유명식 (동장 20점, 20만원)
생년월일 : 1967.3.3
본　　적 : 충남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 2구 112번지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미아1동 837-1597
소속 및 학력 : 한국체육대학 3학년 재학중
포상기록 : 1987.대통령 표창
공적사항 : 1985.제7회 세계선수권대회 밴텀급1위
1986.1986년도 월드컵 태권도대회 밴텀급 1위
1987.제8회 세계 선수권대회 밴텀급 1위

4 연패의 꿈을 실현하고

정국현 서울지하철공사

4연패 !
개인기록경기도 아닌 투기종목 중에서도 투기종목인 태권도 경기에서 세계대회의
4연패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8년 동안의 각고로 수많은 도전을 물리친 백전노장의 정국현선수—.
그는 평소생활이 겸손하고 모범을 보여 선후배간에 신뢰가 두터운
인간미있는 선수로 평가되어 왔다.
'88서울올림픽대회의 출전을 목전에 두고, 밀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다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고 하나, 태권도 선수의
조기은퇴에 쐐기를 박고 대학 졸업후의 실업팀 취업등의
실례를 보여주어 태권도가 낳은 거목으로서의 역활을 다해왔는데
본지에서는 세계대회 4연패의 영광을 차지한
정국현선수의 소감을 실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했다.

4연패의 꿈을 실현하고

먼저 4연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태권도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1986년의 한해는 태권도의 역사와 저의 일생의 한 페이지에 길이 남을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태권도사의 측면에서는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처음 채택되어 다른 종목과 똑같이 아시아인의 관심 속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가 일본을 물리치고 중공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저는 전년부터 아시안게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게임에 꼭 출전을 해야 한다는 강한집념으로 훈련을 쌓아 왔읍니다만 최종 선발전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선수생활을 계속해서 다시 국가대표에 재기를 해서 명예를 회복시키느냐 아니면 선수생활을 마치고 지도자로서 변신을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마음의 결정을 보지 못하고 어느덧 악몽같은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 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운동인 만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훈련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읍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아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윗분들을 찾아 뵙고 상의를 드렸읍니다. 그 결과 모든 분들께서 한번 재기를 해서 많은 태권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으면 한다고 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결정을 보고, 서울지하철공사 사장님의 특별배려로 운영되는 공사팀에 소속을 두고 국가대표 1차 예선대회에 출전을 했읍니다. 출전결과 많은 분의 관심 덕분에 좋은 성적을 내고 최종을 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읍니다. 일주일 후면 최종선발대회인데 부쩍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더군요. 물론 최종전이면 누구나 긴장은 되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대표선수에서 탈락후 다시 도전을 하는 만큼 심리적인 불안상태가 상대선수보다 더 크다고 볼수 있지요. 최종전 또한 행운의 여신이 저를 보고 미소를 띠어주었는지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되어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때의 저의 기분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했고 무엇보다도 기쁜것은 제 자신 4연패의 기록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기쁨뒤엔 이번 대회가 4연패인 만큼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과 꼭 우승을 해 태권도 역사에 길이 남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부담이 주어 지더군요.

또한 태권도의 세계적인 흐름이 외국선수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정보에 상당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달간 합숙기간동안 체력훈련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4연패의 영광을 차지한
정국현 선수…
이 순간의 감격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라.

노력을 다했읍니다.

드디어 두번째 걸음을 걷기 위해 합숙훈련을 마치고 태권도 가족의 축하를 받으면서 장도에 올랐읍니다. 3년만의 외국에서의 시합이라서 외국선수들을 보면 흥분되고 긴장되어 어리둥절 해지더군요. 첫날 둘째날 모두 우리선수들이 헤비급을 제외하고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게임의 내용면에서 모두들 힘들게 경기를 펼쳤읍니다. 저는 3일째 경기로 대진표를 보니 하루에 여섯번을 싸우도록 되어 체력분배를 잘해야 겠다는 걱정이 앞서더군요.

그러나 다행히도 2번째 경기에서 영국선수를 K. O로 끝낸 바람에 저의 컨디션은 최상으로 홈팀선수인 스페인선수와 결승전에서 격돌하게 되었읍니다.

이젠 남은 경기는 한게임으로 4연패의 꿈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실패를 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었읍니다. 관중들은 일방적으로 응원하고 심판들도 관중에 동요되어 불공정한 판정을 내릴 것 같은 분위기였읍니다. 저는 이를 악무루고 결심했읍니다. 완전한 게임을 운영하지 않으면 오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았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분위기에 동요됨없이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 싸운 결과 드디어 4연패의 영광을 안게 되었읍니다. 이번의 우승이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니 저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하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스페인 하늘아래 울려퍼지는 순간 가슴이 뭉클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그때의 심정은 이와같은 영광을 얻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 뿐 이었답니다. 이때의 순간만큼은 나의 일생에 있어서 영원히 기록되고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수시절에 꼭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세계인의 제전인 서울올림픽경기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훈련해서 출전하고 싶은 지금의 심정입니다. 제가 꼭 출전해야 겠다고 강한 의지가 작용된 것은 아시안게임의 패배의 상처때문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역시 인간의 욕망은 충족될 수가 없는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선수들에게 느낀점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운동은 역시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외국선수들의 기량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어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고 있읍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선수이니까 하고 얕잡아보는 사고방식은 버리고 경기시에 한국선수하고 경기한다는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 될것입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협회의 임원님들과 모든 태권도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및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 선수권 대회

— 한국대표선수단 좌담회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은 남자부가 1회부터 8연패를 차지하여
종주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쳤고,
여자부는 첫 대회에서 처녀 우승을 차지하며,
종주국 선수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개선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표선수단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선수권 대회를 평가해 보면서 앞으로 있을
88서울올림픽대회와 89년에 서울에서 개최될 차기
세계선수권 대회를 대비해 우리의
태권도가 세계태권도 강국들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명단〉

▲단장
김성태(강원도태권도협회 회장)
▲감독
김용서(기술심의회 부의장)
▲코치
유병호(선수강화분과위원장 마포고 코치)
김영인(청산여상코치)
▲트레이너
이제승(대전체고코치)
강중식(제주도태권도협회 총무이사)

▲남자대표 선수
임성욱(핀급·계명대 1년)
강창모(플라이급·동성고 3년)
유명식(밴텀급·한국체대 3년)
정승환(페더급·서울지하철공사)
양대승(라이트급·한국체대1년)
정국현(웰터급·서울지하철공사)
이계행(미들급·조선대대학원)
고영철(헤비급·대한유도학교 조교)

▲여자대표 선수
장이숙(핀급·청산여상 2년)
이 영(플라이급·경희대 1년)
배은정(밴텀급·성신여대 1년)
김소영(페더급·성신여대 3년)
이은영(라이트급·경희대 2년)
김지숙(웰터급·경희대 3년)
김현희(미들급·경희대 2년)
장윤정(헤비급·명지대 4년)
▲사회
한규인(본회 홍보실장)

국기원 잔디밭에서 자유로이 세계선수권대회를 평가해 보는 남녀 대표선수단

▲사회 :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고 개선한 남·여대표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내년에 개최될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세계태권도 각국의 경기력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본 대회가 개최된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1992년 제25회 올림픽의 개최도시로서 88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고 봅니다.

본 대회의 선수단 단장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대회에 참가하신 김성태 단장님께서 이번 대회의 총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장
김 성 태

▲김성태(단장) :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는 남자부 57개국, 여자부 32개국에서 4백32명의 선수와 5백여 명의 각국 임원, 국제심판 등이 참가해 과거 어느 대회보다 양적인 면에서 최대의 잔치였다고 봅니다.

한국대표선수단은 남녀 선수단이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태권도 종주국의 위용을 떨쳐 단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국이 금메달을 모조리 따내 다른 나라의 참가의욕을 꺾기 쉬웠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부에서 대만과 독일에서 페더급과 헤비급 금메달을 차지했고, 여자부에서는 대만, 스페인, 미국, 덴마크, 터키 등이 골고루 금메달을 따내 외국선수들의 사기를 앙양시켰읍니다. 이는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태권도 기술개발과 함께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장신화와 체력연마를 꾀하고 전반적으로 두터운 여자선수층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사회 : 지금까지 시범 및 친선경기로 열렸던 세계여자태권도대회가 국내외 여자태권도 인구의 급증추세에 발맞추어 제1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가 정식으로 창설되어 우리나라 여자대표팀은 종합우승으로 종주국의 위용을 펼쳤는데 본 대회를 대비해 여자 대표팀의 강화훈련부터 시합까지 어떻게 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온 김성태단장이 김운용회장에게 우승컵을 전달하고 있다.

처해 왔으며 문제점이나 대비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태(단장) : 여자대표팀이 결성되기전부터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이번대회에서 여자대표팀이 얼마나 선전해 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고 봅니다.

저 또한 외국 선수들과 대비해서 우리선수들이 신장 등 체력면에서 열세하기 때문에 종합우승은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자선수들은 체력의 열세를 종주국의 선수라는 정신력으로 극복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자선수들이 세계 각국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여자선수층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사회 : 이번 대회에서 특히 축하해야 할 일은 정국현 선수가 4연패에 성공함으로써 태권도계 뿐만아니라 여타 종목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계 기록의 수립이라는 경이적인 일로 정국현 개인의 영광은 물론 태권도계의 자랑이라고 봅니다. 정국현선수의 소감과 그때의 경기상황을 들어 보도록 하지요.

정 국 현

▲정국현(웰터급·금) : 이번 대회는 그 어느 대회보다도 많은 부담감을 안고 출전하였읍니다. 그것은 작년에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이래 올해 세계대회를 대비해 강도있는 훈련을 해 왔는데 강화훈련기간중 체력이 예전보다는 딸린다는 것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 또한 이집트와의 평가전에서 득점을 내주었던 것도 하나의 부담이었읍니다. 대진표를 받아보니 저만 하루에 6번이나 대전

을 치루어야 했읍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목표로 체력연마를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외국선수들과의 비교에서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대회에 출전해 나이지리아와의 첫 경기를 가볍게 승리로 이끌자 그 다음 경기부터는 저의 전력을 알고 있는 외국선수들이 공격보다는 안맞고 피하는 소극적인 방어자세로 일관해 생각보다 쉽게 승리를 이끌 수 있었읍니다.

세계대회3년패의 간판의 덕이 컸다고 할까요. 총괄적으로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체력이 뒷받침되는 기술만이 외국선수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감 독
김 용 서

▲김용서(감독) :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팀은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고 정국현선수가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는 등 외적으로는 대단히 화려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적들이 세계에서의 우리의 압도적 우위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선수들은 이미 전 세계 속에 뿌리내린 경기측면의 태권도 기술수준이 거의 대등할 뿐 아니라 신체조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끼리의 대전일 경우 상당한 위력과 공격력으로 기술의 평준화를 실감하게 할 뿐더러 종주국을 위협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나라 선수와 대전하게 되었을 경우에 「종주국」이라는 것 때문에 위축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공격보다는 소극적인 도전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우승의 고지에 올라섰다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한 이유라고 볼수 있읍니다.

기량과 체력의 보강이 경기력향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된다고 봅니다.

코 치
김 영 인

▲김영인(여자팀 코치) :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태권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국 선수들에 대한 정보의 입수에 따른 전력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자선수들의 경우 특히 정보부재로 인해 막상 시합에 출전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이번 대회에서 정보부재로 말미암아 예선에서 탈락하는 사태를 빚은 배은정 선수의 경우는 터어키에서 여자가 태권도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출전했기 때문이었읍니다. 터어키선수는 유럽컵참피온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코 치
강 중 식

▲강중식(여자팀 트레이너) : 특히 여자선수들에게는 체력과 신장의 열세를 극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평균신장이 5㎝나 차이가 나며 체력면에서는 여자선수들이 대표선발전 등에서도 2분 3회전 경기를 치루어 왔는데 이번 대회가 3분3회전으로 치루어 지니까 3회전 정도되면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많았읍니다.

경기에 임했을 때 신장의 열세는 스피드로, 체력의 열세는 매 회전마다의 체력의 적절한 안배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사회 : 여자대표선수 중 제일 먼저 금메달을 목에 건 김소영선수가 대회참가 소감을 먼저 얘기해 주시지요.

김 소 영

▲김소영(페더급·금) : 저는 제7회세계선수권대회의 여자 오픈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회 전부터 체력보강에 우선 주안점을 두었읍니다. 그런데도 3분3회전 경기를 뛴다는 것부터가 힘들었고 하루에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5게임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힘이 들었읍니다. 체력안배가 중요할 뿐더러 이 기술이면 득점할수 있다는 확실한 자기의 특기를 발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선수들이 외국선수와의 대전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은 영

▲이은영(라이트급·금) : 여자대표팀이 우승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해 우리선수들은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보여주자고 다짐할 정도였읍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이 기술이나 경기운영면에서는 외국선수들보다 앞서나 다른 나라와의 대전에서 신장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공격을 당할 경우 정확한 공격을 해오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겁먹기 쉽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선수들의 공격형태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기진행에서 당황하거나 부담을 느껴야 했읍니다. 그래서 예선전에서 프랑스나 그밖의 유럽선수들과의 대전이 어렵게 풀린 반면 결승에서 만난 대만선수와의 대전이 우리나라 선수와 스타일이 비슷해 더 쉽게 풀 수 있었읍니다.

김 지 숙

▲김지숙(웰터급·은) : 여자팀은 대회에 나가기 전부터 종합우승은 힘들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출전했읍니다. 부담감이 큰데다가 체력에 약해 경기가 힘들었읍니다.

▲사회 : 배은정 선수는 예선전에서 탈락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패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 은 정

▲배은정(밴텀급) : 저는 국제대회에 처녀출전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컸읍니다.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멕시코와 미국의 선수들이 강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선배들이나 지도선생님으로부터 이들 선수의 특징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는데 전혀 출전하리라고 예상조차 못했던 터어키선수와의 대전에서 1회전에 한대맞고 난후 2,3회전에 만회하기 위해 밀어붙였는데 패하고 말았읍니다. 앞으로 신장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스피드있는 경기운영을 펼쳐야 할 것과 정신력으로 평소 연마해온 기술

과 체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담감없이 경기에 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김 현 희

▲김현희(미들급) : 상대방의 기량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에 임한다는 사실은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 주었읍니다.

▲사회 : 장이숙 선수는 고등학생으로 국제대회에 나가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가장 어려웠던 경기는 어떤 경기에서였읍니까?

장 이 숙

▲장이숙(핀급·금) : 스페인하고 준결승전에서 붙게 되었을 때 가장 힘이들었읍니다. 저하나로 말미암아 종합우승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하는 갈림길에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컸읍니다. 1회전에 너무 부담감이 커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들어오자 코치선생님께서 져도 좋으니 부담갖지 말고 평소 닦아온 실력을 펼쳐보라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읍니다.

▲사회 : 대회에 출전했을 때 경기에 꼭 이겨야 한다는 긴장감과 정신적 부담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여러 선수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읽을 수 있었읍니다. 무엇보다도 선수들은 꾸준한 기술연마와 체력을 기르고 코치나 트레이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회정보의 충분한 분석으로 적용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연결작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장윤정 선수는 우리나라의 헤비급 챔피온으로서의 왕좌를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세계대회에서 동메달에 그쳐 아쉬움이 많은데 패인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분석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윤 정

▲장윤정(헤비급·동) : 저는 '85년도에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 오픈경기에 출전한 경험이 있어 주로 상단발연습을 많이 했읍니다. 외국선수들이 키도 크고 힘도 좋아 발을 차면 계속 방어를 해 왔기 때문에 연습할때만큼 공격할 찬스를 잡지 못했읍니다.

▲사회 : 장윤정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선수들을 맞아 시합을 할 때 특히 중량급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윤정 : 외국선수들은 체격과 체력이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 월등합니다. 중량급에서는 10㎝이상이나 키가 차이남으로 경기 내용에서 공격보다 수비스타일이 되는 경우가 많게 됨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선제공격을 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사회 : 이영선수는 은메달에 그쳤는데 앞으로의 각오라면…

이 영

▲이 영(플라이급·은) : 무엇보다도 꾸준한 연습으로 체력을 유지시키고 기술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사회 : 남자선수들은 이번 대회에 8연패의 위업을 달성해 종주국 건아들로서의 면모를 세계만방에 떨쳤는데 유병호 코치께서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말씀해 주십시요.

코 치
유 병 호

▲유병호(남자팀 코치) : 우리 대표팀은 대회 첫날 남자밴텀급의 유명식선수와 여자 페더급 김소영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종주국다운 위력을 보여주었읍니다. 첫날의 승리는 그 다음 이어질 경기에서 다른나라 선수들이 공격에 있어 위축되게 만든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읍니다.

한편 경기면에서 각국의 선수들이 대등한 실력을 발휘했고 체력면에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은 겉으로는 표현을 안해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 모두가 꼭 이겨야한다는 강인한 정신력에서 종합우승으로 이끌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계승(남자팀 코치) : 세계적으로 태권도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과 체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 선수들이 좋은 체력에 스피드와 기술을 조화한다고 한다면 그 위력은 가히 대단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중에는 체중감량을 많이한 선수가 꽤 많아서 경기에 출전해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국내 대회와는 달리 하루에 체급별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경기를 치루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집니다.

앞으로 국내대회 경기운영방식을 국제 대회방식으로 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 : 태권도는 체급별 경기이기 때문에 싸움의 시작은 자기체중의 유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시합직전에 체중을 감량할 정도라면 국가 대표선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체중조절 문제는 선수 뿐만아니라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회에서 체중감량 때문에 고생한 선수의 얘기를 들어 보지요.

임 성 욱

▲임성욱(핀급·금) : 저는 여기서 떠날 때 2kg이 초과됐는데 막상 바르셀로나에 도착해 계체전에 달아보니 7kg이나 넘어 있었읍니다. 체중감량이 너무 힘이 든데다가 첫 경기가 주최국인 스페인 선수와 붙게 되어 스페인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기에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다음 경기는 오리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읍니다.

제 경우는 체중을 감량했다는 정신적 부담감이 정신을 바짝 가다듬고 경기에 임하게 해 준 것 같읍니다.

▲사회 : 체중감량이 오히려 정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 결과가 되었군요.(일동웃음)

이번 대회는 정국현 선수의 4연패에 못지 않게 유명식 선수가 2연패를 달성했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유 명 식

▲유명식(밴텀급·금) : 시상대에 올라서야 해냈구나 라는 기쁨이 솟아 올랐읍니다. 정국현형의 4연패에 비하면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하는 맘입니다. 저도 열심히 수련하여서 국현이형의 기록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회 : 강창모선수는 이번이 세계대회 처녀출전이었는데도 고교선수로서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하는데 이번 대회와 국내대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강 창 모

▲강창모(플라이급·금) : 첫 경기가 가장 어려웠읍니다. 체중감량을 한데다가 체력이 좋은 외국선수가 어렵게 느꼈는데 외국 선수가 종주국선수를 맞아 그런지 겁먹고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도망을 다니기만 했읍니다.

결승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세이킴선수가 약간의 부상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로이 공격하며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읍니다.

▲사회 : 헤비급에 출전한 고영철선수는 제2회월드게임과 이번대회등 두번 출전해 계속 탈락하는 고비를 들었는데 패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고영철(헤비급) : 두번이나 계속 출전하는 영광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번 다 탈락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중량급선수들이 우선 외국선수와의 경기에서 질 것이다 라는 이미지쇄신부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수들의 정신적인 사기 문제도 그러려니와 국제 심판들도 판정상 중량급의 한국선수에게 인색한 편이라고 봅니다.

▲사회 : 기량과 기술면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심판판정상 불이익을 당한다는 뜻입니까?

고 영 철

▲고영철 : 전반적으로 경기운영면에서 한국선수들이 앞선다고 봅니다. 체력면에서의 열세는 스피드라든가 정확한 공격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득점이 없는 상태의 우세판정일 경우는 대부분 한국선수들이 지는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이계승코치 : 국제심판들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종주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지도한 나라의 승리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만 시원스럽게 득점을 봅아 내지 못하는 한 종주국에 점수가 인색한 것은 세계각국의 태권도가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사회 : 심판판정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었읍니까?

정 승 환

▲정승환(페더급) : 저는 예선전 경기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선수를 맞아 1회초에 턱을 맞아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에 임해 꼭 이긴다는 각오로 싸웠읍니다. 2, 3라운드에서는 이긴 걸로 알았는데 결국 외국선수의 손이 올라갔을때 그 순간 태권도인들을 볼 면목이 없었읍니다.

양 대 승

▲양대승(라이트급·금) : 우리나라 선수들은 외국선수들과의 대전에서 꼭 이겨야만 체면이 선다는 부담감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기술을 펼쳐 보여야 되겠다는 심리적 압박은 공격시에 오히려 역습을 당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사회 :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이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하는데 경기장 분위기는 어떠하였읍니까?

이 계 행

▲이계행(미들급·금) : 저는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징·렌즈선수와 대전을 펼쳤는데 스페인 관중들의 광적인 응원과 환호에 당황할 정도로 떠들썩 했읍니다.

▲사회 : 경기운영면에서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용서 감독 : 대회 4일째인 10일 페더급 결승전에서 주최국인 스페인의 토너선수가 다운, 1분이상 일어나지 못하자 심판원들이 경기불능으로 판정, 대만선수에게 T.K.O승이 선언되자 이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에 캔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국제심판에게 몸싸움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읍니다. 결국 대회조직위측이 국제심판들에게 사과한후 다음날 경기가 재개되었으나 이일은 이번대회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봅니다.

경기장 질서대책은 그나라 문화수준과 비례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88올림픽대회 및 제9회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겠읍니다.

▲사회 : '88서울올림픽이 30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세계대회의 경험은 88대회를 대비한 전초전으로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문제점이나 대비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코치 : 우선 지적해야 될 사항은 체력의 열세가 현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분 3회전을 통한 체력안배가 중요하고, 또한 전문기술의 향상이 요구됩니다. 체급별 장신화를 이루어가야 하며 장신에 대비한 훈련을 중점적으로 연구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여자대표선수들의 경우 현재 1차선발로 끝나는 대표선발전을 1, 2차 최종선발전까지 확대하여 대진운이 좋아 대표선수가 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자부가 전국체전, 소년 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여성태권도의 저변확대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코 치
이 계 승

▲이계승코치 : 체력의 열세때문에 과감한 공격이 잘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단타위주의 공격보다는 연타와 기술적인 동작으로 신장의 열세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 오랜 시간 좌담회에 임해주신 남녀대표선수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좌담회가 내일의 태권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이 자리를 마치겠읍니다.

제2회 국제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10. 25~11. 1,
상무체육관

국제 군인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유대를 강화하며
군사 체육의 발전은 물론
범세계적인 평화증진에 기여함을
이념으로 하는 국제군인체육회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일 1일까지 8일동안
15개국에서 총 124명이 출전한 가운데
제2회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를 통하여 지난 80년도에 거행된 제1회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2연패를 차지한 한 국의 상무팀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군인의 위용을 널리 펼쳐 보이며 태권도 보급과 군 외교에 크게 기여 했다.

안 영 택 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위원장

CISM은 전세계적으로 87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방대한 국제 스포츠기구

국제군인체육회(CISM)는 각국 군인 상호간의 체육경기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군대 체육의 발전과 국가 상호간의 우의 증진을 목표로 1948년 2월 18일 프랑스「니스」에서 개최된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의 국제연합회의에서 프랑스 해군중령 데브루(DEBRUS)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국제군인체육대회 규정을 작성하여 발족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87개국의 회원국을 가진 방대한 국제기구로서 CISM은 국제 군인간의 우호를 증진하는 가운데 범세계적인 평화 증진에 기여해왔다.

한국은 회원국의 일원으로 1957년 9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총회에서부터 1983년 8월 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대표회의까지 49회에 걸쳐 각종회의에 참가하였고, 1955년 8월 그리스에서 개최된 제10회 육상대회를 시작으로 1983년 10월 미국에서 개최된 사격대회까지 씨즘 전 종목에 걸쳐 널리 참가해 왔다.

한국과 CISM과의 관계를 역사적을 보면

1957년, 그리스의 추천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CISM가입

1965년, 극동 및 동남아지역 분회장으로 선임.

1966년, 제21차 총회 서울유치, 극동분회장 한국 재임명

1968년, 극동지역 친선축구대회 개최

1973년, 제25회 씨즘 복싱대회 개최

1976년, 집행위원회 서울 개최

1979년, 제33차 씨즘 방콕총회참석「태권도」씨즘 정식종목 승인

1980년, 제1회 씨즘 태권도선수권대회 서울개최 (11.1~6, 장충체육관)

1984년, 제40회 씨즘 총회 서울개최 (4.16~17, 워커힐호텔)

1984년, 제13회 씨즘 유도대회 서울개최 (10.25~11.2, 장충체육관)

씨즘 회원국은 현재 87개국으로 이중 한국과 단독으로 수교를 맺은 국가는 33개국, 북한단독수교국은 13개국, 남북한 동시수교국은 14개국이다.

회원국현황(총87개국)

구 분	국 명	수
한국단독수교	한국,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터키, 카타르, 서독, 벨지움, 스페인, 그리스, 화란, 이태리, 룩셈부르크, 에이레, 아이보리코스트, 지부타, 모로코, 수리남, 불리비아, 미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돌, 과테말라, 페루, 아이티, 파나마, 파라과이, 카나다, 우루과이	33
동시수교 (중립)	방글라데쉬, 이란, 이락, 욜단, 레바논, 파키스탄, 싱가폴, 태국, 쿠웨이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폴루칼,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보츠와나, 브루키나화소, 수단,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가봉, 감비아, 리비아, 적도기니아, 니제르, 우간다, 나이제리아, 루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차드, 튀니지, 자이레, 가나, 자마이카, 멕시코, 알젠틴, 베네주엘라	41
북한단독수교	중공, 예멘, 시리아, 알제리, 베닌, 브룬디, 콩고, 말리, 잠비아, 탄자니아, 잠바브웨, 코코, 기니아	13

CISM 태권도 등 23개 공식종목

CISM은 태권도 등 23개 공식종목에 대해 국제경기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CISM 학술원을 통한 체육임상학회, 강습회 및 연구결과 교환과 년1회의 총회, 년2회의 집행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CISM 경기종목

구 분	종목수	경 기 종 목
군사종목	8	육군5종, 해군5종, 공군5종, 근대5종, 사격, 스키, 방향측정, 파라슈팅
개인종목	6	육상, 수영, 야지횡단, 승마, 역도, 싸이클
투기종목	5	복싱, 펜싱, 레슬링, 유도, 태권도
구기종목	4	축구, 농구, 배구, 하키
계	23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는 1976년 CISM 본부에 태권도공식종목 승인신청, 1979년 태국방콕(제

태권도 경기를 관전하는 김운용 총재와 박근태 대회장, 엄삼탁 국군체육부대 부대장

33회 CISM총회)에서 태권도 시범후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제1회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서울에서 80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거행되어 한국이 종합우승, 미국이 준우승, 바레인이 3위를 차지한바 있다.

그리고 제2회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는 86년 4월 수단 CISM총회시 87년도 에 개최된다고 공식발표됨으로써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제2회 대회를 개최하게된 배경은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씨즘의 공식경기를 통하여 씨즘 회원국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증진하고 대한민국 군인의 위용을 씨즘 회원국을 통하여 전세계에 널리 홍보하여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는 계기를 삼고 군 외교에 기여하며, 88서울올림픽의 시범종목 경기에 앞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국내외에 고취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회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

국방부에서는 CISM대회에 참가한 각국 선수 및 임원을 위해 영동호텔에 선수단 숙소를 마련했고, 각국 선수단은 대회에 앞서 국립묘지 참배, 국방부장관, 세계태권도연맹총재를 예방하였다.

친교행사로는 공군소장 박근태(국방부인사국장) 대회장이 육군회관에서 마련한 환영만찬과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총재가 신라호텔에서 마련한 격려만찬이 있었다.

선수단은 태권도경기외에 관광문화행사에도 참가했는데 올림픽경기장, 경복궁, 중앙박물관, 민속촌 등을 관광하며 88서울올림픽개최국의 면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제2회 CISM태권도대회 집행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10월 26일 오후 3시 영동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제2회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대회개요 및 대회일정, 대진표추첨 등이 있었다.

한편 이날 주요안건으로는 말레이지아, 필리핀, 레소토 등 CISM비회원국 3개국에 대한 참가승인건이 있었는데 투표로 승인을 확정했다.

또한 소청위원회 구성에 있어 씨즘공식대표, 집행위원장, 태권도심임기술위원장, 심판부장, 진행부

장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헤저드 공식대표가 씨즘 유도 상임기술위원장으로 태권도 규정을 잘 몰라 사퇴의사를 밝힘으로서써 씨즘 공식대표, 집행위원장이 빠지고 필리핀, 터어키, 오스트리아대표가 소청위원으로 구성되어 소청위원은 총6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제심판은 세계태권도연맹 경기 규정에 의거하여 위촉된 국제심판요원 13명 중 12명이 한국인이고 1명이 미국인 국적을 갖고 있어 한국선수가 시합할 경우 미국인 심판이 주심을 볼 것을 건의해 이를 채택하기로 했다.

10월 27일

대회 첫날 경기전 개회식전 공개행사가 염광여상 180명의 고적대에 의해 경쾌하고 화려하게 펼쳐져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시 정각에 대회기를 선두로 국제심판, 각국 선수단 입장식이 거행되었다. 선수단 입장식에서는 카나다 선수단에서 한 선수가 여군복장과 비슷한 전통의 상을 하고 입장해 눈길을 끌었고 미국팀에서는 해군, 공군, 육군 3군에서 골고루 선수들이 출전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다른 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임석상관에 대한 경례가 있었고 대회집행위원회 대회장 박근태 소장(국방부인사국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적인 씨즘의 태권도 공식경기와 그외 각종경기를 통하여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친목이 씨즘의 이념 아래서 굳게 심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이어 씨즘 공식대표 헤저드 대령의 축사, 국군체육부대 엄삼탁 부대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대회기가 게양되고 선수대표 김병수선수의 대표선서를 마치고 선수단이 퇴장한 뒤 식후 공개행사로 미동국교와 육군 특전단의 태권도 시범이 펼쳐 졌다.

개회식을 마치고 펼쳐진 대회 첫날 경기는 페더급과 미들급에 대한 예선전이 펼쳐져 페더급은 요르단의 SAMIR JAMIL JABER, 카타르의 RASHED AL OUJAN, 레소토의 MOLISE TAU, 한국의 허연배선수가 4강에 진출했고 미들급은 카타르의 AIEDAL SHAMARI와 요르단의 MHMOED.R이 4강에 진출했다.

10월 28일

대회 이틀째 경기는 전날에 이어 미들급 8강전이 펼쳐져 필리핀의 MINA LAW REUCEE과 한국의 이정진선수가 4강에 올랐다.

이어 핀급의 8강전이 펼쳐져 말레이지아의 HASSAN ABDHALIM가 필리핀의 RAMOS PETER ANGELD을 맞아 1, 2회전을 우세와 3회전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4강에 선착했고, 이어 한국의 편세영선수가 미국의 HARRIS BRUCE C.K선수의 부상으로 기권승, 카타르의 SULTAN AL ALLAG선수가 이란의 HAMZEIEN ALIREZA선수에게 계속 열세에 몰렸으나 이란 선수가 우세한 경기운영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자 카타르선수에게 판정승이 돌아가 4강에 올랐으며 이란은 이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이의없음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그밖

웬타금 우승을 차지한 최상진 선수와 2위 이란, 3위 카나다와 미국선수의 자랑스런 모습

에 바레인의 ADEL EBRAHIM ABULLA선수가 일방적인 공격으로 쿠웨이트를 누르고 4강에 올랐다.

이어 페더급, 미들급, 핀급에 대한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펼친후 시상식이 거행되었는데 한국은 3체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 3차례의 애국가가 울려퍼지기도 했다.

페더급 준결승전에는 요르단의 SHMIR JAMIL JABER선수와 카타르의 RASHED AL OUJAN선수의 대전에서 우세한 경기를 이끈 카타르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고, 레소토의 MORISE TAU선수와 한국의 허현배선수의 대전은 허현배선수가 뒤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판정승을 거두고 각각 결승전에서 페더급 패권을 가리게 되었다.

결승전에 오른 카타르와 한국의 대전에서 한국의 허현배선수는 1회전에는 우세판정, 2회전에 득점을 올리며 승세를 굳혀 3회전에도 우세판정으로 승리를 거두며 이번대회 첫메달의 개가를 올렸다.

미들급 준결승전에서 카타르와 AIED AL SHAMARI선수와 한국의 이정진선수는 요르단의 MHMOED R.선수와 필리핀의 MINA LAW REUCEE선수를 각각 우세 판정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카타르의 AIED AL SHAMARI선수와 한국의 이정진선수는 각각 득점이 없는 가운데 혼전을 거듭했는데 주심을 본 모 국제심판은 1,2회전에서 낭심을 맞고 주저앉은 선수에게 카운트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미들급 패권은 우세판정을 얻은 한국의 이정진선수에게 돌아갔다.

핀급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편세영선수는 말레이지아의 HASSAN ABDHALIM선수에게 기권승으로 쉽게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카타르의 SULTAN AL ALLAG선수는 바레인의 ADEL EBRAHIM ABULLA선수에게 우세로 판정승을 거두고 각각 결승에 올랐다.

예선전과 준결승전을 계속 기권승으로 올라 온 한국의 편세영 선수는 결승전에서도 카타르의 SULTANAL ALLAG선수를 맞아 기술과 기량에서 앞선가운데 득점을 올리며 가볍게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날 핀급 준결승전에서 바레인의 ADEL EBRAHIM ABULLA선수는 카타르의 SULTAN AL ALLAG선수와의 대전에서 1,2회전에 우세판정을 내주어 3회전에 역전승을 거두기 위해 선전분투했으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우세판정이 나와 결국 판정패당하자 이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이의 없음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10월 29일

대회 3일째 경기는 라이트급 예선및 결승, 웰터급 예선전이 펼쳐졌다.

라이트급 예선전은 요르단의 K.A.KHAMAL선수가 우세판정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하자 본부석의 임석상관에게 뛰어가 인사하자 양쪽볼에 입을 맞추며 축하해주는 가운데 관중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한국의 김찬구선수는 점프뒷차기등을 성공시키며 말레이지아의 R.A.BINALI선수를 눌렀고 쿠웨이트의 A.GHANIM선수는 카타르의 I.A. FEYZ선수를 우세판정으로 각각 8강에 진출했다.

8강전경기에서 프랑스의 B.PHILIPPE 선수는 좋은 개인기와 체력을 바탕으로 요르단 K.A. KHAMAL선수를 누르고 준결승전에 올랐고 이어 필리핀의 M.DIOSDADO선수는 이란의 A.A. ABBAS선수로 부터 1회에 갈려 후 얼굴공격을 당해 상대방반칙에 의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랐다.

또한 한국의 김찬구선수는 민첩한 동작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과감한 카나다의 M.BURY 선수를 맞아 다소 고전을 했으나 매회전마다 정확한 가격으로 착실히 득점을 뽑아 승리를 거두었다.

프랑스의 B.PHILIPPE선수는 한국의 김찬구 선수를 누르고 라이트급 패권을 차지했다.

쿠웨이트의 A.GHANIM선수도 바레인의 A.M. ALI선수를 우세승으로 이기고 4강에 합류했다.

프랑스와 필리핀, 한국과 쿠웨이트의 대전으로 좁혀진 라이트급 준결승전에서 프랑스의 B.PHILIPPE선수는 필리핀의 M.DIOSDADO선수가 예선에서 부상을 당한 관계로 기권승을 거두었고, 한국은 종주국선수에게 위축당한 쿠웨이트의 A.GHANIM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B.PHILIPPE선수는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며 한국의 김찬구선수를 위협했으나 득점과는 연결시키지 못했고, 김찬구선수는 대등한 경기를 펼쳐갔으나 경고로 라이트급 패권을 프랑스의 B.PHILIPPE선수에게 넘겨주는 고배를 마셨다.

프랑스의 B.PHILIPPE선수의 손이 올라가자 관중석은 물론 각국 선수들도 종주국선수를 누른 기쁨을 함께했고 CISM총재 및 본부석 각국 대표들도 일어나 박수를 쳐주는 등 경기장의 분위기는 환호와 흥분의 도가니로 세계각국의 한국에 대한 도전을 실감케 하였다.

한편 이날 라이트급 경기와 함께 웰터급경기 8강전이 펼쳐져 카나다, 이란, 한국, 미국이 4강에 진출했다.

10월 30일

대회 4일째 경기는 전날에 이어 웰터급 준결 및 결승, 밴텀급 예선 및 결승, 플라이급 8강전이 펼쳐졌다.

웰터급 준결승전은 캐나다 대 이란의 대전으로 시작되어 시종 우세한 플레이와 3회전에 멋진 뒤돌려차기를 성공한 이란의 M.D.REEA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고 한국의 최상진선수는 앞선기술로 미국의 H.T.TIMOTHY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다.

한국의 최상진선수는 이란의 M.D.REEA선수를

맞아 1회에 뒤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기선을 잡은 뒤 무난히 웰터급 패권을 차지했다.

한편 밴텀급 경기는 예선에서 미국의 M·RAFAELA선수가 이란의 D.FARJAM선수로 부터 기권승을 거두고 이어 쿠웨이트의 AHMED선수를 압도적으로 누르며 4강에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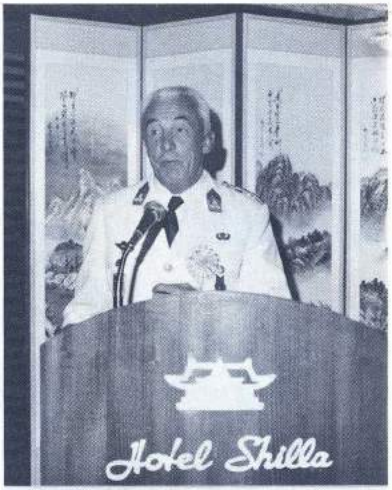
카타르와 요르단의 대전에서는 1회전에 두선수가 득점을 올리며 파인 플레이를 펼쳤으나 2회전에 요르단의 T.A.RASHED선수가 카타르의 AHMED선수의 얼굴을 차 카운트까지 몰고가는 등 2득점이나 올리며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말레이지아의 RAMLI선수는 필리핀의 L.ARGELO선수에게 판정승, 한국의 김대환선수는 바레인의 A.K.EBRAHIM 선수로부터 부전승을 거두고 각각 4강에 올랐다.

준결승전의 미국의 M.RAFAELA선수와 요르단의 T.A.RASHED선수는 좋은 기술에도 불구하고 경기운영이 미숙해 득점을 못하는 가운데 요르단 선수가 우세로 판정승을 거두었고 한국의 김찬구선수는는 말레이지아의 RAMLI선수를 1회2분10초만에 R.S.C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한국의 김대환선수는 1회전에 득점과 2,3회전에 우세로 요르단의 T.A.RASHED 선수를 누르고 밴텀급 참피언이 되었다.

이날 함께 펼쳐진 플라이급 예선전에서는 한국, 카타르, 필리핀, 요르단선수가 각각 판전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국제심판 13명과 직우에 상무팀 코치와 감독이 자리를 함께해 본 대회 기념촬영을 하기도……



김운용 총재가 신라호텔에서 마련한 만찬에서 공식대표 헤저드 대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10월 31일

마지막 날 경기는 플라이급 준결 및 결승, 헤비급 예선 및 결승전이 펼쳐졌다.

한국과 카타르의 대전으로 시작된 플라이트급 준결승전에서 한국의 김준태선수는 선제공격으로 기선을 잡고 연속공격을 퍼부었으며 2회전에 얼굴공격을 성공시키는 등 종주국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했다.

필리핀의 D.HENRY선수와 요르단의 N.A.DOMUR선수의 대전은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듯 양 선수는 경기가 진행될수록 스텝이 엉키는 듯 혼전하다가 필리핀선수가 우세판정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의 김준태선수와 필리핀의 D.HENRY선수의 플라이급 결승전에서는 김준태선수가 1회전에 공격을 성공시킨 뒤 2회전 2분42초만에 강력한 뒤돌려차기로 K.O승을 거두며 당당히 플라이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헤비급은 예선전부터 시작되어 한국의 김병수선수

헤비급 1위를 차지한 김병수 선수와 2위 카타르, 3위 카나다·미국 선수의 자랑스런 모습.

가 필리핀 선수를 맞아 1회전2분20초경에 앞돌려차기 공격을 성공시키며 카운트까지 몰고가는 등 일방적인 공격으로 8강에 진출, 레소토 선수와 대전을 펼쳤는데 신장면에서 월등히 좋은 레소토선수는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종주국선수를 맞자 상대가 되지 않는 경기로 김병수선수는 2회2분만에 뒤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며 K.O승을 거두고 종주국 선수답게 4강에 진출했다.

미국의 B.MELVIN선수와 쿠웨이트의 J.KAMEL선수의 대전은 두 선수의 체격은 좋았으나 기량면에서 떨어져 헛발질이 많은 가운데 3회말에 미국선수가 앞밀어차기 성공으로 쿠웨이트선수를 다운시켜 판정승을 거두고 4강에 올랐다.

그밖에 스피드있는 공격으로 선제공격을 퍼부운 카타르선수와 들어찍기와 뒤돌아차기 공격 등 다양한 기술을 발휘한 카나다 선수가 이란과 요르단을 누르고 각각 4강에 진출했다.

한국과 미국의 준결승전은 많은 공격이 시도되는 가운데 정확한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경기중 2회 중반에 앞차기를 성공시키며 득점을 빼낸 한국의 김병수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벌어진 카타르와 카나다의 준결승전은 카나다의 W.EVERALD선수가 판정승으로 결승에 올라 한국의 김병수선수와 패권을 다투게 되었다.

본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헤비급 결승전은 한국의 김병수선수와 카타르의 A.SALAB선수의 대전으로 좁혀져 김병수선수가 공격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승리해 헤비급 왕자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마치고 거행된 시상식에서 한국은 종합1위, 카타르가 2위, 요르단이 3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번 대회의 채점규정이 각체급별 참가득점 1점, 금메달 7점, 은메달 3점, 동메달 1점을 합한 총점순위로 종합순위가 정해진 것이다.

한편 한국은 이번 대회의 종합우승을 통하여 대한민국 군인의 위용을 널리 떨쳤다. 또한 CISM규정에 의한 모범적인 대회운영으로 범세계적인 평화유지 노력에도 공헌하였으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다양한 기술을 펼쳐보여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한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사료된다.

입상자 명단

체급	등위	성명	소속
핀급	1	전 세 영	상무
	2	Sultan Al Allag	Qatar
	3	Hassn Abdhalim	Malysia
	3	Adel Ebrahim Abulla	Bahrain
플라이급	1	김 준 대	상무
	2	Dugue Henry	Philippines
	3	Nasser Ali Dmour	Jordan
	3	Abdul Rahman Al Nuaim	Qatar
밴텀급	1	김 대 환	상무
	2	Tareq Abr Rashed	Jordan
	3	Meaina Rasfaela	U.S.A
	3	Ramli	Malaysia
페더급	1	허 현 배	상무
	2	Roshed Al Oujan	Qatar
	3	Samir Jamil Jaber	Jordan
	3	Molise Tau	Lesotho
라이트급	1	Bouedo Philippe	France
	2	김 찬 구	상무
	3	Macasaet Diosdado	Philippines
	3	Abdullah Ghanim	Kuwait
웰터급	1	최 상 진	상무
	2	Mehman Doost Reza	Iran
	3	High Tower Timothy	U.S.A
	3	Sprang James	Canada
미들급	1	이 정 진	상무
	2	Aied Al Shamari	Qatar
	3	Mhmoed R.	Jordan
	3	Mina Law Reucee	Philippines
헤비급	1	김 병 수	상무
	2	Aliac Salas	Qatar
	3	Wright Everald	Canada
	3	Boaner Melvin	U.S.A

■ 88년을 맞으며

우리말을 사랑하자

오 동 춘

시인 · 한글학회회원
대신고등학교 교사

1. 말과 사람

누구나 자고 깨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써 의사를 표시해야 살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란 생각을 목소리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생각을 부호로 적으면 글이 된다. 생각을 몸짓이나 얼굴의 태도로 나타내는 것은 짓(동작)이다. 그러므로 말은 소리말(음성언어) 글말(문자언어) 짓말(동작언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생각을 일정하게 약속한(자연적으로 발달된) 목소리로 나타내면 말이 되고 일정하게 약속한 부호로 나타내면 글이 되는 것이다. 곧 말을 적으면 글이 되고 글을 읽으면 말이 된다. 그러므로 말과 글은 하나요 따로가 아니다. 물론 좁은 뜻으로는 소리말만을 사람의 말로 본다.

사람의 생각을 목소리로 나타내면 말이라 하니까 말하기가 아주 쉬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자기의 생각을 조리있게 정확하게 잘 나타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말이라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 바로 고운말 바른말을 써야 하는 것이다.

고운 말이란 내가 남에게 정성을 다해 하는 말이며 바른말이란 이치에 맞게 바로 하는 말이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고운말 바른말로 듣는 상대방에게 잘 말했기 때문에 기분좋게 이해한 사람이 천냥빚까지 없애 준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하는 말이면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을 써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기쁜 마음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사상 감정을 잘 전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말하는 동물이다. 말을 하는 고등동물이다. 짐승과 다른 문화적 특성이 사람은 말을 가진데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말을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눈부신 정신, 물질 문명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말은 사람에게 절대적 특권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말은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생각이 나비 같은 사람은 꽃을 생각하고 생각이 쇠파리 같은 사람은 오물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

이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환히 드러나게 된다. 인격뿐만 아니라 지성미, 교양미가 드러나고 교육수준, 출생지 등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하라고 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다. 거친 말은 분노를 일으키고 부드러운 말은 정이 흐르고 사랑이 싹트는 것이다. 상대방이 혼혼하게 정이 풍기는 고운말로 의사를 전달해 줄 때 자연히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샘솟게 된다.

말은 쓰기에 달려 있다. 고운말을 쓰는 사람은 고운 말버릇이 있고 나쁜말을 쓰는 사람은 나쁜 말버릇이 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다. 어려서부터 고운 말버릇을 가져야 한다. 고운 말버릇을 가져야 고운 인격의 사람이 된다. 말은 곧 인격이기 때문이다. 개새끼란 말을 입버릇이 돼서 자주 뇌까리는 사람은 개와 같은 인격의 사람이다. 술먹은 개라는 말도 있듯이 말도 더러운 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가리(입) 대가리(머리) 눈깔(눈)등의 낮은 말을 마구써 가며 대화를 엮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얀 밥을 먹는 입으로 지독한 욕설을 퍼붓는 말은 말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사람이면 사람의 말을 해야지 어찌 개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술을 먹고 한 말이건, 실수로 한 말이건 간에 한번 해 버린 말은 어찌 할 수가 없다. 헝클어진 그물과 같고 쏟아 놓은 물과 같은 것이다. 앗차 실수로 한말을 금방 뉘우치고 그 말을 취소한다 해도 그 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이미 해버린 그 말의 여운이 들은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혀 좀처럼 말끔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안 듣는데 욕하거나 흉본 말도 다 당사자가 알게 된다. 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말조심을 일깨우는 속담으로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하지 않던가?

말조심을 경계하는 옛시조 두 수를 소개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 허물 전혀 잊고 남의 흉 보는구나
남의 흉 보거라 말고 제 허물을 고치고자.

말하기 좋다하고 남의 말을 말을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위 두 옛시조는 분명히 말조심을 일깨우는 교훈시조가 아닐 수 없다. 쉬운 우리말로 쉽게 가슴에 와 닿는 시조로 언어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제 흉은 열 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제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한다. 남을 결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남자의 말은 무거워야 한다는 뜻으로 장부일언중천금이란 말도 있다.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질 수 없는 말을 마구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된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많이 늘어놓는다. 그 약속의 말이 다 지켜지거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정치인은 존경받으며 신뢰받는 사람으로 정치생명이 길다. 그때그때 표나 긁어 모으려는 얄팍한 속임수의 말로 국민을 호려놓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정치인은 당장은 국민을 속여 다소의 효과는 봤을지 몰라도 길게 국민을 속일 수도 없거니와 속은 국민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 곧 정치생명이 끊어지고 만다.

사람은 참말을 해야 한다.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도산 안창호선생은 거짓말을 했으면 꿈에라도 통회하라고 했다. 도산은 사(思) 언(言) 행(行) 일치가 바른 인격이라 했으며 참배나무에 참배 열리고 돌배나무에 돌배 열린다고 했다. 마음이 참된 사람은 참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거짓된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은 아버지까지 욕되게 하는 불효를 낳는다. 그 때문에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했다. 참말을 심은 사람은 참열매를 얻을 것이며 거짓을 심은 사람은 거짓열매의 가을을 맞게 된다. 참열매는 농부의 곳간으로 가지만 거짓열매는 농부의 불아궁이에 들어가 재가 되는 멸망이 있을 뿐

이다.

그러므로 말과 사람은 떠나 존재 할 수 없고 고운 말, 바른말, 쉬운말을 생명처럼 알아야 한다. 결코 나쁜 말버릇을 가져서는 안 된다. 곱고 바른말로 어린이를 가르치고 학생을 교육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바른 정신에 바른 말이 있고 고운 마음에 고운 말이 있다. 말과 글이 하나요 그 말과 글이 그 나라 국민정신도 되므로 결국은 말·글·얼이 하나로 묶인다. 우리 말·글·얼을 사랑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다.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에베소서 4 : 29)"의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답게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로 밝고 곱고 바른 사회생활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말과 나라

우리는 국어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어느 나라이건 그 나라의 국어는 있다. 우리는 한국어가 우리의 국어이다. 제 나라 말과 글이 바로 국어이다. 우리말 우리글이 우리 국어이다. 우리말 우리글 사랑이 바로 국어사랑이며 이 국어사랑은 곧 나라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근 2천년간 세계 곳곳에서 학대받던 이스라엘이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것은 그들의 국어인 히브리말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그들의 애국운동은 그들의 국어인 히부리말로 꾸준히 전개되어 끝내 오늘의 막강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룬 것이다. 만주는 한때 그들의 군사적 힘이 세계를 놀라게 했으나 그들의 국어가 중국 한문화에 침식당해 지금은 있으나마나 하는 보잘것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있다. 독일의 피히테는 「독일국민에게 고함」의 4차 강연에서 국어사랑으로 독일국민의 애국심을 불러 일으켰다. '언어가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다느니 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언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한 피히테는 곧 국어가 국민정신을 형성한다고 본 것이다. 프랑스의 나포레옹 군대에 짓밟히는 독일의 베르린에서 나약한 독일국민의 애국심을 교육하는 길은 도의교육, 종교교육도 중요하나 그 사상의 뿌리가 되는 국어교육이 참으로 더욱 중요한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도 압박과 설움을 받던 일제시대에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 국어학자들이 목숨까지 바쳐 가며 우리말 우리글을 지켰던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감옥소에서 조국광복을 보지 못한 채 옥중 이슬로 사라진 한징, 이윤재 선생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다.

이와같이 말과 글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다. 국어가 흥하면 나라도 흥하고 국어가 쇠하면 나라도 쇠하게 된다.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가는 원동력이 바로 국민정신을 형성하는 국어가 된다. 이처럼 나라의 흥망이 달린 국어를 어찌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일찌기 국어사랑으로 나라사랑의 정신을 깨친 세종임금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그 서문에 세종은 우리 국어가 중국과는 다르다는 민족주의 정신을 먼저 밝혀 놓았다. 둘째로 세종이 백성을 위해 28자의 새글자를 만들었다는 민주주의 정신도 밝혔다. 세째는 새로 만든 28자를 날로 익혀 편안한 문화생활을 하라는 문화주의 정신까지 밝혀 놓았다. 세종이 민족주의, 민주주의, 문화주의 정신을 밝혀 만든 한글로 말미암아 우리는 글을 가진 문화민족의 긍지를 갖게 되었고 우리 겨레의 삶이 해와 같이 밝게 열린 것이다.

세종을 도와 한글을 만든 한 신하였던 정인지는 훈민정음 뒷글에서 한글로는 닭울음 소리, 개짖는 소리, 학 울음소리, 바람 소리까지 다 적을 수 있으며 무슨 말이건 못 적을 말이 없다고 했다. 또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 전에 다 배울 것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한글을 다 깨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으로 배우고 익히기 쉬운 것이 한글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당시 부제학 최만리 일파는 우리 문화와 제도가 중국하고 같아져 가는데 왜 중국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임금과 아전 몇 사람이 오랑캐글을 만들어 우리 국어생활을 어지럽게 하느

냐는 상소문을 올린 바 있다. 한글반포를 반대하는 소리였다. 우리 한글을 오랑캐글로 여긴 그 사고방식은 중국을 사모하는 사대주의 사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쉽고 고운 우리 말을 두고도 한자만이 참글이라 하여 진서(眞書) 사상에 젖었던 과거 일부 양반들의 그릇된 국어관이 얼마나 한글문화 발전에 암이 되어 왔던가? 폭군 연산군은 자기의 포악한 정치를 한글로 비판 하였다 하여 한글은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라고 어명을 내리고 한글로 된 책을 불사르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일이었다.

임금을 비롯한 잘못된 양반들이 우리 말을 업신여기고 우리글을 내팽개쳐도 우리 서민들이나 여자들은 꾸준히 우리 한글을 사랑하여 그 목숨을 끈질기게 지켜 왔다. 그 때문에 한글은 여자들이나 배울 수 있는 여자글, 암글이라고까지 비웃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한글은 바로 서민의 글, 민중의 글, 민중의 횃불로 나라와 겨레를 밝혀 왔다. 서포 김만중은 우리의 시와 노래를 한문으로 지으면 그건 앵무새 소리에 지나지 않고 나무하는 아이나 물 긷는 아낙네의 말 소리만도 못하다는 말을 했다. 중국의 사대모방 문화가 어찌 개성있는 우리 한글문화에 비길 수조차 있겠는가? 서포 김만중의 일찍 깨친 국어사랑에 감사와 존경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말과 글은 단순히 의사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과 글 속에 얼의 힘이 들어 있다. 그 말과 글의 줄기찬 역사와 인생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6·25 특집으로 케이비에스(KBS)에서 이산가족찾기를 했을 때 49세의 딸이 칠십대의 어머니와 모녀사이임을 서로 확인하다가 그만 49세의 딸이 「엄마! 엄마 난 몰라」하며 그만 그 벅찬 감격과 반가움에 눈물을 펑펑 쏟던 장면이 텔리비젼에 비치었던 일이 있다. 49세, 근50세의 딸이 자기도 엄마이면서 6·25때 국민학교 6학년 나이에 한강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영등포에서 원효로쪽으로 돌아오지 못해 30여년간 헤어져 생사를 몰랐다가 텔리비젼이다는 과학의 힘으로 모녀 상봉의 감격을 맞을 때 그 딸의 첫 마디는 '엄마'였다. '엄마'란 말은 엄마가 가르쳐 준 말이다. '엄마'란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 뭉클해지는 정이 흐르는 말이다. 엄마의 젖꼭지를 빨며 엄마한테 배운 '엄마'라는 우리말을 두고 母親, Mother 등의 말로 어머니를 불러 보라, 어찌 우리 한국냄새 나는 정감이 솟겠는가?

엄마와 모친이란 말의 말맛을 비교해 보자. 어린이 동요의 한 구절에 '엄마 엄마 이리 와 요것 보셔요'란 말이 있다. 이것을 '모친 모친 이리 와 요것 보셔요'로 고쳐 노래해 보라 그 느낌이 어떤가? 순우리말과 한자어 낱말의 정감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의 느낌을 주지 않는가?

집 안의 태양이라는 뜻을 지닌 「아내」라는 우리말을 두고도 '와이프'라는 영어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 많다. '아내'는 우리의 아내상이 있는 말이다. 시부모 잘 모시는 며느리요 남편 잘 받드는 열녀요 아들딸 잘 키우는 어머니요 이웃, 집안 간에 인정 많은 아주머니로서의 전통적인 한국 여인상이 바로 '아내'란 말에 담겨 있다. '와이프'란 말은 '아이 러브 유(I love you)'라고 수없이 말해 놓고 이혼을 밥먹듯이 하는 서양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자기 아내를 '와이프'라고 부르는 사람은 앞으로 이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말은 나라의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말도 힘센 말이 힘 약한 말을 잡아 먹게 된다. '셈'이라는 고운 우리말이 있었다. 이 '셈'이란 말이 중국 세력이 강하니까 '계산'으로 쓰이다가 '일본' 세력이 강해지니까 '간조'란 말로 쓰였다. 이제 서양말이 판을 치니까 '간조'는 '카운트'란 말로 쓰이고 있다. 우리의 고운 '셈'이란 말은 힘을 잃고 있다. 이는 강대국 말의 영향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도 우리말이 힘센 말이 되어 세계 곳곳에 한글문화의 꽃을 피게 해야 한다. 태권도는 우리 나라가 종주국이니까 차렷, 경례 등의 말로부터 태권도 운동용어가 우리 한국을 빛내고 있는 것은 고맙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치, 된장, 고추장 냄새 물씬 풍기는 우리말이 세계 온 나라에 두루 심겨져야 한다. 세계 각 대학에 한국어 연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야 하고 그 수가 날로 늘어 가야 한다. 해외 교포가 많아져 가니 우리말도 그만큼 세계에 많이 퍼져 갈 것으

로 믿는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우리글 쓰는 습관을 바로 가져야 한다. 이름이 죽 쓰인 방명록을 보면 중국 사람들의 명단 같은 느낌이 든다. 아직도 방명록에 한자로 이름 쓰는 사람이 많다. 한글로 써야 한다. 우리는 명함, 상표, 간판, 집이름 등이 한글로 우리말로 되어야 하고 모든 신문, 잡지, 방송의 대중전달이 우리말 우리글로 온전히 표기되고 말이 되도록 앞장 서 가야 한다. 모든 법률, 공문서가 한글로, 쉬운 우리말로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겨레가 많이 깨쳐 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하고 있다. 신문도 어느 석사논문에 의하면 한자표기가 정치, 경제면의 경우 9%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필자가 국한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중 120명의 연령을 조사해서 평균해 본 일이 있다. 59.4세였다. 환갑 나이의 늙은이들이 한글세대에게 어려운 한문공부를 강요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말과 글은 생활무기이다. 눈부신 과학 시대엔 가장 과학적인 생활무기로 살아 가야 시대에 맞게 살아 갈수 있다. 한글과 한자는 어느 글자가 더 과학적인 글자이며 과학적인 생활 무기인가? 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른다. 바야흐로 한글시대다. 소리글자시대이다. 지식이 폭발하는 정보시대에 과학적인 글로 대처해야 진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한글을 반포하기도 전인 15세기에 세종이 정인지, 권제, 안지 등에게 명령하여 지은 용비어천가 제2장을 보면

불휘 기픈 남ᄀᆞᆫ 보ᄅᆞᆷ 매 아니 뮐ᄊᆡ
곶됴코 여름 하ᄂᆞ니
시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ᄊᆡ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

로 되어 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기 때문에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는 뜻이다. 뜻도 깊고 표현도 문학적이며 딱딱하고 어려운 한자어 하나 없이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만으로 창작 되어 있다. 훌륭한 한글문화가 아닐 수 없다. 이때부터 우리말 우리글 사랑으로 한글사랑이 꾸준히 되어 왔다면 오늘날 우리 국어사전에 한자어가 우리 고유어보다 더 많다는 서글픈 소리가 없을 것이다.

한힌샘 주시경 선생이 국어 사랑으로 독립투쟁을 하며 국어 순화정신을 발휘하여 최현배, 김윤경 등의 제자들이 그 정신을 이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국어사랑에 곧 나라사랑이라는 계몽이 되어 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우리 땅에서 우리말을 우리글로 적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모든 말은 빼어나고 과학적인 한글로 적어야 한다. 우리는 한글겨레다. 흰옷을 사랑하는 한글의 핏줄이다. 어찌하여 아직도 어려운 한자의 노예가 되고 일본말의 종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찌 코높은 서양말의 종으로 타락해야 하겠는가?

賣店은 가게, 借入金은 꾼돈, 回附하다는 넘기다, 斬新하다는 새뜻하다 등으로 쉽게 풀어 쓰면 얼마나 좋은가? 또 사시미(생선회), 사라(접시), 와리바시(나무젓가락), 요지(이쑤시개), 아나고(붕장어) 등의 일본말 찌꺼기도 깨끗이 청산 되어야 한다. 또 리더(지도자), 샘플(본보기), 조깅(달리기), 디스카운트(깎음), 로프(줄), 트레이닝(훈련), 헤게모니(주도권)등의 서양 외래어도 우리말로 순화시켜 써야 한다. 휴게실은 휴게실로, 설통탕은 설렁탕으로, 찌게는 찌개로, 재털이는 재떨이로 바로 쓸 줄 알아야 한다.

내년 88년이면 우리는 역사적인 올림픽도 열게 되는 문화겨레이다. 이처럼 국제시대에 앞서 가는 우리 한국이 버젓한 우리말 우리글을 두고도 아직도 중국글, 일본글, 미국글의 노예가 되어야 하겠는가? 체육 선수의 등에 「대한민국」이란 우리말의 나라 이름을 두고 「KOREA」로 써야 옳을까? 모름지기 우리는 우리말 우리글 우리얼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야 할 때이다. 서양의 실레젤은 「언어는 인간정신을 그대로 본 떠 놓은 것」이라 했다. 우리는 우리 고운말, 바른말, 쉬운말, 깨끗한 말을 잘 지켜 쓸 줄 알아야 한다. 우리말 우리글이 가장 과학적인 삶의 무기이다. 우리 국어사랑으로 굳게 단결하여 우리 염원인 조국통일도 이루고 내년의 국제 올림픽도 한글겨레답게 가장 멋지고 자랑스럽게 잘 치뤄내야 할 것이다.

뿌리는 대로 거두리라

권경욱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의장

산에 올라 마주보이는 산을 향해 소리높혀 야호!
하고 소리쳐 보라. 곧 야-호-하는 답이 온다.

또 계곡을 향하여 소리쳐 보라. 그래도 산울림이 되어 계곡을 향하여 되돌아 올 것이다.

이렇듯 모든것은 되돌아 온다. 거울에 비취이는 자기모습처럼 말이다.

남을 미워하면, 미워한 만큼 미움이 돌아오고, 남을 헐뜯으면 헐뜯은 것 만큼 험담을 받게 된다. 세상사 모든 것들에게는 상대가 있게 마련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란 말의 뜻을 「메아리」와 같은 선상에서 풀이를 해도 해석에 무리가 없겠다.

사람을 표현하는 인간(人間)이란 글씨의 의미가 사람사이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으며 혼자 산다면 생존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주위에 혹자(惑者)는 유아독존(唯我獨尊)격으로 자기가 제일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몸편한대로 전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음을 역사(歷史)가 수없이 증명하고 있으며 실제생활에서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너·나」라는 개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생활속에 되새기면서 생활을 하는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옛 말씀에 「정승집 개가 죽어도 문상객이 줄을 이으나 정승죽은 집엔 파리만 날린다」는 속담은 덕망없이 유아독존격으로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을 꼬집어 표현한 고사성어(古事成語)이다.

우리는 「너·나」를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갖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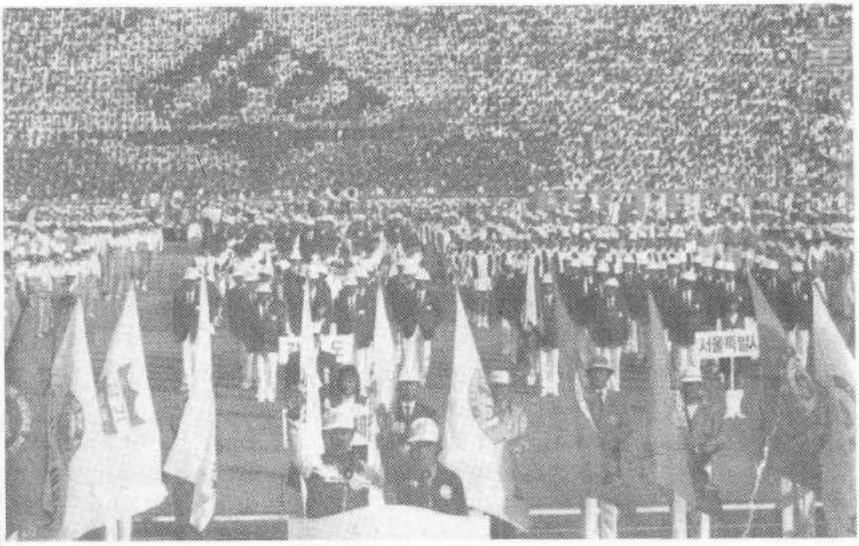
자기 스스로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덕을 쌓았으며, 나외의 사람들을 위해 베풀음이 있었는가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덕(德)을 쌓은 것만큼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여야 한다.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鱗)이란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태권도 사범, 태권도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생활은 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뿌린것 만큼 거둬들인다」는 철리(哲理)를 마음속에 새겨보자.

무등벌에 「새힘, 새날, 새빛」의 함성
제68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김용휘/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장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을 다짐한 제68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3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18일까지 6일간의 열전을 펼쳤다.

그동안 전국체육대회는 전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위를 향상시키며, 지방 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해 왔는데 이번 제68회 전국체육대회는 광주직할시 승격기념대회로 88서울올림픽을 마지막 점검하는 뜻깊은 대회이기도 했다.

「새힘, 새날, 새빛」을 지향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를 비롯, 목포, 나주, 순천, 여천, 여수, 송정, 곡성 등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14개 시도

서울/ **송봉섭** 전무

부산/ **이근우** 전무

대구/ **박유서** 총무이사

인천/ **이용환** 총무이사

및 10개 해외동포팀 등에서 2만1천7백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출전하여 34개 종목에 걸쳐 힘과 기를 겨루었다.

태권도 경기

10.14~17(4일간), 광주일고체육관

태권도 경기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경기에 향토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각시도 및 해외동포 대표팀으로 출전한 선수단 449명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친 열전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시도별 선수단은 서울 27명, 부산 29명, 대구 31명, 인천 28명, 광주 29명, 경기 30명, 강원 27명, 충북 32명, 충남 33명, 전북 33명, 전남 33명, 경북 29명, 경남 33명, 제주 29명, 재일 4명, 재미 14명, 재브라질 8명 등 17개팀에 총 449명이 출전해 예전의 어느 대회보다도 메달경쟁이 뜨거웠다.

10월 14일

태권도 경기는 고등부 핀급 대진번호 1번인 대구의 김동원선수 대 재미팀의 정재선수의 대전으로 시작되었는데 정재선수의 불참으로 김동원선수는 부전승으로 2차전에 올랐다.

실전이 펼쳐진 대진번호 2번 광주의 김문남선수대 강원 채우병선수의 대전은 광주시민의 열렬한 응원을 받고 출전한 김문남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웠다.

한편 미들급 예선전 경기에서는 대구의 공한석 선수가 부산의 윤정원선수에게 판정패당하자 판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애교(?)로 넘어갔고, 미들급 예선전 중 제주의 김태형선수 대 서울의 공두환 선수의 대결은 사실상 결승전을 방불할 정도의 주목되는 경기로 기대를 모았는데 1회 초반에 김태형선수가 득점을 올리며 기선을 잡은 뒤 가볍게 승리로 이끌었다.

계속해서 대학부 예선전 경기가 펼쳐졌는데 라이트급에서 전남의 조성철선수는 경기의 이종학 선수와의 대전에서 막상막하의 열전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나 3회전에 우세판정을 받은 전남의 조성철선수가 어렵게 승리를 거두었다. 3회전을 마치고 심판원들은 배심석에 모여 판정을 숙의하는데 3분여의 시간을 끌었으며, 판정이 선언되기 전에 경기의 이종학선수는 코치와 함께 심판판정을 거부하는 듯 헤드기어와 호구를 벗어던지고 퇴장했다. 심판의 권위를 무시하고 퇴장하는 코치나 선수의 자세,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심판 판정의 공정성 시비 등 경기장 질서 대책확립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태권도 발전에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할 명제라고 본다.

이어 벌어진 대구의 윤만철선수는 전북의 이광로 선수를 맞아 1회 중반에 뒷차기를 적중시켰는데 이에 맞서 1회 종료직전 대구의 윤만철선수는 앞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카운트까지 가는 등 파이팅 넘친 경기를 펼쳤다. 2회전에서는 대구의 윤만철선수가 선제공격을 퍼부우며 2득점이나 올리는 등 밀어붙여 승리를 거두었다.

웰터급 예선전경기에서는 서울의 박봉권선수가 충북의 공호권선수에게 우세승을 거두었으나 국가대표선수답지 않은 소극적인 경기로 관계자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다.

이어 재미의 제임스 후랜스선수와 전북의 천병렬선수의 대전은 1회중반 제임스후랜스가 앞돌려차기로 들어오는 천병렬선수를 옆차기로 공격하여 다운

경기/ 안종웅 전무

충남/ 이진수 전무

광주/ 윤판석 전무

강원/ 박병철 전무

을 뺏기도 했으나 2회전부터는 경기운영에 미숙, 득점을 내주며 판정패당하였다.

10월 15일

대회 이틀째 경기는 일반부 예선전 및 고등부, 대학부 8강전 경기가 펼쳐졌다.

일반부 밴텀급 예선전에서는 경남의 손정민선수가 1회 1분21초만에 오른발 앞돌려차기로 복부를 강타하여 처음으로 K.O승을 거두며 기염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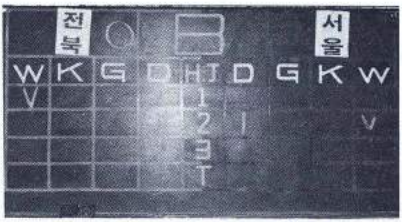
일반부 라이트급 예선전에서는 서울의 박호상선수가 대구의 김도협선수에게 2회초 기권승을 거두었다.

일반부 웰터급 예선전에서 전남의 김승재선수와 경북의 문종국선수의 대전에서 무명의 김승재선수는 2회전에 받아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승세를 굳혀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두었다. 국가대표이며 아시안게임 금메달라스트인 문종국선수는 시종 우세한 경기를 치루고도 득점을 빼앗겨 예선에서 탈락했다.

한편 고등부 8강전에서는 핀급에서 광주의 김문남선수는 전남의 김승만선수를 맞아 무려 5득점을 올리는등 일방적인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고 메달권에 진입했다.

플라이급에서 전남의 김상훈선수대 전북의 김양식선수의 경기는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전남의 김상훈선수가 우세판정을 받고 이기자 전북의 임원진들이 본부석에 항의하기도 했다.

페더급 8강전에서도 판정에 항의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서울의 김병갑선수가 인천의 유성훈 선수를 맞아 1, 2회전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3회전에 득점을 잃어 역전패를 당하자 이에 항의를 한 것이다.



심판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수동식 판정판을 마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제주의 강운신선수는 라이트급 8강전에서 1회 중반에 전북의 안태원선수가 들어찍기로 공격해 들어오자 이를 받아차며 넘어 뜨려 주심직권승을 거두었다.

대학부 8강전으로 핀급경기가 펼쳐졌는데 인천의 전동준선수는 경기의 임창섭선수를 맞아 1회전에 득점을 올리며 기선을 잡은 듯 했으나 2회전부터 임창섭선수가 반격을 퍼부우며 다량득점을 올려 패기넘치는 역전승을 장식했다.

10월 16일

전날에 이어 계속된 대학부 8강전에서 광주의 엄택동선수와 제주의 윤희섭선수가 페더급 8강전에 올라 대전을 펼쳤는데 1회전에 엄택동선수가 선제득점을 뽑아냈으나 2, 3회전에 윤희섭선수가 득점과 우세판정으로 승리했다.

웰터급 8강전에서 서울의 박봉권선수는 경남의 박종상선수를 맞아 득점과 우세판정으로 승리를 거두었으나 국가대표답지않은 예선전에 이어 여전히 소극적인 경기를 펼쳐 관중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

충북/ 정만순 전무

경북/ 예조해 전무

전북/ 장한철 전무

경남/김억곤 총무이사

헤비급 8강전에서는 광주의 정택주선수와 서울의 김동욱선수가 2회전까지 팽팽한 대결을 펼치고 이렇다할 득점없이 3회전을 마치자 배심석에서는 심판원을 불러 협의한 가운데 광주의 정택주선수에게 우세판정이 나자 서울팀에서는 강한 어필을 했다.

한편 일반부 헤비급 8강전에서는 충북의 이동준선수가 경남의 정치호 선수를 가볍게 이기고 메달권에 진입했다.

재기에 성공한 이동준선수(헤비급)의 열띤 공격모습.

고등부 준결승전에서 웰터급에 출전한 광주의 김재호선수는 허리부상으로 1회전을 마치고 기권함으로써 부산의 진정우선수는 기권승으로 가볍게 결승전에 진입했다.

대학부 준결승전에서는 핀급에서 서울의 김철호선수와 충북의 신재현선수는 광주의 김동은 선수와 경기의 임창섭선수를 각각 우세한 경기와 득점으로 누르고 결승전에 올라왔다.

페더급 준결승전에서는 제주의 윤희섭선수가 서울의 하제수선수를 맞아 2 : 1득점차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헤비급 준결승전에서는 광주의 정택주선수와 충북의 추교일선수가 1, 2회전에 각각 우세판정을 받는가운데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다 3회전에 우세한 경기를 펼친 정택주선수가 승리했다. 충북의 추교일선수는 현재 130kg으로 태권도 경기장에서는 보기드물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로 눈길을 모았다. 이어 벌어진 핀급 준결승전경기는 서울의 유원근선수에게 판정승이 돌아가자 제주의 채상만선수팀의 코치 및 임원은 판정에 불복, 경기장을 점거함으로써 나머지 경기를 치루지 못한채 경기를 마쳤다.

10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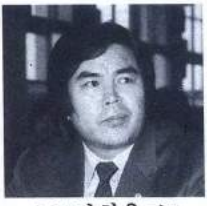
대회 마지막 날 경기는 일반부 준결승전 및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결승전이 펼쳐져 전국을 대표하는 최강자를 선발했다.

일반부 웰터급 준결승전에서 전남의 김승재선수와 서울의 임종길선수는 1, 2회전을 각각 우세판정을 주고 받는 가운데 3회전에 김승재선수가 득점을 올림으로써 결승전에 진출했다.

헤비급 준결승전에서는 광주의 김양기 선수가 전남의 박형대선수에게 기권승, 충북의 이동준선수가 충남의 이용종선수를 누르고 각각 결승전에 진출했다.

일반부 준결승전을 마치고 부별 체급 최강자를 가리는 결승전이 펼쳐졌다.

고등부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광주의 김재덕선수와 서울의 하태경선수가 올라와1, 2회전에서 하태경선수가 득점을 계속해 올리며 승세를 굳혔다. 3회전에



전남/ 박창웅 전무

제주/ 양광호 전무

재브라질동포 대표

재일동포 대표

재미국동포 대표

김재덕선수는 공격해 들어오는 하태경선수를 얼굴내려차기로 다운을 시키는 등 역전을 시도했으나 1,2 회의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아깝게 탈락했다.

페더급 결승전에서는 1회전에 부산의 오병철선수가, 2회전에 충남의 김병곤선수가 각각 우세판정을 받았고 3회전에 득점을 주고받아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세판정을 받은 충남의 김병곤선수가 어렵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라이트급 결승전에서는 제주의 강운신선수가 대구의 강철규선수를 누르고 승리, 제주에 첫금메달을 안겨주는 영광을 안았다.

한편 미들급 결승전에서는 부산의 윤정원선수와 전남의 정희천선수의 대전은 역전의 연속이었다. 1회전에 정희천선수가 우세, 2회전에 윤정원선수가 득점, 3회전에 정희천선수가 발들어찍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패권을 차지하였다.

대학부 핀급 결승전에서는 핀급으로서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대포소리와 같은 강한 득점등으로 난타전을 펼치다 서울의 김철호선수가 충북의 신재현선수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광주의 나광운선수가 경남의 김현일선수를 맞아 일방적인 승리로 패권을 차지했다.

밴텀급결승전은 서울의 정홍주선수가 충북의 지용석선수를 맞아 1회에 우세판정으로 앞서고 2회말 밀어차기로 공격해 들어오는 지용석선수를 받아차기로 성공시켜 득점을 얻으며 3회에도 이를 만회하려고 서두르는 지용석선수의 공격을 되받아차며 승리를 거두었다.

패더급 결승전에 올라온 제주의 윤희섭선수는 제주팀에 2번째의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1회전부터 막상막하의 기량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으나 윤희섭선수가 경북의 김영철선수를 이기고 판정승을 거둔 것이다.

라이트급 결승전에서는 부산의 배창호선수가 대구의 윤만철선수와 백중세의 시소경기를 펼치다 체력면에서 앞선 윤만철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광주의 정택주선수와 부산의 이성우선수의 대전이 펼쳐진 헤비급결승전에서는 1회전에 이성우선수의 우세판정, 2회전에 발들어밀어차기로 공격해온 이성우선수를 받아차기로 성공시키며 역전승을 거두었다.

일반부 핀급 결승전에서는 강원의 송영협선수가 서울의 윤원근선수를 맞아 1,2회전에 득점을 올리고 3회전에도 일격을 명중시키며 승리, 강원도에 첫금메달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플라이급 결승전에는 태권도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서울의 고정호선수와 부산의 김영식선수의 경기로 두선수 모두 전국가대표선수로서 백전노장의 경기였기에 눈길을 끌었다. 신중하게 대처한 두선수의 경기는 오히려 재미가 없을 만큼 신중한 한판이었다. 이 경기는 상단공격을 주로 시도한 김영식선수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웰터급경기에서는 전남의 김승재선수가 부상으로 1회 중반에 기권함으로써 광주의 박병호선수가 기권승을 거두었다. 헤비급에서 우승한 충북의 이동준선수는 현재 「푸른심장」이라는 영화에서 주연으로 촬영중 대회에 출전, 재기전에 성공해 88서울올림픽에

고등부 우승자들

대학부 우승자들

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전국체전의 대회 운영면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체전 대표자 회의때 이례적으로 경기운영계획을 각시도 대표들에게 문서로 배포하고 김용휘사무국장이 조목조목 낭독하고 설명하여 숙지시키는등,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역할분담으로 원만한 대회운영을 유도하였으며 매일 경기종료후 임원평가회의를 개최, 경기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세우고 임원들의 노고와 역할을 강조하는 등, 일치감있는 자세로 대회에 임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매년 늘어가는 심판판정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하여 광주시협회에서 전광판이 없는 대신 전광판과 같은 형태의 수동식 판정판을 만들어 매회전이 끝날 때마다 채점표를 집계하여 주심이 기록인에게 말과 모션으로 전달 이를 기록하였다. 이로서 전광판없이 진행된 다른 전국대회에 비해 판정시비에 대한 물의가 다소 적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채점표 수거시에는 한복을 곱게 입고 나온 자원봉사자(조선대학교 무용과학생)들이 등장해 격렬한 태권도경기장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하여줌으로써 전국체전을 통해 각 시도간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받을 만 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판정시비가 다소 줄긴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판정문제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각 시도협회간의 과열한 경쟁으로 인해 심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 태권도의 발전 및 경기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판정에 태권도인 모두가 승복하는 풍토조성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리라 본다.

입상자 명단

●고 등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장 종 원	경 남 체 고
	2	윤 철	전 북 체 고
	3	김 문 남	전 남 체 고
	3	윤 희 준	신 탄 진 고
플라이급	1	하 태 경	서 울 체 고
	2	김 재 덕	전 남 체 고
	3	김 상 훈	학 다 리 고
	3	성 대 중	강 원 사 대 부 고
밴 텀 급	1	조 영 남	동 성 고
	2	김 태 복	송 도 상 고
	3	천 일 구	경 남 체 고
	3	박 의 성	청 주 신 흥 고
페 더 급	1	김 병 곤	대 전 체 고
	2	오 병 철	부 산 체 고
	3	이 주 상	전 남 체 고
	3	유 성 훈	선 일 고
라이트급	1	강 운 신	남 주 고
	2	강 철 규	배 영 고
	3	박 병 선	전 남 체 고
	3	김 혜 상	선 일 고
웰 터 급	1	진 정 우	부 산 체 고
	2	조 광 천	동 성 고
	3	김 재 호	전 남 체 고
	3	임 영 희	광 성 고
미 들 급	1	정 희 천	학 다 리 고
	2	윤 정 원	부 산 체 고
	3	현 규 일	동 일 실 고
	3	최 훈 종	광 성 고
헤 비 급	1	최 도 천	목 포 고
	2	엄 기 천	전 남 체 고
	3	배 영 태	전 북 체 고
	3	윤 용 진	항 도 실 고

●대 학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김 철 호	한 국 체 대
	2	신 재 현	청 주 대
	3	김 동 우	조 선 대
	3	임 창 섭	경 기 대
플라이급	1	나 광 운	조 선 대
	2	김 현 일	경 상 대
	3	최 정 현	계 명 대
	3	허 인 구	관 동 대 학
밴 텀 급	1	정 홍 주	성 균 관 대
	2	지 용 석	청 주 대
	3	김 우 창	조 선 대
	3	김 태 형	경 희 대
페 더 급	1	윤 희 섭	제 주 대
	2	김 영 철	한 국 체 대
	3	하 계 수	한 국 체 대
	3	김 상 곤	경 상 대
라이트급	1	윤 만 철	계 명 대
	2	배 창 호	동 아 대
	3	최 안 성	송 원 실 전
	3	박 해 영	한 국 체 대
웰 터 급	1	박 봉 권	한 국 체 대
	2	김 성 택	조 선 대
	3	김 용 수	동 아 대
	3	차 광 채	유 도 학 교
미 들 급	1	정 용 석	한 국 체 대
	2	황 진 철	청 주 대
	3	최 원 국	제 주 대
	3	조 창 현	한 국 체 대
헤 비 급	1	정 택 주	조 선 대
	2	이 성 우	동 의 대
	3	추 교 일	청 주 대
	3	김 재 영	한 국 체 대

일반부 우승자들

●일 반 부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 학교명
핀 급	1	송 영 협	설 악 케 이 블 카
	2	윤 원 근	화 랑 체 육 관
	3	합 식	전 남 태 권 도 협 회
	3	채 상 만	제 주 태 권 도 협 회
플라이급	1	김 영 식	부 산 시 태 권 도 협 회
	2	고 정 호	지 하 철 공 사
	3	이 정 희	광 주 시 태 권 도 협 회
	3	장 해 상	전 북 태 권 도 협 회
밴 텀 급	1	오 승 재	상 무
	2	주 용 진	영 광 체 육 관
	3	우 선 웅	충 북 태 권 도 협 회
	3	김 대 환	상 무
페 더 급	1	배 완 영	전 남 태 권 도 협 회
	2	장 명 삼	설 악 케 이 블 카
	3	김 용 성	상 무
	3	홍 종 만	유 도 학 교 (조교)
라이트급	1	한 재 구	제 천 시 청
	2	최 공 집	광 주 시 태 권 도 협 회
	3	박 호 상	상 무
	3	임 익 환	충 남 동 구 청
웰 터 급	1	김 승 재	전 남 태 권 도 협 회
	2	곽 병 호	광 주 태 권 도 협 회
	3	최 찬 웅	상 무
	3	임 종 길	지 하 철 공 사
미 들 급	1	김 종 석	원 광 대 학 원
	2	이 정 진	상 무
	3	김 병 수	상 무
	3	김 진 기	경 기 도 태 권 도 협 회
헤 비 급	1	이 동 준	제 천 시 청
	2	김 양 기	광 주 태 권 도 협 회
	3	박 형 대	전 남 태 권 도 협 회
	3	이 용 종	충 남 태 권 도 협 회

●태권도 시도별 순위 및 전국체전 종합순위

시 도	득 점	순위	종합순위
서 울	2,210	1	1
부 산	1,312	4	3
대 구	542	12	9
인 천	852	7	11
광 주	2,073	2	6
경 기	683	10	2
강 원	777	7	13
충 북	1,114	5	12
충 남	769	9	4
전 북	873	6	5
전 남	1,366	3	8
경 북	308	13	10
경 남	777	7	7
제 주	681	11	14